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인류학석사 학위논문

유네스코 등재와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양면성

- 한국의 기지시줄다리기를 중심으로 -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러 실 라

# 유네스코 등재와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양면성

- 한국의 기지시줄다리기 중심으로 -

지도교수 강 정 원

이 논문을 인류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인류학과 인류학 전공  
러 실 라

러실라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3년 8월

위 원 장 박한선 (인)

부위원장 강정원 (인)

위 원 서종원 (인)

## 국문초록

본 논문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마을에서 전해져 온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인 기지시줄다리기의 사례를 통해 유네스코 2003년 협약에서 강조하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 참여’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등재를 위한 과정에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분석하는 논문이다. 연구자는 그 과정에서 기지시줄다리기는 지속적으로 유네스코와 국가의 제도를 통해 관리되어 온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러한 관리가 무형문화유산이 화석화 또는 고정화하는 위험성이 있음을 인지하였지만, 동시에 무형문화유산의 유지와 활성화에도 도움을 준다는 측면을 분석했다.

연구자는 유네스코와 국가가 진행해 온 관리에 초점을 맞추어 “양면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이를 관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회원, 마을 주민, 그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족지적 현지조사를 수행하였다.

유네스코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면서 무형문화유산 등재사업을 통해 보호 및 전승을 해왔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등재 과정에 공동체의 참여를 중시하고 있으나, 기지시 마을에서의 조사를 통해 현재 공동체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식민지와 현대화로 인해 마을의 전통 문화에 영향을 미치면서 전승 주체가 보존회로 이동하였고, 마을 주민은 전승에 관심을 잃게 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재 보존회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주 전승자로 활동하고 있다. 보존회 외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 그리고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도 기지시줄다리기의 보호 및 전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해마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개최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하는데도 실제로 보면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고 있다. 등재하는 과정에서 전승 주체인 보존회는 동의서에 서명한 것뿐 그 외의 참여를 확인하지 못했다.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이 실제 전승과정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지 않는 것과 한국같이 식민지를 경험한 나라의 경우 공동체 자체가 없기 때문에 지나친 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했다. 반면에 마을 주민의 무관심에도 불구하고 보존회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기지시줄다리기를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전승하는 것을 높이 평가했다.

유네스코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을 정해진 제도에 따라 전승하도록 하고 국가는 그 정책에 맞춰서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 국가 그리고 전승자를 통해 계속 관리되어 왔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변화를 막고 화석화되는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지되고 활성화되는 무형문화유산이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의 양면성을 따라 관리를 지지하는 문화관주의가 있는 반면에 관리가 화석화를 가져온다 주장하며 비판하는 문화자연주의가 있다. 정해진 제도대로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화석화의 위험성은 있지만 다른 면을 보면 무형문화유산이 보존되고 활성화되어서 소멸하는 것을 막도록 돕는다.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그 경계가 모호하며, 유형문화유산과 달리 특정한 영토에 국한되지 않는 점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존의 무형문화유산이 소멸하거나 변형되어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자연 방치할 경우 변질될 우려가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적절한 관리가 중요하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 관리하는 것은 정체성을 강화하고 변화를 억누르는 측면이 있다. 예를 들어 기지시줄다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정해진 방식대로 축제를 개최하고 소멸을 막기 위해 문서에 기록하고 영상을 저장하며 박물관에 전시하는 등의 노력으로 기지시줄다리기의 현상을 고정화시키는 모습을 관찰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기지시줄다리기는 무형문화유산이면서도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원형 그대로 전승하는 경향이 있다. 즉, 등재되었을 때의 모습 그대로 따라 전승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해진 제도 안에 무형문화유산이 전승되면 화석화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단순히 화석화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관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은 활성화하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다. 유네스코의 등재로 인해 관광객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기지시줄다리기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이 활성화되고 있다. 이러한 활성화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큰 도움이 된다. 유네스코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교육을 강조한다. 따라서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학생들과 보존회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며, 다음 세대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또한, 국내뿐만 아니라 필리핀, 캄보디아, 베트남과 같은 국가들과의 공동 등재로 인해 국제적 교류가 가능해져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더욱 도움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노력을 바탕으로 기지시줄다리기와 같은 무형문화유산은 교류사업과 역량 강화 세미나를 통해 국내외의 줄다리기들과의 상호작용을 촉진하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활성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리가 화석화를 가져오면서도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촉진하는 중요성을 살펴보았다. 무형문화유산 관리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양측 면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리에 있어서는 성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면을 보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가 홍보 및 교육을 통해 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필요성을 지적한다. 유네스코나 국가의 제도 또한 무형문화유산 관리에 중요하지만, 일반 시민들이 무형문화유산 전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장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주요어 : 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공동체, 국가, 문화관리, 양면성  
학 번 : 2020-24805

# 목 차

제 1 장 서론 .....	1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	1
1.2 선행연구 검토 .....	5
1. 국가와 유네스코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	5
2.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공동체 .....	11
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5
제 2 장 무형문화유산의 등재과정 .....	24
2.1 문화유산 보호 체제 유네스코 .....	24
2.2 문화유산의 등재 .....	31
2.3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 .....	36
1. 기지시줄다리기의 줄 제작과 편 가름 .....	37
2. 국가 무형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	41
3.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 필요성 .....	43
제 3 장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전승과 공동체 .....	47
3.1 기지시줄다리기와 공동체 .....	47
1.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	50
2.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 .....	53
3.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와 축제위원회의 이해관계 .....	55
4.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	58
3.2 공동체의 참여와 전승 활동 .....	60
3.3 유네스코 등재의 영향 .....	68



제 4 장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양면성 .....	75
4.1 화석화되는 무형문화유산 .....	76
4.2 활성화되는 무형문화유산 .....	87
제 5장 결론 .....	99
참고문헌 .....	110
Abstract .....	117

## 표 목 차

[표 1-1]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2021년 연간 활동 실적 .....	20
[표 2-1] 2022년 기지시줄다리기 줄제작 일정표 .....	38
[표 3-1] 기지시줄다리기의 편 가름 양상 .....	40
[표 4-1] 줄다리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 과정 추진현황 .....	45
[표 5-1] 역동적인 삼각형 .....	90

## 그 림 목 차

[그림 1-1]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열리는 위치 .....	16
[그림 2-1] 마을에서 보이는 신축 아파트와 마을의 현재 모습 ·	17
[그림 3-1] 기지기줄다리기 박물관 건물 외부 사진 .....	18
[그림 4-1] 2022년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 과정 .....	21
[그림 5-1] 공개행사에 시민제관으로 참여 .....	22
[그림 6-1] 줄 제작 체험 .....	39
[그림 7-1] 줄 고사 .....	39
[그림 8-1] 줄 당기기 .....	39
[그림 9-1] 줄다리기 현장 .....	39

# 제 1 장 서론

## 1.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지난 30년 동안에 문화유산에 대한 개념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 유네스코에 따르면 유산은 ‘과거로부터 물려받아서 현재에 사용하고 또 미래 시대를 물려줘야 하는 중요한 장소, 물건, 이야기 및 문화<sup>1)</sup>’를 의미한다. 유산이라는 개념의 발전은 19세기에 서구사회가 현대성을 중요하게 할 때부터 시작하였다. 19세기는 민족주의와 자유주의 급격한 발전과 더불어 유럽과 서구사회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확산되었다. 이에 따라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고대의 유명한 건물과 기념물이 관광지로 바뀌면서 유산 관광이 중요한 경제 및 문화현상이 되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으로 기념물과 종교적 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물이 파괴되었고, 산업혁명과 도시화, 환경오염으로 남아있는 유산도 하나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에 문화유산의 가치를 깨닫게 된 국가는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관리를 시작했다. 문화유산은 과거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지식과 역사, 관습을 바탕으로 한 귀중한 유산으로 인정받게 되었다<sup>2)</sup>.

비서구 사회에서는 서양 문화를 그대로 따라 하는 경향이 있었고, 이에 따라 전 세계 문화가 획일화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비서구 사회의 문화가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정체성 위기를 느끼게 되었다(함한

---

1)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명을 참고

(<https://whc.unesco.org/en/about/>) (참고 날짜 2023-6-12)

2) 유산 연구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David Lowenthal(1998)은 그의 책 “*The Heritage Crusade and spoils of the history*” 유산이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고 주장하였다. 그를 따르면 유산이 실제로 하는 일은 현재에 형식, 통제, 합법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그는 2017년 런던 대학에서 강의 중에 “유산은 역사가 아니다, 유산은 사람들이 자신을 정의하기 위해 역사에서 선택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연구자는 로벤텔이 주장하는 것을 지지하며 연구자 또한 유산은 과거로부터 왔지만 과거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유산과 역사는 다르다고 본다.

희 2012). 이러한 상황에 고유한 문화, 특히 무형문화가 훼손되거나 단절되고 정체성 위기가 생길까 하는 염려가 많아졌다.

유네스코(UNESCO<sup>3</sup>)는 훼손과 단절의 위험에 있는 전 세계의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일하는 협력 기구이다. 유네스코는 유형문화유산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면서 국가 간 문화 다양성(cultural diversity)을 유지하기 위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여러 계획을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각 국가 별로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려는 노력이 비등하고 있다. 당사국<sup>4</sup>이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무형문화유산을 제시간에 보호하지 않으면 소멸하거나 다른 나라에 의해 ‘재생산<sup>5</sup>’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김윤지 2016).

유네스코 2003년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목적상 “무형문화유산”이라 함은 공동체·집단 때로는 개인이 자기 문화유산의 일부로 보는 관습·표상·표현·지식·기능 및 이와 관련한 도구, 물품, 공예품 및 문화공간을 말한다. 세대 간 전승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집단 때로는 개인)를 통해 전승 환경에 대응하고 자연 및 역사와 상호작용하면서 끊임없이 재창조하고 정체성 및 계속성을 갖도록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게다가 유네스코 협약 제15조를 따르면 “당사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 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집단·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이 이러한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라고 정한다. 즉,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전승 주체는 공동체<sup>6</sup>(집단 또는 개인)이며 공동체의 적극적 참여 속에

---

3) UNESCO: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1945년에 설립).

4) 당사국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협약에 구속되고 이 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5) 무형문화유산은 유형유산과 다르게 정해진 지역에서만 전승되는 것이 아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는 경계가 없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 따라 무형문화유산도 같이 이동하고 새롭게 탄생하기도 하고 중간에 바뀌기도 한다. 특히 비슷한 문화권을 공유하고 있는 나라들 간에는 무형문화유산이 재생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 즉, ‘재생산’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본래 특징이다.

무형문화유산이 관리되는 것을 권장하다.

유네스코가 정의하는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의 당사자(Bearers)이며 무형문화유산의 전승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단체”이다. 따라서 공동체는 무형문화를 “유산”으로 인식하고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 유네스코 협약을 보면 무형문화유산의 경우 공동체의 참여 정도를 등재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보존 및 보호에 필수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호만 아니라 목록에 등재하는 과정에서도 전승 주체인 공동체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과 달리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서 생활세계에서 역동적으로 기능하므로, 무형문화유산은 지속하기도 하고 변화하기도 하며 재창조하는 본질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다(William 1977).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의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그대로 두면 소멸하여 살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의 보호 협약이나 국가가 만든 문화정책에 따라 등재하고 관리함으로써 소멸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이런 관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소멸을 방지되고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반면 제도와 등재 사업은 무형문화유산의 원래 본질과 다르게, 변화를 막아 ‘화석화’ 또는 ‘고정화’ 시킨다(강정원 2021). 즉,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불가피하며 언제나 관리를 받아 왔다.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게 되면 활성화되지만 활성화가 관리지속을 가져 온기도 한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관리가 가진 양면성이다.

강정원(2022: 5, 22)은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로 인해 생기는 양면성을 지지하는 학자들을 문화관리주의 그리고 문화자연주의로 분류한다. 그에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을 국가나 사회집단 혹은 학문이 관리 대상으로 삼아서 정책이나 목표에 준해서 변화시키거나 변화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문화관리주의이며 “국가 권력이나 자본, 학문도 간섭하거나 개입하

---

6) 무형문화유산협약 제1장 2조 정의 그리고 제3장, 15조 “공동체(집단 및 개인)의 참여” 참고. 2003년 무형문화유산의 전체 협약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협약을 공동체를 명백하게 중요시 생각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할 수 있는 절대적인 수단으로 알려져 있다.

면 안 되며, 국가나 자본, 학문이 지원하더라도 개입하지 말고 그대로 두어야 한다는 사람들은 문화자연주의”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즉, 문화관리주의자들은 문화의 활성화를 초점 맞춰 등재와 보호 정책을 통해 문화를 관리하며 유지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반면에 문화자연주의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함으로써 문화의 고정 또는 화석화를 염려하여 문화의 원래 모습 그대로 전승하도록 주장한다.

국가나 유네스코가 문화를 관리하면서도 자생성을 강화시키고자하는 양면성(강정원 2022: 15)은 대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으로 분류되며, 한쪽은 옳고 다른 쪽은 틀렸다고 간주한다. 우리가 사는 생활세계에서 모든 것에 양면성이 존재한다. 이러한 양면성은 무형문화유산을 전승되는 사람들 간에도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일부 사람들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을 지지하고, 다른 일부 사람들은 관리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 모든 것에 양면성이 있으며 그 어떤 한쪽 면만이 100% 옳다고 볼 수가 없다. 즉, 양면성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지향점이 달라질 수 있다.

유네스코는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을 참여하고 확정, 창출, 보호, 유지 및 재창조에 기여해야 한다고 하지만 막상 무형문화유산이 정해진 틀 안에서 등재되면 그 어떤 공동체도 자유로워질 수가 없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와 관리는 소멸하는 것을 방지해서 지속 가능한 전승을 가능하게 한다. 유네스코의 제도가 지향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축제, 국제 협력활동 등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활발해지며 특히, 관광객들이 증가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 전승이 활성화 된다.

기존에 전승을 중심으로 한 전승 관련 연구가 많지만, 유네스코 등재에 관련된 연구는 아직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또한, 등재하기 이전에는 많은 사전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등재된 이후에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특히 등재 이후의 공동체의 참여와 이후 전승 활동에 대한 현장 연구 자료를 찾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은 관리가 되어 왔다는 것으로 시작한다.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다양한 주체가 존재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유네스코와 국가가 해 온 관리에 초점을 맞추며 이를 관리하는 것에 대한 발생하는 문제

점에 대해서 ‘양면성’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논한다. 이러한 논의는 민속학계, 인류학계, 문화유산학계에서는 한 측면만을 다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는 ‘양면성’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유네스코와 국가가 무형문화유산 관리하는 것의 양쪽 면을 다 다루고 있어 기존의 논문들과 차별화된다.

본 논문은 한국의 기지시리 마을을 직접 현장 연구하면서 유네스코의 등재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시도한다.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공동체의 참여가 실제 등재 과정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탐구한다. 이 논문에서는 201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한국의 기지시줄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와 전승의 협약에서 언급된 내용과 현실적인 전승 사례를 비교하고자 한다.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공동체의 존재 여부와 등재 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 정도, 그리고 등재 이후의 보호와 전승에 공동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조사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화석화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기지시줄다리를 살펴보고 두 번째로는 활성화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기지시줄다리를 살펴볼 것이다.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 무형문화유산이 화석화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유네스코의 등재와 무형문화유산의 관리가 활성화되도록 도움을 준다는 역설을 현장 연구를 통해 증명하고자 한다. 본 연구 유네스코의 등재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이해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1.2 선행연구 검토

### 1) 국가와 유네스코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국가, 유네스코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은 서로 삼각관계를 이루고 있다. 여기서 ‘삼각관계’라는 것은 하나의 행위자의 행위로 다른 두 행위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역으로 다른 행위자의 행위로 남은 두 행위자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Dittmer 1981)<sup>7)</sup>. 즉, 유네스코의 협약에 국가가 개입하

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영향을 받게 되고 반대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유네스코의 협약 그리고 국가가 개입하는 것에 영향을 끼친다. 국가,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관계를 잘 이해하면 각 행위자간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상품 및 관광과 같은 다양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정체성 변화를 겪는 사회에서 소멸하기도 하지만 모든 무형문화유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sup>8)</sup>. 오히려 종종 무형문화유산의 고유한 특성이 보편화되고, 획일화된 사회에서 돋보이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어느 지역 또는 공동체의 소유로 남거나 예전처럼 교육의 대상이나 한가로운 오락의 대상이 아니라, 치열해진 “글로벌 경제 전쟁에서 최첨단 무기이자 선봉”으로 작동한다(권숙인 2017). 예를 들면 관광객의 눈길을 끌며 경제적 이익을 얻는다. 특히 문화콘텐츠 사업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도 일찍부터 문화콘텐츠 산업에 지원을 시작하였으며 “문화강국(C-Korea) 2010<sup>9)</sup>” 육성전략의 비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으로서 보호되고 전달되어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다.

그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nation-building)을 위해 동원될 수 있고 이를 통해 관광객이 증가하고 국가 소득도 올라갈 수 있는 약속을 한다. 게다가 국가의 위상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유네스코를 동의하면 문화적 다양성, 인권 및 평화 구축이라는 도덕적, 전문적 권위를 획득할 합리적 선택이 될 수 있다(Nakano 2018a). 국가를 포함해 유네스코도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를 하면 효과가

---

7) Dittmer, 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4), 485-515. 전략적 삼각관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위해 위의 논문을 참고 할 것. 본 논문에서는 이 논문을 참고만 한 것. 원래의 삼각관계와 본 논문에서 소개한 삼각관계 중 차이가 조금 있을 수가 있다.

8) 연구자는 무형문화유산이 형태가 없다고 해서 전승에 신경을 안 쓰게 되고 보호하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다 살아지고 없어진다고 볼 수는 없다. 어떤 무형문화유산들은 시간이 지나도 별 관심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9) 문화강국(C-Korea)는 문화(Culture), 콘텐츠(Contents) 그리고 창의성(Creativity)의 3C를 바탕으로 문화관광레저스포츠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자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배가 된다. 그래서 정부는 각 국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유네스코에 등재시켜서 문화유산 관리하도록 한다.

유네스코와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면,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개인의 무형문화유산을 존중하며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도로 보이지만 다른 이면도 주목해야 한다. 유네스코와 문화유산에 대한 유명한 담론인 ‘유네스코 체제(UNESCO Regime)’에 대한 논의하고자 한다. Bendix(2012)는 그의 책에서 유네스코 체제라는 개념을 소개하면서 유네스코의 문화유산 체제와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살핀 바 있다. 그를 따르면 유네스코 체제는 전 세계적으로 강한 영향을 주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각국의 핵심 시안이 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에도 국가적 검증을 필요하다. 이렇게 국가의 적극적 개입으로 인해서 실제 당사자인 공동체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다.

Deacon & Smeets(2013)는 문화유산 관리에 관한 공동체의 참여를 연구하며, 문화유산의 가치를 고찰하면서 문화유산의 관리는 사실 공동체가 아닌 정부 또한 전문가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올바른 보호를 위하여 좋은 지침이긴 하나, 무형유산 협약의 이행에 대한 지역사회 참여 요건을 독립적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

유네스코는 국가 단위로 문화유산을 선정한다. 그리고 국가가 문화유산을 보호할 책임을 부여받게 한다. 유네스코가 국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직이기 때문에 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에 대해서도 국가가 소유자이자 책임자 그리고 등재의 주체라고 주장한다(로저 자넬리 2009: 44). 국가는 무형문화유산의 목록 작성 및 등재하는 차원에서 작성·갱신 및 공표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협약 제16조 참고). 유네스코 체제가 요구하는 국가의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각국의 문화재 체제에 변화가 일어난다. 한국도 이미 무형문화재보호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재보호법이 점점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비슷하게 변해가고 있다(허용호 2022)<sup>10</sup>.

---

10) 허용호(2022)는 논문에서 유네스코 체제의 영향으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전반에 생긴 변화들을 주목하여 국내 다양한 사례를 통해 전 세계가 유네스코 체제의 영

유네스코는 세계의 무형문화유산을 대표목록 또는 긴급보호 목록에 등재시킨다. 그래서 각 국가는 자신의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 노력한다. 만약에 어떤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그 유산은 인류의 유산이 되고 그의 가치가 지역을 넘어 나라를 넘어 세계적 문화유산이 된다는 뜻이다. 등재국의 명성이 올라가고 세계적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구경하기 위해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방문한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각국에서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도록 장려한다. Gimblett(2004)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문화유산은 무엇보다도 등재목록이다. 등재된 모든 것은 이전 문맥과 관계없이 이제 다른 결작과의 관계에 배치된다. 등재는 목록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한 맥락이다”(Gimblett 2004: 57). 즉, 한번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무형문화유산은 원래와 다른 가치를 얻게 되고 전 인류가 인정하는 새로운 결작이 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국가가 등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이다(허용호 2022: 162). 국가는 협약에 의해 설정된 프레임워크 내에서 목록을 작성하고 등재하는 데 상당한 자유를 부여받는다. 국가가 문화유산을 등재하고 책임을 지고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무형문화유산을 국가의 이름으로 등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주체가 국가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어(한경구 2009) 국경을 넘어서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소유 문제에 관한 국가 간 갈등이 생긴다.

또한, 유네스코는 ‘유산-만들기’(heritage-making) 사업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등재시키는 권리와 등재에서 빼는 권리를 모두 가지고 있다(Brown 2005). 유네스코는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을 지원하고, 만약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계획이 제안된 대로 실행되지 않을 경우 등재된 항목을 유산 목록에서 제거하기도 한다. 때문에 각 국가와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을 등재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뿐만 아니라, 경쟁을 하기도 한다. 함한희(2016)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가 경쟁을 도입한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한다. 비슷한 문화권에 있는 나라가

---

항을 강하게 받고 있으며 유네스코 체제가 고착되고 정체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것을 밝히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를 두고 경쟁한다<sup>11)</sup>. 주도경(2021)은 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사례를 통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제도가 국가적 갈등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자세히 설명한 바가 있다. 한국의 단오 사례를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시행되고 난 후부터 한중 갈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밝힌다. 인류의 평화를 지향하는 유네스코의 목표와 다른 방향이다.

유네스코 등재 사업으로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정신을 가지게 되고 국가는 좋은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한다. 오늘날 유네스코는 특정 장소나 지역이나 나라의 관광을 마케팅 하는 ‘브랜드’의 역할을 하고 있다(Harrison 2013: 88-89).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협약 실행에 관해서 한국, 일본 그리고 중국의 역할은 핵심적이다(Zhu & maags 2020: 8-9). Nakano & Ju(2020)는 아시아의 세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의 협약을 만드는 데 힘쓴 이유는 바로 ‘소프트파워’(Soft power<sup>12)</sup>)(Nye 1991: 2007)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문화유산을 관리함으로써 각 국가가 소프트파워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각국은 소프트 파워를 극대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 간의 문화적 이해를 증진 하고 문화적 오해를 피하기 위한 노력보다도 무형문화유산의 경쟁을 통해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려는 잘못된 노력으로 나타나고 있다(Holden 2013: 3).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각 무형문화유산이 잘 전승해야 하고, 등재를 위한 목록을 작성해야 하고 등재의 과정에서 준비할

---

11)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등재시스템이 생긴 후 국가 간에 등재 경쟁은 심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그리고 일본은 유네스코 등재에 앞선 나라 중에서 문화가 비슷하다 보니 주도권을 빼앗겨서 안 된다는 까닭에 서로 투쟁을 부추기고 있다. 경쟁에 대해서 아래 논문 참고할 것.

정수진(2015), 한경구(2021), 박정수(2012), 송미숙(2014) 김현청 외 (2015) 등을 참고.

\*유네스코 공동등재로 인해 국가 간에 생기는 실제적인 문제는 (황경순(2018).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제도의 이상과 현실. 영남학(67),113-140.) 참고.

12) Soft power 라는 용어는 1991년 (Bound to lead)라는 책에서 조셉 네이(Joseph Nye)에 의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그는 소프트 파워를 권력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의 결점을 채우기 위한 분석적 개념이라고 말한다. 그는 한 국가의 소프트 파워는 세 가지로 나누고 있다. 1. 문화, 2. 정치, 3. 정치적 가치(나이, 2007: 40). 즉, 소프트 파워의 한 측면이 문화이기 때문에 이 문화는 무형 및 유형의 문화유산도 포함되어 있다.

것들이 엄청 많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의 힘 또는 소프트 파워 없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각 국가에 소프트파워가 필요해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한 공동체의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각 국가는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함으로써 각 국의 역사적 서사를 세계에 알리려고 시도한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 소프트파워는 양날의 검(Nakano 2018b: 63)이다.

한번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오히려 그 이전보다 책임이 커진다. 관리 과정은 유네스코의 기본 원칙과 이념에 잘 부합하고 철저히 ‘유네스코 가치’에 입각해야 한다(송지은 2017). 그래서 한번 유네스코 유산 목록에 등재된 유산은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변화를 겪게 된다. 무형문화유산은 본질적 속성상 변화가 생기지만, 한번 지정되면 그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과정에서 또 다른 변화가 생긴다. 등재과정과 이후관리가 유산의 변화를 일으키지만 등재하지 않아도 역시 부정적 변화를 겪는 것도 마찬가지다. 유네스코는 국가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도록 하고, 국가는 자기가 이익을 얻는 방법대로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전승한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하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강정원 2022: 6).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면 변화가 불가능한 것을 반대하는 면과 소멸방지를 위해 관리를 강조하는 면이다.

국가나 유네스코 등이 문화 권력으로 작동하며 문화가 화석화된다고 비판하는 학자도 있다(Bendix 2016; Smith 2006). 그래도 왜 각국은 무형문화를 등재하는 데에 노력하는 걸까?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것은 국가의 경제적 이익 때문이다. Dorson이 표현하는 ‘달콤한 가짜 민속’(Dorson 1976) 즉, 이익을 주는 민속 또는 문화가 유산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경엽(2004)은 ‘진도 다시래기’를 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해 다시 만들어진 민속이라고 주장하며 한국 민속의 전승 현실을 밝힌 바가 있다. 현재 없어진 무형문화유산을 찾아 등재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막상 지정 후에는 전승 활동에 관한 관심이 급감하고 있다(오진희 2015).

## 2) 무형문화유산 전승과 공동체<sup>13)</sup>

무형문화유산 보호 및 전승하는 것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일이다. 왜냐하면, 유형유산과 다르게 무형유산은 삶과 직접적 영향을 주고받으며 동시에 형태가 없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사라지고 소멸하기 쉬운 무형문화유산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무형 문화에 관한 관심, 그리고 협약에 채택 또한 세계의 모든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고 문화 다양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서구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서 국제사회, 소수민족의 문화가 사라져갈 위험을 가로막기 위한 탄생한 것이다.

세계유산의 경우 탁월하며 진정성이 있어야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의 경우는 문화 다양성, 재창조성 그리고 전승 주체인 ‘공동체’의 참여 여부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주체인 ‘공동체’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그 관련 다양한 비판들이 자자하지만 먼저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sup>14)</sup>에 나오는 공동체의 개념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공동체는 특정 문화적 요소를 정체성의 상징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의 집단을 뜻한다(Kurin 2007: 12). 허동성 역(2010: 17)가 쓴 책 『무형문화유산의 이해』에 따르면 공동체는 “스스로 자신들의 무형문화유산을 확정하고 정의하는 데 참여해야 한다. 이 공동체는 어떤 관습이 자신들 문화유산의 일부인지를 결정하는 주체다.” 즉,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주체자이며 무형문화유산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것에 관한 모든 권력을 가질 수 있는 존재이다. 국내 학자들은 공동체에 대한 연구할 때 주로 “무형문화유산이 공동체의 삶과 정체성을 가지는 역할”이나 “무형문화유산의 연행과 전승을 포함한 보호사업에 있어서 공동체의 역할”<sup>15)</sup>에 대해 한다(박상미 2017).

---

13) 인류학적 공동체의 정의와 본 장에서 설명하고 있는 공동체의 개념은 차이가 있다. 여기서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과 상관있는 일반적 공동체, 즉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집단을 뜻한다.

14)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은 2003년 10월 17일에 채택되었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주 전승자는 공동체이며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와 분리할 수가 없다.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승하는 의무가 있다. Blake(2006: 35)를 따르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호는 공동체의 중심 역할을 인식하고 문화적 요소를 창조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협약에는 ‘공동체’라는 단어가 12회나 나오며 무형문화유산 협약 운영지침에 42회나 나온다. 유네스코 협약 서문은 인권 그리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무형문화유산을 공동체, 특히 토착 공동체(집단, 그리고 때로는 개인)<sup>16)</sup>가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적 다양성과 인간의 창의성을 도우며 생산, 보호, 유지, 전승, 발굴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2003년에 채택된 협약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아니라 공동체에 관한 협약(Rudolf & Raymond 2013)인 것처럼 공동체를 중요하는 것은 유네스코 협약의 특징이다.

####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의 제2조 협약의 목적을 보면

- 
- 15) 박상미(2017)에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어서 논문을 참고.  
 16) 무형문화유산 협약 2003년을 보면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개인”이 항상 이 순서로 언급되어 있다. 이 협약은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개인 간의 계층 구조를 제안하지만 이에 대한 따로 정의를 제공하지 않는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다 모여서 2006년에 있었던 도쿄 전문 회의[Expert Meeting on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okyo, japan, 13-15 March 2006)]에서는 무형문화유산 목록 작성 및 보호에 대한 공동체의 참여와 관련된 조항 이행에 대한 몇가지 지침 초안을 작성하였는데 그건 아래와 같다.

공동체: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의 실행과 전수 또는 참여에 뿌리를 둔 공유된 역사적 관계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또는 연결성을 가진 사람들의 네트워크이다.

집단: 집단은 기술, 경험 및 특수 지식과 같은 특성을 공유하여 현재 및 미래의 관행, 재창조 및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서 문화 관리자, 전승자 같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공동체 내부 또는 전체에 걸쳐 사람들로 구성된다.

개인: 개인은 공동체 내부 또는 전체에 걸쳐 뚜렷한 기술, 지식, 경험 또는 기타 특성을 갖고 있어 현재와 미래의 관행, 재창조 및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서 문화 관리자, 전승자 같은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유네스코 협약을 따르면 이 공동체, 집단 그리고 개인이 비교적 상호 교환이 가능하며 절대적이고 합의된 의미는 없기 때문에 세 용어를 여기서 따로 구분하지 않고 공동체 하나로 주목할 것이다. (Blake 2008; 2019)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집단 개인이 자신들의 문화유산의 한 부분으로 인지하는 관습, 표상, 표현, 지식, 기술은 물론 그와 관련된 도구, 사물, 가공물, 문화공간을 의미한다. 대대로 전승되어 온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와 집단의 환경, 자연과의 상호작용, 역사에 따라 끊임없이 재창조되고, 그들에게 정체성과 지속성의 인식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과 인류의 창의성에 대한 존중을 증진한다. 이 협약의 목적상 공동체, 집단, 개인들 간의 상호 존중, 지속가능한 발전의 요건을 충족시키고, 현존하는 국제 인권 규약에 부합하는 무형문화유산만이 고려된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정의는 유형유산과 달리 유산의 보유자인 공동체(개인 또는 집단)에 집중한다. 2003년 협약에서 처음으로 공동체를 ‘중재자(mediator)<sup>17)</sup>’로 취급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은 이제 어떤 전문가의 것이 아닌 공동체의 것이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전승, 보존 등에는 공동체의 의견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협약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논의된 부분이 “공동체”이다. 유형문화유산 등재 사업은 비서구 사회에서, 토착 공동체의 문화유산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았다.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공동체를 중요한 전승 주체로 선정하며, 유형문화유산 등재 사업 때 생긴 비판을 상당히 의식했다. 그래서 협약에는 무형문화유산과 공동체의 연관성을 나타내어서 공동체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전 세계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된 등재 사업에서 지속한 가능한 개발을 위해 필요한 전승 주체는 바로 공동체라고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식별 및 정의에 공동체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네스코 등재의 당사국에 전반적 책임과 권한이 주어져 있지만 당사국은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인 공동체 참여 요건을 충족해하며 공동체에서 인정하는 무형문화유

17) 한나(2017) 논문에서 가져온 단어이다.

Schreiber, H. (2017).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oft power—exploring the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2, 44-57

산만 목록에 포함되거나 등재하도록 한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만이 아니라 관련 공동체를 존중하는 것이다. 즉, 공동체는 협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조건이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11조는 당사국이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공동체의 참여로 무형문화유산을 종목을 확정하고 정의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 제12조에는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1개 이상의 목록을 작성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15조에는 당사국<sup>18)</sup>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 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 집단 및 해당하는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의 유산이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이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보호, 전승 및 관리하는 데에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자세히 말하고 있다. 즉, 협약에서 말하는 공동체는 스스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공유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Blake, 2019). 유네스코를 따르면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의 실천과 전수 또는 참여에 뿌리를 둔 공유된 관계에서 정체성과 연결감을 나타내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뜻한다(UNESCO UIHS/ACCU 2006: 7-9)<sup>19)</sup>(Van Zanten 2002 & Blake 2009: 51).

‘공동체’의 문제는 협약의 개발 및 초안 작성과 이를 둘러싼 다양한 논쟁에서 중심적 초점이었다(Blake 2009). 그러나 2003년 협약은 공동체의 개념을 의미 있게 다루지 못했고, 협약의 구성과 실행에 있어 다양한 한계를 드러냈다.

유네스코는 단순히 공동체가 보호해야 한다고는 했지만, 공동체는 어디까지인지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았다. 국경을 넘어서 같은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는 사람들은 같은 공동체로 봐야 할지 아니면 다른 공동체로 봐야 할지 정확하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전승 주체자이면 공동체 안에 모든 사람이 전승해야 하는 것인가? 한 공동체 안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물론 이에 대한 Blake(2019)가 언급했던 것처럼 공동체라 해서 공동체의 모두가 무형문화

---

18) 여기서 당사국이란 이 협약에 구속되고 협약이 발효된 국가를 의미한다.

19) UIHS: UNESCO Intangible Heritage Section.

ACCU: Asia Pacific Cultural Centre for UNESCO.



유산에 대해서 알아야 한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형유산에 대한 지식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식이 없을 수 있지만 협약이 설명하는 공동체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모두가 전승자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공동체 전승에 대해서 늘 쟁점이 되는 것은 바로 국가의 참여인데, 유네스코는 공동체의 참여를 중요하다고 말을 하지만 막상 공동체의 참여보다도 국가의 참여가 더 많다. 그러나 국가의 참여는 공동체의 참여를 약화한다(Kuutma 2012: 29). 자세히 말하자면, 유네스코 협약이 공동체는 중요한 전승 주체로 인정하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경계는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아서 늘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 또한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및 보호에 국가에 관리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공동체는 원하는 대로 전승 활동에 참여하지 못한다. 공동체의 정의가 모호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공동체의 역할에 대해서 논의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에 공동체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가 제시한 논의를 참고하여 기지시줄다리기 중심으로 해서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와 전승 활동에 공동체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조명하고자 한다. 또한, 유네스코 또는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게 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의 양면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개관하고자 한다.

## 1.3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논문의 연구 대상은 기지시줄다리기를 전승했던 충남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 마을 사람들과 현재 전승 활동을 책임지고 있는 충남 당진시 송악읍 안뜰모시길 11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건물 3층에 위치한 기지시줄

다리기보존회로 나눌 수 있다. 기지시리 마을은 기지시시줄다리기의 출발  
 점이였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는 마을 주민의 전승 활동이 줄어들면서 지금은 보존회 중심으로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선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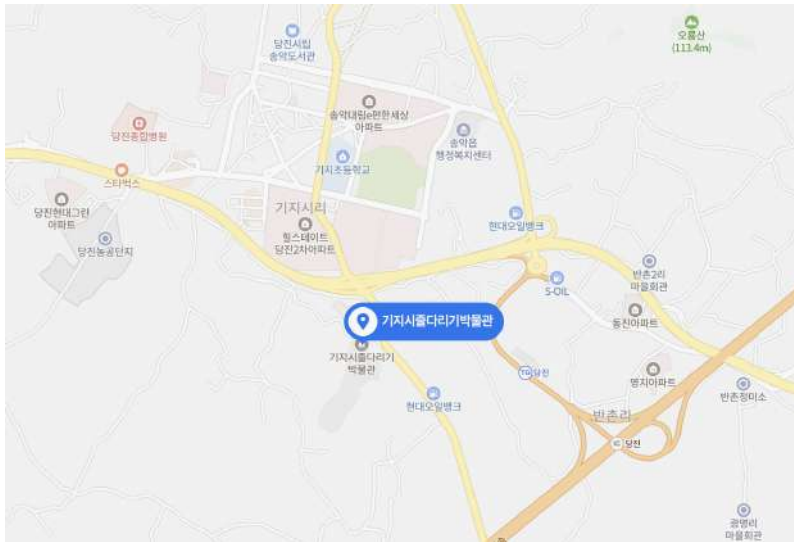


그림 1-1. 현재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열리는 위치<sup>20)</sup>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기지시리는 당진시 소재지에서 아산-예산  
 방면으로 약 7km 지점 국도 32호선 변에 위치한 마을이다. 기지시리 마  
 을 북쪽에 아래들과 위들이 펼쳐져 있으며, 남쪽으로 하천이 흘러가고 있  
 다. 기지시 마을은 틀 무시, 틀 모시, 틀 못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기지시  
 리는 원래 면천군 승선면 지역으로 1914년에 행정 구역 통폐합에 따라 당  
 진시 송악면에 편입되었다. 2012년 1월 1일 당진군이 당진시로 바뀌어서  
 당진시 송악읍 기지시리로 개편된 것이다<sup>21)</sup>. 기지시리 마을의 현재 면적  
 은 1.528km<sup>2</sup>이며, 인구는 2020년 언론 기사를 따르면 8,044명<sup>22)</sup>이 된다.

20) 기지시리 마을에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까지 약 9Km면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21) 디지털당진문화재단에서 기지시리 소개 글 참고

(<http://dangjin.grandculture.net/dangjin/toc/GC06400190>)

22) “기지시리, 인구증가로 상권형성...주차문제 심각”, 당진신문에서 참고  
 (2022-3-16 기사 참고)

도시개발 사업이 시작하면서 기지시리 마을에 큰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현재 기지시리 마을에서 외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어서 인구가 해마다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으며 원주민의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아래 사진 참고).



그림 2-1. 마을에서 보이는 신축 아파트와 마을의 현재 모습

그리고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건립과 함께 사무실도 같이 만들어졌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유래 전승·활동·현황에 대해서는 본고의 3장 3.1절에서 자세히 후술하기로 한다.

현재 보존회가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건물의 3층을 보존회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다. 내부에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사무실, 회의실 그리고 공연실로 나뉘어 있으며 기지시줄다리기 보유자와 보존회 회장, 그리고 사무를 담당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개인 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무엇보다 건물 바깥쪽에 아주 큰 마당이 있는데 이 마당에서는 현재 기지시줄다리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당의 넓이는 약 493m<sup>2</sup> 정도 되며 2011년부터 100m 넘는 두 큰 줄을 사용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이 함께 참석했던 마당이다. 여기서는 기지시줄다리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

(<http://www.idj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127387>)

문에 기지시줄다리기에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다.



그림 3-1.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건물 외부 사진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회원의 구성은 현재 29명이다<sup>23)</sup>. 회원의 자격은 문화재 보유자 선생님, 이수자 20명, 전수생 8명으로 구성된다. 기지시줄다리기 본 행사를 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회장과 부회장 그리고 사무국장도 존재한다. 특히, 기지시줄다리기의 이수자 및 사무국장으로 일하시는 B-G 씨는 사무국을 본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사가 있을 때나 줄다리기 축제를 준비할 때 다른 회원보다 더 많은 일을 계획도 하고 직접 실행도 하고 있다. 반면에 다른 회원들은 이들의 지시를 따라 맡은 일을 수행한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에 미얀마 국적의 여성도 작년(2022년) 가입했다. 이것은 한국과 미얀마가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를 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

23) 연구자가 현장 연구 때 조사한 2022년 5월의 기준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의 지난 한 해(2021년) 행사 및 사업들은 아래 표와 같다.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 2021년 활동 실적	정기행사	비정기행사	사업들
2021년 1월 1일		기지사줄다리기 김병재 보존회회장 선임	
2021년 1월 7일		당주 담그기 행사	
2021년 2월 25일		정월대보름 행사	
2021년 2월 26일		서울국립민속박물관 정월대보름행사	
2021년 4월 8일		2021 기지사줄다리기 민속행사 제례 행사	
2021년 3월~12월			전수교육관활성화 사업
2021년 3월~12월			생생문화재 활용사업
2021년 10월 2일	2021 기지사줄다리기 공개행사 (기지사줄다리기 박물관)		
2021년 10월 23일	2021 기지사줄다리기 공개행사		
2021년 10월 30일	제5차 한국전통줄다리기전 승단체 역량강화 워크숍		
2021년 11월 20일		한국 전통 줄다리기 한 마당 행사/ (줄다리기 시연울산마두회축제 태화강일대)	
2021년 12월 8일		예능보유자 '구자동'대한민국 은관문화훈장 수훈	

2021년 12월 31일		2021전수교육관활성 화사업 우수단체수상 (제2021-546호)	
---------------	--	--	--

표 1-1.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2021년 연간 활동 실적<sup>24)</sup>

## 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기지시줄다리기를 중심으로 해서 변화하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에 무형문화유산 실행자들의 이해를 조사한 연구로 참여관찰 및 심층 면담 조사를 주된 연구 방법으로 삼아, 2022년 4월 11일부터 9월까지 걸쳐 기지시리 마을의 시민들, 당진에 살고 있는 외부인들, 마을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조사했다. 연구자가 현장 연구를 시작한 시점은 서울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압도적으로 증가할 때였기에 마을 사람들이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다.

현장 연구는 두 갈래로 진행하였는데, 첫 번째는 마을에 사는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면담이었다. 마을에서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어릴 적 경험과 전승 과정 등을 중심으로 면담하였다. 다만 기지시리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이 많지 않고 많은 이가 면담을 거부했다. 남성 주민 3명 여성 주민 2명을 면담하였다. 면담의 데이터는 주로 마을 주민이 모여 있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수집하였다. 마을 주민과 인터뷰를 통해 기지시줄다리기가 어떻게 전승해 왔는지 그리고 유네스코에 등재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두 번째로 진행한 참여관찰은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회원과 박물관 직원과의 인터뷰였다. 연구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4) 2021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지시줄다리기 공개행사를 못하였다. 연구자는 2022년 봄에 연구를 하였기 때문에 그 전해 즉 2021년의 연간 활동들을 참고 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활동은 매해마다 다르다는 점을 참고.

지 2년 동안 기지시줄다리기 행사가 개최되지 않았던 시점이었다. 연구자는 당시 줄다리기 행사를 다시 개최하기 위한 준비 과정에 참여하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준비 과정부터 행사 진행까지 모든 단계를 관찰하고 기록할 기회를 가졌다. 줄다리기 행사 준비 기간 동안 연구자는 개별적 면담은 진행하지 않았으며, 줄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방문하여 구경하고 사진을 찍고 준비과정을 기록했다. 줄을 만드는 첫날에는 당진 지역의 약 100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줄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나머지 줄은 기지시 줄다리기 보존회 회원들이 매일 정해진 시간까지 줄을 꼬는 작업을 수행했다. 당진시 방송사에서도 줄을 만드는 과정을 세밀하게 기록하기 위해 촬영하고 있었다. 참여관찰을 통해 줄을 만드는 작업이 시간이 많이 소요되며, 보존회 간의 유대감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작업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보존회의 선배 회원이 새로운 추가된 회원에게 줄을 꼬는 기술을 가르치는 전승과정을 관찰하였다.



그림 4-1. 2022년 기지시줄다리기 줄 제작 과정(위치:송악하수처리장)

연구자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활동에 자주 참여함으로써, 기지시줄다리기 공개 행사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 연구자는 시민제관으로, 축제 시

작하기 전 당제를 지낼 때 같이 함께 참여하였다. 시민제관은 해당 행사에 시민으로 참석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이전에는 기지시리 마을 주민만이 시민제관으로 인정되었으나, 기지시가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된 이후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연구자를 포함한 베트남과 미얀마의 사람도 시민제관으로 함께 참여했다(아래 사진 참고).



그림 5-1. 공개행사에 시민제관으로 참여(앞에서 4번째가 연구자임)

공개행사 첫날에는 시민제관의 복장을 하고서 당제를<sup>25)</sup> 행하는 장소로 행렬하였다. 행렬 중에 연구자는 다른 외국인 제관과 가볍게 질문을 하였다. 당제 지내는 장소에 도착하자, 당제 지내는 전체 과정을 참여관찰했다. 공개 행사 둘째 날과 셋째 날도 행사에 직접 참여하였으며 축제에 놀러 온 관광객의 이야기도 나누고 인터뷰도 실시하였다. 행사의 마지막 날인 15일에 줄다리기도 참여하였다. 줄 당기는 것에 아주 어린 학생도 참여했던 것이 놀라웠다. 공개행사가 끝난 이후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회원 그리고 보존회 사무실이 행사 보고서 준비 때문에 업무량이 많아서 보존회 방문은 거의 하지 않았다.

기지시줄다리기 행사가 끝난 지 1달 이후 본격적으로 보존회 회원과 박

25) 당제는 마을의 평안과 안녕, 풍농, 사업번창, 주민화합을 위해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



물관 직원을 중심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회원 중심으로 면담하여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의 회원 중 총 6명, 남성 5명에 여성 1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했고, 이를 통해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 전승 변화, 그리고 활동들이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파악하고자 했다. 추가로 박물관 건물이기 때문에 박물관에서 일하는 학예연구사와도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기지시줄다리 기 축제 기간에 축제를 관람하러 온 관광객 대상으로 간단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축제에 참여한 계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연구 대상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이름을 영어 알파벳으로 대신하였으며 성별만 밝힌다. 연구자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회원을 “영어 알파벳-G”로 이름 변경하였고, 박물관의 사람은 “영어 알파벳-M” 그리고 마을 사람은 “영어 알파벳-V”, 마지막으로 관광객은 “영어 알파벳-T”로 변경하였다.

## 제 2 장 무형문화유산의 등재과정

본 장에서는 무형문화가 유산이 되어서 등재가 되는 전반적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자는 본 장에서 크게 3가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우선 유네스코가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협약이 만들어진 목적을 밝혀내는 것이다. 새로 채택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세계유산 보호 협약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며 전 세계의 당사국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을 통해 지속 가능한 발전과 경제발전을 증진하도록 돕는다. 다음으로는 등재라는 개념의 소개를 하면서,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이유, 등재한 후 끼치는 영향에 대한 다양한 국내외 학자의 의견을 참고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면서 관리하는 과정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알아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 중심인 기지시줄다리기를 소개하기 앞서서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래·축제·무형문화유산으로의 여정을 정리하고 기지시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과정을 개관하려고 한다.

### 2.1 문화유산 보호 체제 유네스코

유엔 전문기구 중 하나인 국제연합 과학 문화 기구(이하 유네스코)는 국제 교육, 과학, 문화, 협력 기구로서 세계의 유·무형문화유산을 보호, 보존 및 전승하는 대표 기구로 일하고 있는 비영리 기구로 설립되었다. 유네스코는 유엔(UN) 안에서 문화유산 분야를 특별히 담당하는 전문기구로서 여기에 가입된 회원국 간에 지난 1960년부터 세계의 평화와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활동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목표로 하고 왔으며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빈곤의 비율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이행할 수 있게 전 세계 회원국을 돕고 있다.

유네스코의 주요 업무는 문화유산의 보존, 보호, 관리, 전승 등을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는 제도를 만들어서 회원국에 제도대로 무형문

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 등을 이행하도록 권유해 왔다. 본 논문의 중요 쟁점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전에 유네스코는 유형문화유산에 대해 먼저 관심을 가졌다. ‘자연재해나 전쟁 등으로 파괴의 위험에 처한 유산의 복구 및 보호 활동 등을 통하여 보편적 인류 유산의 파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나라별 유산 보호 활동을 고무하는’<sup>26)</sup> 목적으로 세계유산을 보존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1972년 11월 16일에 세계 문화 및 자연유산의 보호 협약<sup>27)</sup>도 채택했다.

Smith(2006: 111)를 따르면 유네스코는 어떤 특정 문화적 표현물을 “유산”으로 선택하고 승인하고 검증하는 기구다. 즉, 유네스코는 전 세계의 모든 문화를 유산으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 중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를 유산으로 만든다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등재 목록(World Heritage List) 등재 사업을 시작해 전 세계의 유산을 목록에 추가하는 작업을 시작하였다. 세계유산 등재 목록에 들어가는 등재기준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Outstanding Universal value, OUV)를 가져야 하며, 진정성(Authenticity)이 필요하며, 완전성(Integrity)을 내재 여부 판단하며 적절한 보존 관리 계획수립 및 시행 여부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이런 제도는 만리장성이나 피라미드 같은 유적을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유산 등재제도와 거리가 먼 제3세계 그리고 비서구 사회는 세계유산이 서구사회 중심으로 만들어진 점을 비판했다(Choay 2001: 140; Arizpe 2000: 36; Yoshida 2004: 109; Faure 2009: 15). 다양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유네스코의 세계유산 등재 사업은 비교적 성공한 결과를 얻었다<sup>28)</sup>.

---

26) 세계유산을 보존하는 목적. 세계유산 사이트 참고(2022.12.01.)

[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worldHeritageInfo.jsp&pageNo=5\\_2\\_1\\_0](https://www.heritage.go.kr/heri/html/HtmlPage.do?pg=/unesco/worldHeritageInfo.jsp&pageNo=5_2_1_0)

27) Convention Concerning the Protection of the World Cultural and Natural Heritage 또는 세계유산협약(World Heritage Convention).

28) 현재까지 유네스코 세계유산은 세계 167개국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총 1157개의 유산들이 등재되었다.

Smith(2006: 3-11)은 “공인된 유산 담론”(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AHD)<sup>29)</sup>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세계유산의 서구 중심성을 비판하면서 “유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유산은 옛날 것을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과 사회적, 문화적 가치와 의미의 범위를 구성, 재구성 및 협상하는데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세계유산을 등재하는 사업이 점점 인기를 얻으면서 국제사회에서도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Lenzerini 2011). 유네스코의 서구 중심적인 것에 대한 비판은 문화유산 학자들뿐만 아니라 세계유산 협약에 의해 유산에 대한 인식이 배제되는 경향이 있는 토착 공동체(Indigenous communities)와 비서구 국가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Aikawa 2004; 2009).

이러자 유네스코는 1989년에 "전통문화와 민속 보호<sup>30)</sup>"를 다루는 권고안을 채택하여 민속과 관련된 여러 측면을 정의했다(Sherkin 2001). 그러나 이 권고안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한계를 보여주었다. 서양 문화의 영향으로 그 정체성이 점점 사라지고 일반인의 관심도 높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반인의 관심을 유형문화유산에 준하도록 끌어올리기 위해 다양한 기획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게 되었다.

1993년에는 제142차 집행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간문화재"라는 제도를 보급하였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제안된 것으로, 무형문화의 문화적 기술, 예능, 지식 등을 가진 보유자를 발굴하여 목록에 작성하고 보존하여 후대에 전승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 1996년에는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 보고서를 발표하고(Schmitt 2008), 1998년 유네스코 총회에서 "인류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유산<sup>31)</sup>

---

29) 스미스의 유명한 책인 *Uses of Heritage* 에서 그녀는 유산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논의를 한 바가 있다. 그녀는 유산의 담론을 AHD(Authorized Heritage Discourse) 즉, 공인된 유산 담론 개념을 사용해서 유산이 무엇인지 어떻게 현재 사회에서 존재하는지를 설명하였다. 이 담론은 19세기에 서유럽에서 부흥했던 건물 또는 물질의 보호에 대한 지나친 서구 중심적 경향을 비판하는 것에서 등장했던 것이다(Smith, 2006).

30) Recommendation of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31)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of the Oral and Intangible Heritage of

"개념이 새롭게 정의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소멸 위기에 처한 문화유산을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으로 선정하여 보호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이에 여러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90개의 걸작 작품이 등재되었다.

그러나 1998년 협약의 검토 과정에서 개발도상국은 "무형문화유산 걸작"이라는 용어 선택을 비판했다. 걸작이 과연 어떤 유산을 정의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인류 구전 및 무형유산 걸작" 결의안이 새로운 협약을 위한 발의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려하며 반대했다(Aikawa 2008: 20). 이러한 비판과 의견을 고려하여 유네스코는 새로운 접근법을 만들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유네스코 회원국의 전문가는 2001년 제31차 총회 회의에서 표준화된 초안을 작성할 필요성을 느끼고, 세계적으로 위기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재생을 위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새로운 등재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선언문 프로그램의 첫 번째 이사회에서 32개 후보 중 19개의 걸작을 선언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이 선언문은 지역사회나 공동체의 인식을 높이며, 무형문화유산의 중요한 가치와 긴급 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를 통해 무형유산 관련 주민들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유네스코는 1989년 전통문화 및 민속 보호에 관한 권고안을 채택한 이후, 15년이 지난 현재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관심사를 인식하였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리고, 다양한 사람들 간의 친밀한 상호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였다<sup>32)</sup>.

2002년에 국가 인간문화재 제도 수립에 대하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며, 새로운 국제 협약의 초안을 발전해 나갔다. 그 결과로 2003년 10월 제32

---

Humanity.

32) 문화재청,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2010,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 집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주)디자인인트로 (2003년 9월 29일부터 10월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제 32차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총회 내용 중)

차 총회에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2006년 4월 20일에 발효하였다(Blake 2009: 45). 한국은 11번째로 가입하였다. 2008년 9월까지 100개 이상의 국가가 여기에 가입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만든 두 목록, 즉,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의 첫 번째 비문은 2009년 말에 있었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커지고, 특히 젊은 세대에게 무형의 가치가 새롭게 인식하고 확대되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국가 간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일반 사람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여러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그 결과로 회원국 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유산의 세계유산 목록 등재 기준이 완전성, 진정성 그리고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라면,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문화 다양성’, ‘재창조성’, 전수 주체인 ‘공동체의 참여’ 여부를 등재기준으로 삼는다(박선희 2016: 86). 2003년 협약을 살펴본다면 총 40개 조항, 9개의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sup>33)</sup>.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기초적인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이며 유산 보호 및 전승을 하기 위한 국제 협력과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공동체(집단 또는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을 살아있는 유산으로 있는 그대로 발전시키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협약은 국가적 차원에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요구하며 필요에 따라 관리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현재 유네스코는 전 세계적으로 유·무형문화를 보호하고 전승하는 대표 단체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일반 사람들의 관심을 일

---

33) 제1장(제1-3조)은 총강 즉 협약의 목적, 정의 그리고 다른 국제 문서와의 관계를 소개하고 있으며 제2장(제4-10조)은 협약에 중요한 조직들에 임무 운영방식 등이 포함되는 무형문화유산의 국내적 보호 소개되어 있다. 제3장(제11-15조)은 당사국의 역할, 목록 특히 공동체, 집단 및 개인의 참여를 소개하고 있으며, 제4장(제16-24조)은 무형문화유산의 국제적 보호에 대한이다. 제6장(제25-30조)은 무형문화유산기금에 대한 내용이며 제7장 9제29-30조)는 보고서에 관한 내용이다. 제8장(제31조)은 인류 구전 및 무형문화유산 결작 선언과의 관계 그리고 제9장(제32-40조)은 협약의 마무리 됨.

오기고 보호 및 전승을 위한 여러 계획을 진행해 오고 있다. 그 결과로 회원국 간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유네스코 등재를 하려는 노력이 많아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회원국들의 사라져 가는 위험성에 처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이를 긴급보호목록에 등재하기 시작하며 소멸의 위기에 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그리고 대표목록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전 세계적으로 문화 다양성과 창의성을 발현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한국과 일본은 무형문화유산 협약을 채택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한국은 2001년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을 시작으로 총 21건의 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장에서 추가할 것이다.

2015년 9월에 유엔은 선언문인 ‘우리가 사는 세계의 변혁-2030 지속가능한 발전 의제<sup>34)</sup>’를 채택하였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목표는 바로 ‘단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는 것(Leave no one behind)’인데 이것은 세계의 빈곤을 퇴치하기 위해 수립되었다. 유엔과 긴밀히 협력하며 활동하고 있는 유엔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ies)<sup>35)</sup>’ 또한 이 의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유네스코도 지난 10년 동안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문화의 역할을 강조해 왔다. 유네스코는 지속 가능한 목표 중의 열한 번째 목표인 ‘문화’ 즉, 세계 문화와 자연유산을 보호하고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는 것에 집중적으로 역할을 부여하고 발전에 기여하도록 힘쓰고 있다.

유네스코는 이 협약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기 위해 협약의 원칙을 잘 반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프로젝트, 사업 등을 갱신해 왔다.

34) “2032 Agenda for UN-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는 17개의 다양한 지속 가능 발전목표를 통해 세계 지속 가능한 발전의 세 차원(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을 강조하며 인권과 평등 평화를 힘쓰고 있는 개념을 뜻 한다.

35) 유엔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평화 유지, 국제협력을 목적으로 1945년 10월 24일에 설립되었다. 유엔의 주요기구, 보조기구, 전문기구로 분류가 가능하다. 주요기구에는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이 있고, 보조기구로는 유엔난민기구(UNHCR), 유엔아동기금(UNICEF) 등이 바로 이 보조기구에 속한다. 유네스코는 유엔에 속한 전문기구들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즉, 유네스코는 유엔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며 활동하는 기구이다. 하지만 유엔과 유네스코는 산하기관은 아니다. 한국은 유네스코에 1950년 6월 14일에, 유엔에는 1999년 9월 17일에 가입 했다.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은 문화 다양성을 원동력으로 삼는 것만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발전의 동인으로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인정한다. 협약의 운영 지침 제6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진하고 보장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역할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살아있는 유산을 당사국의 개발 계획, 정책, 프로그램에 어떻게 완전히 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듯이 유네스코는 문화의 발전으로 사회의 발전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네스코는 특히 포용적 경제발전을 추구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자가 빈곤과 취약한 계층에게는 무형문화의 전승보다도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빈곤으로 인해 일상적 생활조차 어려운 이에게는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전파하는 것보다도 생계를 해결해 주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형문화유산은 생계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한다.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공동체(개인 또는 집단)는 수익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으며, 관련된 무형문화유산 관광 활동으로부터 혜택을 얻을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사회적으로 배제된 여성이 공예 예술을 활용하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가는 좋은 사례가 존재한다<sup>36)</sup>.

무형문화유산은 광범위한 공동체, 집단 및 개인, 특히 빈곤하고 취약한 계층에게 수익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작용한다. 이를 통해 유네스코는 세계적 기구로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추구하고, 전승 주체의 경제적 측면도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는 더 나은 세계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

---

36) “Activities in the Domain of women and Intangible Heritage: International editorial meeting and future activities in the domain Iran National Commission for UNESCO Tehran June 2001, synthesis report” 참고(2022.12.01).



## 2.2 문화유산의 등재

이번 장에서는 유네스코의 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것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네스코가 ‘등재’하는 개념이 언제부터 시작했으며, 왜 등재를 하는지, 등재로 인해서 무형문화유산에 생기는 변화와 영향이 무엇인지, 유네스코가 언제부터 등재 사업을 시작했는지, 등재의 역사와 현재, 등재의 의미 그리고 등재에 관한 다양한 학자의 논의 등을 이번 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제1차 세계 전쟁의 피해로 파손된 유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운동은 유럽과 서양의 나라들에서 시작되었다. 이들은 자기들의 문화가 아주 특별하다고 생각했고, 이러한 문화들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뿐만 아니라, 급격히 늘어나는 유산 관광으로 경제적 이득을 얻으면서 일반 시민들도 유산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나라별로 유산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만들기도 하였다(Urry 1990). 예를 들자면, 더 그레이트브리튼(The Great Britain), 현재의 런던에서는 유산의 훼손을 줄이고 관광객의 수를 늘리기 위한 ‘1979 고대 기념물 및 고고학 지역 법(Ancient Monuments and archaeological Areas Act)’ 채택되었다.

유네스코의 등재 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좋은 영향을 끼치면서 유네스코에 등재된 문화유산은 “명성의 타이틀(Prestigious title)”를 얻게 되어 유산 보존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촉매 역할을 하게 된다(Denhez 1997). 당사국은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하기 위해 정해진 등재기준에 맞춰서 각 나라의 유산을 지명하여 하여 신청할 수가 있다. 유네스코는 신청된 목록이 세계유산으로 적당한가를 살피고 결정한다. 문화유산 등재는 세계적으로 중요한 유적지를 식별할 뿐만 아니라 그 유적지 또는 유산을 보편적으로 중요하고 의미 있는 유산으로 만든다. 다시 말하자면, 등재 과정은 그 자체가 유산을 관리하는 행위이며, 이때 보편적 ‘인간 정체성’이 형성되는 행위이다(Smith 2006: 99).

무형문화유산 등재의 경우도 같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세 가지의 등재 목록을 포함한다. 하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인류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목록이다(Lis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Need of Urgent Safeguarding)<sup>37)</sup>. 또한, 모범사례 목록(Register for good Safeguarding Practices)<sup>38)</sup>이 있다. 여기서는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은 말 그대로 각 공동체의 정체성에 중요하며 공동체가 자랑스러워하는 무형유산을 세계적으로 내세우는 것이다. 즉, 긴급 보호 목록은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는 무형문화유산들을 보호하기 위한 만들어진 목록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범사례 목록은 어떤 공동체의 무형문화가 보존되어서 잘 전승된 것을 다른 나라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목록이다.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을 통해 공식화된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긴급보호 목록과 대표 목록의 등재기준을 정하고 있다<sup>39)</sup>.

---

37) 대표목록 또한 긴급보호목록을 등재기준을 살펴보면 1972년 협약에서 언급한 것들과 겹치지 않도록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노력한 사실을 알 수 있다.

38) 이 목록은 1972년의 협약에서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목록이며 여기는 유산들 중에서 국가의 정책과 사업 등을 통해 유산의 보호에 힘쓰고 있는 보편적인 사례들을 목록화하고 있다.

39) 긴급보호 목록 등재 기준

-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 관련 공동체나 집단, 개인 또는 당사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멸위기에 처했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 즉각적인 보호 조치가 없으면 곧 소멸될 정도로 극도로 긴급한 상황에 놓여있을 것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이 계속 실연하고 전승할 수 있도록 보호조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 신청유산에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대표목록 등재 기준

- 무형문화유산 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가시성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 제고, 문화 건 대화에 기여하며 아울러 세계 문화다양성 반영 및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 할 것
- 신청유산에 대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하고, 가능한 최대한 폭넓게 신청과정에 참여할 것

유네스코 웹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따르면 현재까지 대표목록에는 140개국 631건의 유산 종목이 그리고 모범 사례 목록에는 38개국 72건의 사례가 등재되었다<sup>40)</sup>. 한국은 일찍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으며 2005년 2월 9일 열한 번째로 협정에 가입했다. 그 후 한국은 현재 21개<sup>41)</sup>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시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을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널리 퍼뜨리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유네스코에 가입하기 이전부터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알고 국가가 직접 나서서 무형문화를 보호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관리해왔다.

각국에서는 고유한 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등재 절차는 무형유산 협약에 가입한 각국 정보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무형문화유산 목록 등재 절차가 시작된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매년 11월에 여는 무형문화유산 회의에서 확정된다<sup>42)</sup>.

Gimblett(2004: 57)는 세계 유산 등재와 별개로 또 다른 등재 목록을 만들 때 새로운 협약이 잠재적으로 동등하게 배타적이고 배제적인 등재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2003년 협약 이후 등재 시스템이 시작되면서 전에 무형문화유산 걸작에 등재된 90개가 넘는 무형유산의 목록들이 이 목록에 통합되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유네스코의 새로운 무형문화등재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러 번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 가장 많이 논의 된 것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

- 신청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40) 2022-09-22 날짜에 연구자가 유네스코 사이트에서 확인한 숫자를 바탕으로 작성하였다.

41) 종묘 및 종묘제례악(2001년), 강릉 단오제(2005년), 강강술래(2009년), 남사당놀이(2009년), 영산재(2009년), 제주칠머리당 영등굿(2009년), 처용무(2009년), 가곡(2010년), 대목장(2010년), 매사냥(2010년, 다국적 유산), 태견(2011년), 줄타기(2011년), 한산모시짜기(2011년), 아리랑(2021년), 김장문화(2013년), 농악(2014년), 줄다리기(2015년, 다국적 유산), 제주해녀문화(2015년), 씨름(2018년, 다국적 유산), 연등회(2020년 등 총 21건이 있다.

42) 세계유산, 무형유산의 등재 절차에 대해서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다. <https://heritage.unesco.or.kr/유산등재/등재절차/> -한국어 유네스코 사이트 주소(2022-09-22)

등재하는 것인지, 등재를 하게 되면 무형문화유산이 고정화될 가능성이 있는데도 등재 사업을 할지 등이었다. 그 회의의 결론은 바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대한 주요 목표 중 하나인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인식과 가시성을 높이는 유일한 지배적인 수단이었다(Lixinski 2018).

Blake(2006)는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에 대한 논평에서 무형문화유산 등재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을 상품화해서 관광사업에 이득을 얻는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유네스코는 세계에서 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대표 당국으로 그 이름 아래 무형문화유산이 등재된다면 무형유산의 가치가 올라가게 된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면 문화유산 간에 계급이 생기기 때문에(Blake 2001: 46) 서로 비교하게 만들고 좋고 나쁘다고 편애하는 기준이 생기게 되는 단점을 안고 있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에 대한 V.Tr.hafstein은 이렇게 언급하였다, “유네스코 협약은 지금까지 활동으로 정의된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선택과 전시의 메커니즘이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특정 문화적 관행에 관심과 자원을 집중시키기 위한 도구이다. 무형유산은 댄스 밴드이자 병원입니다. 전통과 지역 사회의 삶과 죽음과 관련된 진지한 기업과 다채로운 의상,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리드미컬한 선율이 있는 기금 마련 디너 댄스파티이다”(Hafstein 2008: 108). 즉, 협약 그리고 등재 사업 등은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호하는 것을 위해서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것을 넘는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다.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목적은 단순히 보존하고 보호하기 위해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도시재생 및 관광지 정화는 계획을 시행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한다.

위에서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하는 것에 관해서 설명한 것 바가 있는 것처럼 유형유산과 무형유산 둘 다 등재하게 되면 비슷하게 영향을 받게 된다. 유형유산이 등재된 후 가장 크게 영향 받는 것은 유산이 유명해지고 세계화된다는 것이다. 즉,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기 때문에 관광 사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얻게 되고 경제적 이득을 받을 수가 있다. 유네스코는 등재된 문화유산은 관광객들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이 된다. 하지만 유산을 관

광 목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유산을 등재 기준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유산을 관리하면 고정화의 위험이 있다.

무형유산은 유형과 다르게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멸 위기에 있는지 또는 소멸했는지를 잘 구분할 수가 없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도 수많은 무형문화유산이 사라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한 것 자체가 국가나 공동체에 무형유산의 보호, 보존과 활성화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지키게 하는 것인데 등재를 통해서 관광객이 많아진다고 해서 직접 전승자인 공동체 사람에게는 직접적인 이익은 생기기 어렵다. 공동체 사람들도 자기가 지켜왔던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관광객 증세에 따른 이익을 누리게 해야 한다(Lixinski 2018).

전 세계적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등재시키고 알리려는 노력이 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유형유산과 다르게 시대, 상황,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의 자연스러운 성격이자 본질이다. 이런 성격을 가진 무형문화유산을 등재 시키고 관리를 하게 된다면 변화를 고정 또는 정지(Freezing) 또는 화석화(Fossilization) 현상이 나타나서 변하지 못하게 한다(강정원 2021),(Sears 2002:147). 즉, 문화유산을 고정함으로써 원래 속성대로 창조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 Munjeri(2004)는 무형, 유형문화유산을 등재한다는 것은 유산을 만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번 유산이 등재된다면 일반 유산에서 중요하고 특별한 유산으로 바뀐다. 유산을 등재하는 것의 기초적 목적은 보호를 위해서이겠지만 그 후 등재목록은 유산의 권위와 정당성을 선언한다.

Gimblett(2004)은 유네스코의 유형 또는 무형의 보호를 반대하면 유네스코 문화유산 보호 협약이 '제멋대로'라고 비판한다. 그녀는 유네스코에 따르면 무형유산은 쉽게 사라지고 소멸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안에서 등재해야만 보호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호주의 원주민은 문화정책의 도움 없이 3천 년 넘게 '무형유산'을 유지했다는 예를 들면서 문화유산 보호 및 지속을 위해서 꼭 문화정책이 필요하지 않다는 사실을 밝혔다.

국내 학자 또한 지역주민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행해지던 무형문화유산

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본연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전승 활동에 간섭하게 되어서 오히려 마을 주민을 소외시키는 크고 작은 영향을 끼친다고 하였다(박해준 1999; 정은주 1993). 유네스코가 협약을 통해서 문화유산을 지정하는 순간 문화유산은 고정화되고 표준화되며 국가 관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문화유산을 등재한다는 것은 나쁘고 비판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문화유산의 등재도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을 가진다. 과도한 비판이 오히려 문화유산에 대한 실제적 접근을 막아버리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학자들은 거시적이면서 미시적인 두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강정원 2020: 26).

## 2.3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 과정

줄다리기(tug-of-war)는 세계 어디 가든 흔히 볼 수 있는 놀이 중의 하나이다. 줄다리기는 두 팀을 나눠서 서로 대립시켜서 반대쪽 끝을 자기편 쪽으로 끌어당기며 하는 놀이이며, 이 놀이는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함께 즐기는 공동체 문화이다. 온 세상 곳곳에서 찾을 수 있는 줄다리기는 아주 오래된 역사가 있으며 나라마다 특별한 의미가 있기도 하다.

오늘날 한국도 곳곳에서 줄다리기가 많이 행해지고 있다. 물론 지금보다 40~50년 전에는 아주 흔한 민속놀이 중 하나였다. 1982년에 발표된 차기선 & Christian Des champs의 논문에는 무려 140개 넘게 줄다리기가 행해졌다는 사실을 밝혔다. 하지만 지금은 줄다리기가 많이 사라지고 잊힌 상태이다. 김현구(1997)를 따르면 한국에 지금 72개의 줄다리기가 행해지고 있다. 지금 한국에 총 몇 개의 줄다리기가 행해지고 있는지 정확히 확인은 불가능하나 한국의 국가 무형문화재 그리고 시/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한국의 대표 무형문화재는 아래와 같다.

- ※ 국가 지정(2): 영산줄다리기(국가지정 제26호), 기지시줄다리기(국가지정 제75호)

※ 시·도 지정(4): 삼척기줄다리기(강원지정 제2호), 감내계줄당기기(경남지정 제7호), 의령큰줄맷기기(경남지정 제20호), 남해선구줄끗기(경남지정 제26호)

줄다리기의 명칭은 지역의 언어와 놀이의 특색에 따라서 '줄당기기', 줄맷기기', '줄쌈' 등의 이름을 불린다. 줄다리기는 일반적으로 표준어로 불리고 있다. 줄다리기는 도작 농경인 벼농사(서해숙 2010)를 짓는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sup>43)</sup>. 줄다리기에 사용하는 짚 또한 벼짚으로 사용된다. 줄다리기의 줄 제작 크기 연행 방법, 시기 또한 지역마다 다르다. 본 논문은 한국의 줄다리기 중에서 '기지시줄다리기' 중심으로 하는 연구이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는 줄다리기 전체를 설명하지 않고 기지시줄다리기에 관한 전반적 내용에 관해 설명을 하고자 한다.

## 1) 기지시줄다리기의 줄 제작과 편 가름

기지시줄다리기의 줄은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가 직접 행사의 약 1달 전부터 만드는 과정을 시작한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줄을 만들기 위해 먼저 엄청 많은 짚이 필요하다. 줄 제작에 쓰이는 짚의 양은 줄의 굵기에 따라 달라진다. 벼짚은 마을 주민들이 농사의 짚을 구입해서 하며 한번 줄을 제작할 때마다 4만 단 이상의 벼짚을 준비한다. 벼짚을 준비한 후 잔줄 또는 새끼줄을 꼬기 시작한다. 각 25m의 작은 줄을 4개를 이어서 아주 큰 줄을 만든다. 기지시줄다리기 때 사용하는 줄의 길이는 암, 수 줄 각기 100m씩 200m이고 지름이 1m가 넘는다(2022년 기준). 기지시줄다리기에 작은 줄을 큰 줄로 꼬기 위해 '줄틀<sup>44)</sup>'이 사용된다.

43) 줄다리기는 벼농사지역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줄다리기는 도작 문화적 성격을 가진다.

44) 과거에 어촌에서 실제 농사를 할 때 사용 되었던 참나무로 만들어진 기구를 뜻함

일자	일정	장소	참여인원
2022.4.22	잔줄제장	줄제작장	보존회 전승자들 + 인근 학교 학생들
2022.4.30	큰 줄 제작		보존회 전승자들 + 축제위원 회
2022.5.1.~5.7	줄머리 및 마무리		보존회 전승자들

표 2-1. 2022년 기지시줄다리기 줄제작 일정표

2022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3일 동안(5월 13~15일) 진행하였으며 첫 날 행사는 마을의 평안과 안녕, 사업번창,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한 당제를 지낸다. 작년 당제는 유교식, 불교식 그리고 무속 식으로 진행이 되었다. 축제의 시작은 박물관에서 국수봉으로 제례 행렬로 시작된다. 이때 농기, 풍물, 장군 그리고 제관<sup>45)</sup> 순서로 행렬을 시작한다. 이번에 시민제관을 처음으로 모집하여 행렬을 함께 하였다. 축제 기획하는 사람들을 따르면 시민제관을 처음으로 모집한 이유는 바로 코로나 이후 한 축제인 만큼 사람의 참여도가 낮을 것을 예상하여 따로 모집하였다고 한다. 당제가 끝난 대로 흥척동 우물로 행진하며 용왕제단을 유교식, 불교식 그리고 무속 의례가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시장 기원제가 기지시 틀뭇 광장 무대에서 이어진다.

둘째 날은 축제의 개막식을 하고 초청공연을 소개한다. 작년은 처음으로

다. ‘줄틀’은 ‘틀뭇이’라는 이름의 연목세서 담가서 보관된다. 그 이유는 줄틀이 햇빛에 노출되면 터지고 물에 담구면 있으면 더 단단해지기 때문이다. 되고 줄을 만들 때 마다 꺼내서 사용된다. 지금은 ‘줄틀’이 흔하지 않아서 과거의 유산이 되었다.

45)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행렬을 위해 보존회는 다양한 제관들을 선정한다. 초헌관, 아헌관, 주헌관 등



관광객을 참여해서 큰 줄 제작하는 체험을 하였다. 관광객들은 처음으로 줄을 만드는 과정을 알게 되었고 다들 즐겁게 줄 제작 체험행사를 참여하였다. 마지막으로 셋째 날은 줄다리기가 있는 날이다. 줄이 나가기 전에 줄 고사를 지내고 줄을 당기기 시작한다. 수상 팀과 수하 팀은 각 각의 줄을 당기어서 시연 장으로 가서 줄다리기 본 행사를 시작한다.



그림 6-1. 줄 제작 체험



그림 7-1. 줄 고사



그림 8-1. 줄 당기기



그림 9-1. 줄다리기 현장

편	지역
수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li> <li>- 기지시리, 가교리, 방계리, 분당리, 반촌리, 반촌리, 봉교리, 광명리, 전대리,</li> <li>연천리, 청금리, 금곡리, 도원리,</li> <li>- 합덕읍, 신평면, 우강면, 순성면, 면천면</li> </ul>
수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전광역시, 세종시,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제주도</li> <li>- 기지시리, 복운리, 중흥리, 오곡리, 부곡리, 중흥리, 오곡리, 부곡리, 월곡리,</li> <li>정곡리, 한진리, 가학리, 석포리, 고대리</li> <li>- 당잔1동, 당진2동, 송산면, 고대면, 석문면, 정미면, 대호지면</li> </ul>

표 3-1 기지시줄다리기의 편 가름 양상 (2022년 편)

위의 표를 보면 기지시줄다리기 연행에 기지시리 인근의 지역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대표적인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기지시줄다리기의 물 위와 물아래의 지역을 구할 수 있는 정해진 기준이 없다. 일제강점기 이후 1970년대까지 만해도 기지시줄다리기에 참여하는 마을은 기지장<sup>46)</sup>에 참여하는 마을뿐이었다(이우영 1986: 199).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상과 수하<sup>47)</sup>의 구분이 다소 모호해지고 있다. 특히, 기지시줄다리기가 마을의 행사로 넘어서 외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큰 축제로 자리를 잡은 이후로는 관광객의 편의 또는 재미를 위하여 한국의 전체 지역을 구분하여 배정하였다. 수상과 수하 지역의 확대가 언제부터 생긴 것인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지만 인터뷰를 따르면 기지시리 마을 주민들은 근대화를 겪으면서 지역 이동이 생기고 줄다리기에 참석하는 인구수에 따라 수상과 수하 지역의 폭이 더 넓어진 것이라고 한다.

46) 기지장은 현 기지시리 마을의 장시다. 기지성에서는 인근 지역의 농산물, 생선, 그리고 수산물들이 교역되었으며 주로 한진·안섬·성구미 같이 인근지역에서 참여하였다(이우영 1986:175)

47) 수상은 물 위에 위치하는 마을을 뜻하며 수하는 물 아래에 위치하는 마을을 뜻한다.

## 2) 국가무형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기지시줄다리기는 1970년대에 들어가면서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다. 시대 변화에 따라 기지시줄다리기도 변화들이 생겨서 줄다리기에 관심이 점점 없어졌다. 권두현(2017: 72)에 따르면 기지시줄다리기는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흐름 모두를 겪어 왔다<sup>48)</sup>. 기지시줄다리기는 국가 지정무형문화재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까지 도달하는 과정은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기지시줄다리기의 보유자인 (故)이우영은 문화재 지정을 주도하여 줄다리기의 조사를 시작하며 조사 결과를 책자로 발간하였다. 충청남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1973년 7월 3일에 지방문화재 제 35호로 지정이 되었다. 이어 1982년 6월 1일에는 중요무형문화재<sup>49)</sup> 제75호로 지정되었다.

한국의 줄다리기는 2015년 12월 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개최된 제10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정부간위원회 통해서 “줄다리기 의례와 놀이(Tugging rituals and games)” 종목 명으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등재되었다. 한국 안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 영산줄다리기와 함께 도 지정인 삼척기줄다리기, 밀양감내계줄당기기, 의령큰줄땡기기, 남해선 구줄끗기와 함께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과 공동 등재되었다.

유네스코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이행지침에서는 공동 등재에 관해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2008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총회에서 채택된 협약 이행지침에는 “유산이 1개 이상의 당사국 영토에 있으면, 당사국은 복수 국가 등재 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sup>50)</sup>”라고 말하고 있다.

---

48) 권두현(2017)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한국전쟁이후 무형문화유산 전승동력은 바로 1960년대의 무형문화재보호법이며 그 후 1990년대 지방자치단체의 브랜드화, 그리고 2000년에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의 도입. 그를 따르면 기지시줄다리기는 이 세까지를 거쳐서 오늘 날까지 전승되어 있다고 한다.

49) 국가에서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명칭은 2016년부터 “중요무형문화재”에서 “국가문화재”로 변경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문화재를 사용하였다.

50) States parties are encouraged to jointly submit multi-national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이행지침(2014) I.5 복수 국가 신청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sup>51)</sup>.

그동안 유네스코에 등재하지 위한 당사국 간에 경쟁이 있었다. 무형문화유산은 유형유산처럼 어디 한 곳에서만 발견되는 유산이 아니다. 무형문화유산은 말 그대로 사람들의 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한 지역 또는 나라를 넘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특히 비슷한 문화권의 나라 사이에서는 자주 발견된다. 유네스코는 국가 간의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공동 등재를 시작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은 유형유산과 다르게 소유권의 문제가 애초부터 많았다. 무형문화유산은 구전되기 때문에 사람의 이동에 따라 문화도 이동하기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문화가 각국 간의 각 지역에서 행해지고 있기도 하다. 특히 비슷한 문화권에 사는 아시아 나라 간에서 이런 일이 종종 생긴다. 이러한 문화가 누구의 것이냐에 대한 소유권의 문제가 계속 있었다. 200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강릉 단오제가 중국의 단오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며(김명자 2007: 7) 단오의 소유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도 했다. 무형문화유산의 소유권의 문제는 한국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많이 발생했고 유네스코의 기본 목적이 국가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함이지 갈등을 유발하기 위해서 아니었기 때문에 공동 등재를 권고한다(황경순 2018).

그래서 둘 이상의 당사국에서는 비슷한 문화유산을 지니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의 합의안에 무형문화유산에 동시에 지정할 수 있게 되었다. 무

---

nominations when an element is found on the territory of more than one State Party (Nomination on Procedure 3)

51)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이행지침(2014) I.5

13. 유산이 한 개 이상의 당사국 영토에서 발견된 경우, 당사국들이 긴급보호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공동으로 복수국가 등재 신청을 하도록 권장한다.

14. 위원회는 지리적으로 동떨어진 지역의 당사국들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을 비롯하여 소지역 및 지역 단위의 프로그램, 프로젝트 및 활동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권장한다. 당사국들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15. 둘 이상의 당사국들은 공동으로 국제원조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이행지침(2014) 1.6에 보면 공동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의 확정 또는 축소가 가능하다고 한다.

줄다리기의 경우는 한국이 주도해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공동 등재이다. 그전에 매사냥이(2010) 공동 등재되었는데 이때 UAE에서 매사냥이 전승되는 국가에 협력을 요청하면서 시작되었다. 그 결과로 한국을 포함해서 세계 11개국 나라들의 매사냥이 2010년에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공동 등재로 등록되었다. 줄다리기는 처음으로 시작한 공동 등재 사업인 만큼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의학예연구사에 따르면 당진시의 도움 없이 유네스코 등재가 불가능했다고 전하였다. 공동 등재는 국가 간의 복수 문화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가 간의 외교 관계이다.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다 해도 외교관계가 안 좋으면 공동 등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무형문화유산센터<sup>52)</sup>의 적극적 지원과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회원과 당진시의 노력 끝에 동남아의 개발도상국인 미얀마,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과 공조 체제를 유지하면서 공동 등재를 한 것이다.

### 3)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의 필요성

줄다리가 등재될 수 있었던 것은 줄다리가 가지고 있는 의미, 특징 그리고 중요성 때문이다. 줄다리는 전 세계 특히 아시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민속놀이이다. 줄다리는 단순한 놀이를 넘어서 풍년을 기원하고 농업의 특성상 필요한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협동을 위해 줄다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시행해 왔다. 풍년이 온다는 믿음 때문에 줄다리는 한국 안에서도 다양한 곳에서 행해지고 있는 만큼 민속 신앙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점점 도시화와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는 사

---

52) International Information and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ICHCAP)는 유네스코와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을 통해 설립한 유네스코 카테고리-2 기관이다. 이 기관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해온 기관이다. 위치: 전라북도 전주시, 서학로-95

회에서 줄다리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할 수도 있고 하마터면 소멸할 수도 있는 위험이 많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가 중요하다<sup>53)</sup>. 한국의 많은 무형과 유형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 되고 국내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세계의 문화유산의 자리를 잡았지만, 한국에서 대표적인 민속놀이<sup>54)</sup>라고 할 수 있는 줄다리기는 아직 유네스코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당시의 아쉬운 점이 있었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게 되면 줄다리기는 해당 나라만의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산으로 인정받게 되며 널리 알려지게 되어서 줄다리기의 보존과 유지관리, 지역 활성화 등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줄다리기의 유네스코 등재가 필요하다고 전하였다<sup>55)</sup>. 대한민국 정부는 줄다리기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 추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였다.

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 추진 과정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일시(연/월)	내용
2012년 5월	공동등재 희망 종목 지자체 공모 및 선정, 자문회의 개최
2012년 9월	동남아시아 줄다리기 공동등재 사전 협의 (3개국, 인도네시아)
2013년 1월	동남아시아 민속 줄다리기 현황조사 추진 (당진시)
2013년 4월	세계유산분과 ‘전통 줄다리기 공동등재’ 추진 결정
2013년 4월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의 다양성과 통유성” 학술 심포지움
2013년 10월~12월	“동아시아 전통줄다리기 보호를 위한 당진선언”
2014년 3월	전통줄다리기 공동등재 정부 간 회의(4개국, 문화재청)
2014년 4월	공동등재 신청서 유네스코 제출(문화재청 → 유네스코)

53) 인터뷰를 통해 알게 된 내용.

54) 2012년에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인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세상”에서 한국의 다른 지역의 줄다리기를 초청하여서 시연행사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참석했던 방문객의 수가 30여만 명 이상이었다. 줄다리기 축제의 규모, 방문객들의 수를 볼 때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놀이라고 할 수 있다.

55) 인터뷰 내용 참고

본부)	
2014년 11월	한국전통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 창립
2015년 3월~8월	유네스코 소위원회 등재 심사
2015년 12월	유네스코 정부 간 위원회 등재 결정
2015년 12월	국립무형유산원 “줄다리기” 특별기획전 개최
2016년 4월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 전달식
2016년 11월	한국전통줄다리기 전승단체 연합회 워크숍 및 시연행사 개최

표 4-1 줄다리기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 공동등재 과정 추진현황<sup>56)</sup>

2012년 4월에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 등재 희망을 지자체 대상으로 공모 하였다. 이때 응모했던 두 종목은 기지시줄다리기 중심으로 ‘줄다리기’ 그리고 안동 하회별신굿탈놀이를 중심으로 한 ‘탈놀이’였다. ‘탈놀이’는 전 세계적으로 많이 하는 놀이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각 국의 협의를 받아서 공동 등재하기에는 오랜 시간과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했기 때문에 ‘탈놀이’보다 비교적 적은 지역 그리고 아시아 인근의 나라에서 행해지는 ‘줄다리기’가 공동 등재 후보로 선정되었다. 줄다리기를 공동 등재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역할이 아주 컸다. 2011년에 국내 최초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박물관이 생겼기 때문에 줄다리기에 관한 자료 수집 이미 완성되어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리고 전부터 일본하고 중국과 교류를 해 왔기 때문에, 당진시하고 보존회의 적극적 도움으로 공동 등재를 추진할 수 있었다.

국내 줄다리기에 관한 조사가 끝난 후 국가 지정 무형문화재 및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를 공동 등재하기로 하였다. 그 후 한국의 문화재청 2012년 9월에 동아시아에 있는 7개국에 제안서를 보냈고 그 중 필리핀, 캄보디아 그리고 베트남이 공동 등재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다. 그 후 2012년 12월에 당진시의 주도하에 동남아시아 전통 줄다리기 공동 등재하기 위해 현황조사를 추진하였다. 이때 4개국 나라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56) 출처: 당진시 홈페이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2022-1-01 사이트 방문)  
[http://www.dangjin.go.kr/tour/sub03\\_01\\_06\\_02.do](http://www.dangjin.go.kr/tour/sub03_01_06_02.do)

한 후 등재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그 후 이어서 2013년에 3번 공동 등재를 위한 학술 심포지엄이 개최되면서 각국의 전문가가 참석하여 줄다리기의 다양성과 보편성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2014년 3월에 공동 등재 신청서를 문화재청을 통해 유네스코 본부에 신청했지만, 보안 요청을 받아서 11월에 보안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2014년 10월에 한국 전통 줄다리기 전승 단체 연합회도 공식적으로 발족하였다. 이 연합회에는 현재 공동 등재되어 있는 모든 줄다리가 가입되어 있다. 이 연합회에는 한국 안에 있는 줄다리기의 회원 중에서 연합회 회장 그리고 사무국장을 맡아서 앞으로 줄다리기의 지속적인 홍보 및 체험행사 개최, 자료조사 및 발간사업을 통해 줄다리기의 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전승 단체 연합회는 설립된 이후로 매년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 구성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시연 행사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5년 3월부터 8월까지 유네스코 공동 등재 심사가 진행되었으며 마침내 12월에 유네스코 정부 간 위원회 등재 결정을 받았다(김현근 2017). 그 후 2016년 4월에는 유네스코 등재 인증서 전달식을 하였다.

이렇게 오랜 시간의 준비 끝내 줄다리를 유네스코의 대표목록에 등재되기를 성공하였다. 그 후 동남아시아 국가와 교류를 진행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다. 2018년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즉 5일간 한국 전통 줄다리기를 베트남 교류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국립 무형문화유산원의 지원을 받아서 전승 단체 연합회 24명, 전문가 4명이 베트남 답사를 갔다가 베트남 안에서 시행하고 있는 줄다리를 보고 베트남의 전승사들 하고 심포지엄, 사진전, 시연 행사를 통해 교류를 맺었다. 그 다음 해인 2019년 8월 8일부터 12일까지 ‘한국 필리핀 줄다리기를 교류 행사’를 개최하기도 하여 필리핀으로 방문하였다. 이때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줄다리를 방문하러 왔던 사람들은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및 박물관 운영을 모델로 삼아서 본인의 나라에 돌아가서 똑같이 보존회를 개설하기도 하였다. 공동으로 등재된 국가 간의 네트워크는 계속 이어 갔으나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이후로 모든 행사가 중단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호전된 이후 다시 교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 제 3 장 무형문화유산 등재·전승과 공동체

2장에서는 유네스코에 대해 종합적인 설명을 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와 관련된 개념,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 그리고 등재로 인해 얻게 되는 결과에 대해 다양한 학자의 시각을 정리하면서 기지시줄다리기의 등재 과정에 대해서도 탐구하였다. 본 장에서는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공동체의 참여”에 대한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의 기지시줄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줄다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되었을 때 공동체의 참여 여부를 조사하고 줄다리기의 전승 활동에 공동체의 역할이 무엇인지, 현재 전승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3.1 기지시줄다리와 공동체

먼저 기지시줄다리의 전승 활동에 공동체의 참여 여부를 확인해보자 한다. 현장 연구 중에 알게 된 사실은 현재 기지시줄다리는 기지시 마을 주민이 전승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마을의 몇 명의 사람은 보존회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마을 전체의 참여는 없다. 지금 기지시줄다리의 전승 활동은 전승 주체인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가 전달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전해온 기지시줄다리의 전승 주체가 기지시리 마을에서 보존회로 넘어가게 된 이유를 현장 연구를 통해 연구자가 경험한 바탕으로 두 가지로 나눠 설명하고자 한다.

하나는 당진시의 지역 발전 때문이다. 기지시리 마을은 당진시에 속한 마을이다. 당진시는 도시개발이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당진시 도시개발 사업이 당진시의 인근의 여러 마을까지도 확장되어, 진행 중이다. 2023년 4월 기사를 따르면 당진의 인구가 전 해보다 1,161명이나 증가해 현재 인구가 16만 8,253명 돌파했다<sup>57)</sup>. 외부에서 많은 사람이 들어

와서 살고 있으며 원래 당진시 안에 사는 사람은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따라서, 기지시리 마을의 경우도 원주민의 이동이 많아졌다. 그 때문에 현재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아는 사람이 지금은 정말 소수이다. 외부인이 증가하면서 더더욱 줄다리기에 대한 아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다.

또 다른 이유는 기지시줄다리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 때문이다. 기지시줄다리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하여, 그리고 이후 무형문화재 정책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 무형문화재 보호법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진흥을 통하여 인류 문화를 발전하는 것이다<sup>58)</sup>. 그리고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보유자, 이수자, 전승 교육자, 전승자, 보유단체 등이 요구된다(무형문화재법 제2조 정의 참고). 즉,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전문적 손길(보유 단체, 보유자 등)이 없이는 안 된다.

하지만 한국같이 식민지를 경험한 국가에는 유네스코가 중요시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찾기가 어렵다. 대부분의 공동체들은 식민지와 급격한 현대화로 인해서 파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네스코가 등재할 때 공동체를 강조하는 것을 비판한다. 그리고 다른 면으로는 문화와 관계되는 사람들만이 공동체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처럼 국가의 도움 안에 만들어진 보존회 또한 공동체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다. 유네스코하고 국가는 마을 주민 대신 주 전승자로 담당하는 보존회 또는 단체를 지원하며 더 전승에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기지시줄다리는 모든 주민의 참여로 진행되는 축제인데, 보존회 같은 문화재 조직이 만들어진 바람에 그 외의 사람들은 전승에 대해 자연스럽게 관심을 잃었다. 게다가, 무형문화재 제5조 전승자의 책무에서는 무형문화재의 전승자는 전승 활동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무형문화재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즉, 무형문화재 제도는 의무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승자에게는 전승 활동이 의무로 느끼게 되어서 전승활동을

---

57) ATN news 인터넷 기사 참고( 사이트 방문 2023-3-23)  
링크 바로가기.

(<https://www.at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9727>)

58) 제1조 “제1조를 보면 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진흥을 통하여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인다”

위해 전문가가 더 적합하다고 느끼게 만들고 일반 지역주민의 참여를 소극적으로 바꾼다. 즉, 보존회는 무형문화유산을 소멸하는 것에서 방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을 주민을 소외시키기도 한다(박재형 2017).

무형문화재가 정한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문화재 협약 제15조에 언급된 것 같이 지정이 취소 될 수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보다 전문적인 전승자를 중심으로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가 만들어졌다. 그 후 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의 정책에 따라 전승의 핵심 역할을 맡고, 기지시리 마을의 주민은 점점 기지시줄다리기 전승에서 멀어지게 되었다(김형근 2017).

#### K-V(남) 씨와 인터뷰 중에서

나는 여기서 태어나고 여기서 평생 살았는데 줄다리기를 어릴 때부터 봤지. 어릴 때는 아버지 따라 구경하러 갔었어. 우리 아버지 그 때 줄 당기기 했거덩. 그때는 어마어마했었지. 기지시줄다리기를 보러 오는 사람들. 그 때는 뭐 장사하고, 구경하고 축제지.

연구자: 지금 보다는 더 컸나요?

K-V씨: 그럼, 지금은 그지 않아. 줄도 엄청 크고 사람도 많고. 우리 어릴 때 줄당긴다고 하든 너무 신났지. 친구들과하고 놀고 시장 구경도 가고. 그때는 다 가난해서 위 지방에는 양반집이 있어서. 그 양반이 돈을 내주는 거야. 돈을 받아서 줄다리기 했었어. 여기 마을 사람들은 다 뭐 장사하러 떠났지. 젊은 남자들은 줄 당기러 나갔고.

연구자: 마을 사람들이 참여 하셨나요? 할아버지도 참여 하셨나요?

K-V씨: 그럼! 했지. 나도 했지. 나는 지금 몸이 불편해지고 나이도 많아서 안 한 거지 젊었을 때는 그때는 3년에 한 번씩 했었어, 할 때마다 가서 우리가 아래 지방이 이기려고 갔었지. 동네 형들하고 따라 가고 우린 다 그게 재미였지 뭐. 그때는 아주 멀리서 사람들이 구경하러 왔었어.

연구자: 그러면 지금은 참여하시나요?

K-V씨: 지금은 마을에서 안하지. 박물관(보존회)에서 하고 있으니

께. 몸이 아파서 이제 못 가.

이어서 현장 연구를 통해 현재 기지줄다리기의 전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를 포함해서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 활동에 함께 돕고 있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 그리고 기지시박물관의 소개와 역할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 1)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는 1986년 11월 1일부터 기지시줄다리기의 영구 보존 전승을 위하여 운영되어 온 단체이다. 과거에는 기지시줄다리가 기지시리 마을에 사는 주민들 그리고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만 행해졌던 축제였다면 현재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에 지정된 이후 이어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의 대표목록에 등재된 후 지금은 한국의 대표적 민속 축제로 변모하기를 성공하였다. 이러한 대규모의 축제 행사를 준비하고 기획하는 전승 단체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예전에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마을 주민 중에서 대표 사람 몇 명의 지도하에서 계획 및 진행 되었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위해서 필요한 금전적인 부분도 마을에서 잘 사는 사람이 돈을 모아서 줄을 제작하고 행사했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은 기지시줄다리기의 규모도 커졌고 무엇보다, 마을 사람들이 다른 도시로 흩어져 있기도 하고 원래 전승했던 사람들이 많이 사망하여 마을 사람만으로는 기지시줄다리기 전승이 불가능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문화공보부의 보유단체 구성 지침에 따라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가 설립되어서 지역 주민 공동체를 대신해 전승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오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홈페이지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주 임무 및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다<sup>59)</sup>.

"기지시줄다리기의 주 임무는 국가무형문화재 기지시줄다리기의 원형 보존과 전수교육을 통한 기, 예능의 전승 공개 행사를 통한 선현들의 숭고한 뜻을 기려 기지시줄다리기의 값진 전통 민속을 세계 속의 문화유산으로 만들고자함이며 보유자, 조교, 이수자, 전수생들이 참여하여 구성된 단체이다."

전에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에는 지역 주민만 참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이동과 외부인이 지역 인근에 들어오게 되면서 일반 지역주민이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관심이 점점 줄어들어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보존회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바꿔서 지역주민들을 넘어서 기지시줄다리기를 배우고 전승할 의향만 있다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바꿨다. 그 후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외부 사람을 포함해서 외국인 회원도 보존회에 가입되어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B-G씨(남) 보존회에 들어갈 조건에 대한 인터뷰 중에서,

어느 문화유산이든 다 똑같아요. 요즘 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는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하지만 쉽지 않아요. 원래는 보존회에 들어오기 위해 지역도 따지고, 누구의 추천인지도 중요해서 아주 보수적이었다면 이제는 외지인도 가능해요. 특별 기술 가지고 있으면 들어올 수 있고 나이 제한은 40세 미만으로 걸어 났어요. 지역민이라고 해서 전승을 꼭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다들 가지고 있는 직업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주기도 어렵고 불가능하기도 해요. 그래서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해요. 외부 사람들을 다 받되 서약서를 써서 사인 받아서 1년 참여활동을 보고, 그 후에는

---

59)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 홈페이지 바로 가기(사이트 방문 날짜, 2022-10-11)  
[http://www.gijisi.com/bbs/content.php?co\\_id=bojon](http://www.gijisi.com/bbs/content.php?co_id=bojon)

보존회 회원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줄다리기를 전승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우리 기지시줄다리기는 놀이종목이기 때문에 전수생들이 3-5년 정도 되면 심사를 통해 이수자가 될 수 있어요. 놀이종목은 개인 예능 종목보다 그래도 심사가 쉬운 편이라서 심사를 잘 합격해요. 그래서 요즘은 나이제한을 50세까지 올려서 받을까하고 있어요(짧은 시간에 빠른 승진을 하기 때문). 근데 또 몇 명들은 보존회에 들어와서 자기 영리 목적을 얻고자 오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쉽게 외부 사람을 받기에는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몇 년간 지켜봐서 보존회 내에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전수생으로 받던지 해야 해요. 이제는 예전처럼 마을 인근 사람, 기지시줄다리기와 관련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우리 줄다리의 미래를 위해 시선을 넓히려고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맞다고 봐요. 우리는 놀이 종목이지만 여자전수생들도 있어요. 놀이종목이라 해서 힘만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성들도 같이 필요하죠.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와 다른 무형문화유산 보존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전업으로 일하는 사무국장이라는 직무가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다른 무형문화유산을 살펴보면 보유자와 보존회장이 함께 존재한다. 더 나아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은 몇 명 있을 수 있지만, 이들은 주 업무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하는 일을 수행할 수 없다. 그러나 사무국장은 전업으로 기지시줄다리의 전승을 맡고 있어서 전승 활동을 비교적 잘 진행할 수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B-G씨가 사무국장으로 일하게 된 인터뷰 중에서

2013년 5월에 처음으로 보존회 들어오게 되었어요. 한국에 이런 속담이 있어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친구 따라서 강남 갔어야 하는데 친구 따라 보존회에 왔어요. 근데 친구는 개인 사업에 바빠서 보존회에서 나가고 나만 남았죠. 2014년부터 보존회의 일을 올인하게

되었는데 사실 저는 줄을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농가에 관심이 있어서 들어오게 된 거였어요. 보존회 들어오니까 재미있어지고 더 배우고 싶어지고 더 전념하게 된 것 같아요. 가능만 하면, 이 일에 전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줄 만드는 것도 그렇게 줄 당기는 것도 그렇고 재미가 있었어요. 저는 보존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전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죠. 건축 쪽으로 전공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일을 하고 있었죠. 막상 보존회에 들어와 보니까 재미도 있고, 근데 무엇보다, 내가 안하면 누가 안하면 이대로 없어질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국내 안에 잘 전승이 안돼 사라진 줄다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 네, 그래서 저는 줄다리기의 원형유지 그리고 전승을 계속하고 싶어서 이에 전념하고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2019년쯤이지, 그때 문화예술교육사라는 직급이 만들어지고 국비, 도비, 시비로 최소한의 생애 유지가 가능할 정도의 지원을 주면서 기지시줄다리기에만 몰두할 수 있는 타이틀을 만들게 되고 그 후로 부터 전업 직원이 됐어요. 저는 지금 사무국장으로 기지시줄다리기 전승하는 데에만 올인 하며 일을 하고 있죠. 모든 행사에도 다니고, 행사 개최를 준비하고, 지금은 당진시 학교에서 줄다리기를 이론을 포함해서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다. 전국 줄다리기연합회에서도 사무국장의 일을 했어요.

## 2)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와 협력하여 줄다리기를 축제를 기획하고 준비하는 단체로서, 1983년 6월 25일에 설립되었다. 축제위원회는 원래 집행위원회로 출발하여 2006년부터 공식적으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개최를 도와주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로서 활동하고 있다. 이 위원회는 단순히 축제를 개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지시줄다리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는 곳에서 구경하러 온 사람들이 많았다. 기지시리 마을로 결혼해서 온 할머니 K-V 씨는 젊었을 때 왕복 20킬로 거리가

되더라도 기지시줄다리기를 구경하러 왔다고 전하였다. 축제가 한번 열리면 사람들로 산이 가득 찰 정도였다고 한다. 하지만 급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에 사람들은 바빠지고 할 일이 많아지면서 민속축제에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도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후 관광객의 숫자가 증가할 거라 기대했으나 오히려 반대 상황이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2000년대 이후, 기지시줄다리기는 줄을 당기는 축제를 넘어 다양한 축제 행사가 추가되면서 축제의 규모가 커지게 되었다. 2002년, 당진시(당시 당진군)은 문화재 관련 전문 직원을 고용하면서 많은 지원을 받게 되어 축제가 커지게 되었다. 특히 2006년에는 기지시줄다리기가 '세계화'를 목표로 하여 일본의 가리와노 줄다리기 보존회와 축제 교류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전에는 기지시줄다리기 공개행사로 알려져 왔었지만, 2009년부터는 공식적으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이 때부터는 아시아의 다른 5개국과 스포츠 줄다리기 대회도 개최하며, 국가 간의 줄다리기 교류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유네스코 등재를 향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전에는 3년마다 윤년에만 열리던 줄다리기는 축제로 바뀌면서 매년 개최되는 축제로 변화되었다(서종원 2017: 27). 그 이유는 한국 안에서 매해 하는 축제가 대규모의 중요한 축제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3년에 한 번 하면 사람들이 잘 기억도 못 하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도 없었기 때문이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이 축제는 단순히 줄을 당기는 축제로만 마무리되는 것이 사실 아쉬운 일이었다. 먼 지역에서 축제를 관람하러 온 사람들을 위해 기지시줄다리기 본 행사 외에도 다른 즐길 거리와 체험할 수 있는 놀거리의 필요성이 느껴졌다.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전반적인 운영에는 더욱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했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회원은 줄 제작과 줄다리기, 그리고 줄 고사의 전문가들이 축제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에 축제 운영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당진시에서 축제를 운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 몇 명을 고용하며 축제위원회가 시작되었다. 축제위원회는 초기에는 기지시줄다리기 추진위원회로 출발하여 1983년에 당



진군 사회단체 등록 제1호로 등록되었고, 보존위원회 집행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축제위원회는 이런 방식으로 몇 년 동안 잠깐 축제 기간에만 축제를 계획하고, 축제가 끝나면 일시적으로 활동을 멈추고 또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년 줄다리기 축제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을 위해 매년 일하는 것은 예상보다 번거로운 일이었고, 인력 채용 또한 어렵고 인원의 변동으로 인해 축제 계획에도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러한 문제를 고려한 결과, 당진시는 2010년 이후 축제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최하여 당진의 기지시줄다리기뿐만 아니라 다른 당진에서 개최되는 축제도 관리하기로 했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에 따르면 축제위원회에는 주로 '축제', '이벤트', '관광', 분야에서 전문적인 전공을 가진 사람이 참여하면서 축제의 운영이 더 전문화되었다고 한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위원회의 초대 추진위원장 제도는 1984년부터 시작되어 오늘 날까지 잘 운영되고 있다. 보존회와 마찬가지로 축제 위원회도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건물 3층에 자리를 잡고,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전문적으로 계획하며 전승과 보호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 3)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와 축제위원회의 이해관계<sup>60)</sup>

현재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약 3일 동안 진행되고 있다<sup>61)</sup>. 기지시줄다리기의 핵심은 줄을 당기는 것이지만, 삼일 축제 기간에 마지막 날에만 줄다리기 행사를 한다. 그 외의 축제 기간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에 축제위원회의 업무가 보존회보다 더 많다. 원래 기지시줄다리기는 민속축제 또는 지역 축제로서 신경 쓸 부분이 많지 않았으나, 유네스코에 등재된 후부터 축제 참여자가 증가하면서 관광객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과 공연, 가수 초청 등 다양한 요

60)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준비과정을 직접 참여관찰하면서 보존회 및 축제위원회 회원과 여러 차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이다.

61) 전승할 시기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 참고, 2023년 줄다리기 축제는 4일동안 개최되었다.

소가 추가되어야 했다.

매년 개최되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 보존회와 축제위원회는 자주 회의한다. 회의에서는 차년도 줄다리를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지 고려한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줄 제작, 제사, 줄 당기기 등을 중심으로 기획하며, 그 외 축제의 모든 프로그램은 축제위원회가 준비한다. 동일한 일을 수행하다 보면 양쪽이 부딪히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마련인데 이번 장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동시에 준비하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와 축제위원회 간의 역할과 상관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줄다리기보다 다른 축제의 요소가 더 강조되면서 원래의 목표를 잃어가고 있는 것에 보존회의 회원은 우려를 표한다. 이전에는 줄다리기는 줄을 양쪽에서 잡고 당기며 승패를 결정하여 즐거운 경험을 제공하는 축제였지만, 현재는 대규모 축제로 변화되면서 줄 당기기보다 다른 축제 요소들인 가수 초청, 다양한 문화 관람, 문화 체험 학습 등이 더 중요시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서 줄다리가 역으로 하나의 이벤트로 변해버린 것이다. 즉,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기간인 3일 동안 하나의 이벤트로 몰리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보존회의 입장에서 정말 안타까운 상황으로 여겨지고 있다.

축제를 준비할 때 중요한 것은 지원금이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의 경우 축제위원회가 전반적 준비를 담당하다 보니 당진시에서 축제위원회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 때문에 보존회는 줄다리기 축제에 필요한 줄 제작, 제사, 줄 당기기 등의 예산 계획서를 작성하여 축제위원회에 먼저 제출해야 한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주 전승 주체자인 보존회는 아이러니하게도 축제위원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보존회의 회원들은 기지시줄다리가 원래 줄을 당기는 축제이기 때문에 축제위원회와 따로 수락 받아야 하는 과정이 더 추가된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축제 이전에 사용될 예산 및 축제에서 사용된 전체 예산을 축제위원회에 제출해야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이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줄다리를 중요시한다면 축제위원회는 축제

의 전반적 행사 그리고 관광객을 중요시한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자 국가무형문화재로서 보존회는 매년 문화재청에 보고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이 보고를 통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문화재청의 요구에 따라 보존회는 코로나의 거리 두기가 완화되어서 축제 날짜를 빨리 정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축제 날짜가 빨리 나와야 문화재청에 보고서를 올리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존회는 예로부터 기지시줄다리기를 2월에서 3월 사이에 개최해 왔기 때문에 그 때 즈음에 축제를 개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축제위원회의 생각은 보존회와 일치하지 못했다. 축제위원회는 기지시줄다리기를 2, 3월의 실외 추위로 인해 관광객들이 불편해 할 수 있는 점과 날이 빨리 어두워지는 점을 강조하면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참여할 수 있는 4월이나 5월에 개최하도록 제안하였다. 두 전승 주체 끝내 날짜를 합의해서 작년(2022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5월 13일부터 15일에 개최되었다. 이번 축제는 일반적인 기지시줄다리기의 축제 기간보다 훨씬 늦은 시기에 개최된 것이다. 물론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더욱 지연되었던 측면도 있다.

이상 현장 연구를 하면서 참여관찰 및 인터뷰를 통해 보존회와 축제위원회 간의 이해관계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보존회와 축제위원회의 관계 정립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이 두 조직이 기지시줄다리기 전승을 위해 필수적 조직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김형근(2017)의 논문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문화재적 가치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축제적 시각에서 중요시하는 '대중성'을 충족시키기 어려워진다. 축제적 접근으로 인해 문화재적 가치와 민속적 가치가 희석되기 때문"에 보존회와 축제위원회의 의견의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한국 안에 있는 140여 개 넘는 보존회에도 밖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와 갈등이 많다(서종원2017: 23). 가장 중요한 것은 갈등을 일으키게 만드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하며 미래지향적인 마인드를 가지는 것이 우선이다 (ibid. 42).

#### 4)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2000년 초반, 충청남도 개발계획이 시작됨에 따라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보유자와 기타 회원은 충남발전연구원과 협의하여 기지시줄다리기를 주요한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발전 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결과, 기지시줄다리기는 국토교통부에 접수되어 12월 말에 100억 원 이상의 예산 지원을 받게 되었다. 지역 주민 총회, 관계 기관의 자문, 송악 지구 도시개발 계획<sup>62)</sup>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 뒤, 2006년 10월에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건설이 착공되었고, 2011년 4월에 개관되었다.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은 기지시줄다리기의 보존과 전승에 있어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실제로 박물관 건물이 완성되면서 보존회와 축제위원회도 적절한 장소를 확보하게 되었다. 박물관은 줄다리기의 줄, 제작 과정, 역사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박물관에 방문하는 이들은 줄다리기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해서는 기록, 교육 및 연구가 가장 필요한 요소라고 생각한다. 박물관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Blake(2018)는 박물관을 "무형문화유산을 전달하고 가르칠 수 있는 공간"으로 언급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도 이와 마찬가지로이다. 박물관에는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철저한 기록이 전시되어 있다. 외부인을 위해, 특히 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학예연구사는 지속적 연구를 통해 박물관을 발전시키고 있다. 박물관은 보존회와 축제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물관이 설립된 이후, 당진시는 관광지로써 많은 사람이 찾는 곳이 되었다. 이제 당진시를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개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을 찾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관광객이 줄다리기에 대해 배우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현재 박물관은 기존 마을보다 2km 떨어진 곳에 있다. 박물관 건물 앞

---

62) 당진시의 도시개발사업 8개 지구 중 하나이다.

에는 넓은 마당이 펼쳐져 있다. 이 마당에서는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매년 줄다리기 축제도 여기서 개최된다. 박물관 건물은 보존회와 축제위원회가 자리 잡고 있어, 축제나 행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또한,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박물관은 행사와 축제를 위한 시설들로 잘 갖추어져 있어, 줄다리를 박물관에서 개최하기에 좋은 위치이다. 더욱이, 근처 마을과 가까워서 줄을 제작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이전에는 마을에서 줄을 제작했기 때문에 바람에 날려지거나 먼지가 많아져 장사와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었는데, 이제는 마을과의 거리가 멀어져 이러한 문제는 사라졌다.

박물관의 설립과 동시에 기지시줄다리기 행사 모두가 박물관에서 진행되다 보니 박물관과 마을에 거리가 있어 마을 주민들은 전처럼 참여를 하지 않게 되었다. 관광객들은 줄다리를 보러 오면서 박물관만 방문하고 마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이러한 이유로 마을에서 줄다리기의 전통은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 박물관의 학예연구사와 보존회 회원은 줄을 다시 마을로 끌고 가서 마을에서 줄다리를 부활시키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를 다시 마을에서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G-M씨(남)와 인터뷰 중

기지시줄다리는 원래 기지시리 마을의 것이기 때문에 마을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금 여기 우리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편하기도 하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도 없지만, 기지시줄다리는 원래 기지시리의 문화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에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라리 자리가 없으면 줄을 조금 짧게 만들던 지 해야지, 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참여 할 수 있게 해야지, 그래야 마을 활성화도 잘 되고, 마을의 발전도 될 것 같아요. 무엇보다 마을의 사람들의 참여가 높겠죠. 저는 우리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도 일본의 축제처럼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의 축제는 그들 중심으로 되어 있고 외부 사람들의 참여는 자유롭잖아요. 외부 사람들이 참여 하든 말

든 우리는 우리의 문화를 지킨다는 마음이 있어야할 것 같아요. 지금 기지시줄다리기는 외부사람들을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광객들을 보여주는 식이고, 근데 그건 안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제 말은 중심이 되어야하는 사람은 마을이라고 생각해요, 외부 사람은 오면 환영하고 안 오더라도 마을 사람끼리 하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야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잘 이루어질 것 같아요. 지금 같이 넓은 곳에서 줄다리기는 것은 관광객들에게는 좋지만, 막상 마을의 사람들에게는 거리감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럼에도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은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을 위하여 전송 공간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행사를 위하여 공간을 제공해 주고 줄다리기의 전시를 통해 줄다리기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보존에 도와주고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은 당진시의 랜드마크(landmark)(권두현 2017)로 만들어서 당진만의 줄다리기 아닌 세계의 줄다리가 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 3.2 공동체 참여와 전송 활동

유네스코의 2003년 협약은 무형문화유산 전승, 보호 및 관리를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동체의 참여라 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송에 공동체의 중요성을 국제적인 문화유산 제도에서 알린 것은 2003년 협약이 처음이다.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공동체이며,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과 존중 그리고 이를 고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 (2003협약 제15조 참고<sup>63</sup>) 또한 공동체이다. 공동체란 “무형문화유산의 실천과 전승 또는 참여에 뿌리를 둔 공유된 역사적 관계에서 정체성 또는 연결성이 나타나는 사람들의 네트워크”<sup>64</sup>를 뜻한 데 공동체

63) 협약 제 15조 참고 “당사국은 자국의 무형문화유산 보호활동의 틀 내에서 이러한 유산을 창출·유지 및 전수하는 공동체·집단 및 적절한 경우, 개인이 가능한 한 광범위하게 참여하고 이들이 이러한 유산의 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노력한다.”

는 무형문화유산을 전승 및 보호하고 전달하는 책임을 넘어서 관리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Blake 2006: 76).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과 다르게 공동체 없이는 유산이 존재할 수 없으며 국가가 공동체를 지원해서 보호 및 관리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김지현 2021: 47). 아울러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는 당사국이 신청하게 되어 있지만 신청 시 관련 공동체의 전적인 참여와 동의를 강조하고 있다(2003 협약 제11조 제(나)<sup>65</sup>). 협약의 운영 지침 제78~80항에도 유네스코의 등재를 위해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주도해서 등재를 하지 못하더라도 당사국은 등재 과정에서 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기지시줄다리기에는 공동체인 마을 주민이 전승 활동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다. 오히려 새로 만들어진 전승 주체가 현재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유네스코는 협약에 기록된 내용과 실제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과정에서 이행되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따라서, 유네스코의 협약은 유럽 사회나 일본과 같은 공동체가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에 적합할 수 있지만, 한국과 같이 식민지 시대를 경험한 정체성을 한때 빼앗긴 나라에는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협약을 그대로 이행하는 것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 유네스코는 공동체의 참여를 강조하는데도 실제로 보면 공동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로 무형문화유산은 전승하고 있고 등재하고 있다. 전승 주체인 단체가 공동체로 인정되어 있던 것이다. 연구자는 유네스코의 협약과 등재기준이 실제 제 3세계의 지역사회에는 맞지 않는 것을 비판적으로 보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주체와 공동체의 범위를 한정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공동체에 대한 모호한 표현을 함한희 & 이성인(2015: 3) 공동체의 개념을 “대체로는 마을을 단위로 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는 집단을 공동체의 단위로 떠올리게 되지만, 때로는 그보다 더 넓은 범위인, 지역사회, 국가 민족 등 넓은 범위의 공동체가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는

---

64) 유네스코 홈페이지에 참고

65) 협약 제 11조 제(나) 참고 제2조제3항에 언급된 보호조치 중 자국의 영역 내에 존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한 요소를 공동체·집단 및 관련 비정부기구의 참여하게 감점하고 규정한다.

경우도 적지 않다”라고 강조한다. 즉, 그들을 따르면 공동체는 마을 사람만으로 한정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네스코의 협약은 여러 차례 반복해서 공동체를 언급하고 있으면서도 공동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 주제인 보존회를 비판한 것은 아니다. 전승 주제인 보존회가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에 기지시줄다리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전승 주체는 공동체가 지켜야 할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을 대신한다.

그 다음에는 유네스코 등재에 공동체의 참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줄다리를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당진시와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센터 협력과 도움을 받아 문화재청에 제안하였다. 문화재청은 그 제안에 빠른 응답을 준 덕분에 동아시아의 다른 나라들과 공동 등재하도록 목록을 작성하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는 한국 안에 있는 어떤 공동체도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다. 등재의 온 과정들이 한국의 문화재청이 다른 나라의 정부와 협력해서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등재하도록 노력하였다. 나중에 각 공동체는 유네스코 목록 작성 동의서에 서명만 했던 것뿐이다. 즉,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협약 제7장에서 주장하는 당사국 보고서(제29조<sup>66</sup>)에 공동체의 동의서가 하나였다.

공동체가 참여하는 것에 대한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회원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참여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문화재청해서 해주었죠. 우리 중에 아무도 등재되는 회의에 참석을 못했죠. 그냥 TV로 등재되었다는 사실을 들었고, 우리는 그걸 그저 기뻐했죠. 사실 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일반 시민들 중에 한 두 명이라도 전문가나 학자들이었다면 우

---

66) 제7장 제29조(당사국은 위원회가 정한 형식 및 주기를 준수하여 이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입법, 규제 및 다른 조치에 대한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



리도 참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sup>67)</sup>.

한국에서는 모든 무형문화유산의 등재가 공동체의 참여보다도 당사국 또는 위원회의 주도 안에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유네스코의 등재기준<sup>68)</sup>을 보면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는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고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항목과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유네스코는 당사국을 보호 조치로 명시하고 있다(협약 11조 참고). 즉,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당사국 또는 국가의 역할이며 담당하고 있다. 당사국의 참여 또한 공동체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한국의 국가도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공동체가 단순히 전승하고 보호하는 대상이 아닌 협력 파트너로서(김지현 2021: 48) 생각하고 공동체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권리를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 무형문화재법을 발전해서 공동체의 참여를 강화하는 것을 주목해야 한다.

이상, 유네스코가 강조하는 공동체와 실제로 전승 과정과 등재 과정에서의 공동체의 참여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 주체로서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 활동을 열심히 이어오고 있다. 연구자가 현장 연구하면서 보존회 회원들<sup>69)</sup>과 인터뷰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전승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

67) 연구자와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회원들과 인터뷰 내용 중.(C-G, D-G씨와 인터뷰)

68) 인류무형문화유산의 등재 기준

- (1) 무형유산협약 제2조에서 규정하는 무형문화유산에 부합할 것
- (2) 대표목록 등재가 해당 유산의 중요성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인식을 제고하며 문화 간 대화에 기여하여 문화 다양성을 반영하고 인류의 창조성을 입증 할 것
- (3) 신청 유산을 보호하고 홍보하기 위한 적절한 보호 조치가 마련되어 있을 것
- (4) 관련 공동체, 집단, 개인들이 폭넓게 신청 과정에 참여하고 자유롭게 사전 인지 동의할 것
- (5) 신청 유산이 당사국 무형문화유산 목록에 포함되어 있을 것.

69) 연구자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회원들과 현장인터뷰를 통해 현재 보존회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수집한 내용이다. 인터뷰 내용에 얻은 대답을 6개로 나눠서 작성하였다. 실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을 참고

우선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을 위해 보존회 하는 기본적인 활동이 교육 하는 프로그램이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많은 선배 회원이 새로 들어온 회원들을 대상으로 매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때 특히 보유자 선생님께서 직접 강의하면서 기지시줄다리를 가르치는 일을 한다. 그 외에도 젊은 사람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할 때 회원들이 모두가 가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가 하는 또 다른 활동은 매년 축제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래는 3년에 한 번 했던 기지시줄다리는 매년의 축제로 바뀌고 나서 매해 원형 그대로의 줄을 제작하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대해서는 아래 따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 것이다).

기지시줄다리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기 때문에 전국 각 지역에서 초청공연이 들어오게 되었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회원은 1년에 5~7번 정도 줄을 가지고 행사를 참여한다. 그중에서도 2013년부터 매년 해왔던 남북 화합 평화통일 줄다리기는 나라의 평화, 안녕, 연합을 뜻하는 놀이이기 때문에 남북의 평화 또한 안녕을 기대하며 매년 6월 15일에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줄다리가 펼쳐진다. 기지시줄다리기보존회가 주관한 이 줄다리는 파주시 조국평화통일불교협회의 후원으로 매년 통일의 소망으로 줄다리기하고 있다.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줄 고사를 지내고, 남북이 하나가 되는 줄 결합을 해서 남북통일 줄다리기 행사가 펼쳐진다. 2013년 처음으로 시작했던 이 행사는 전국에서 집중이 되고 관심이 많아서 언론보도자료 뿐만 아니라 뉴스에도 여러 차례 나와서 아주 큰 쟁점이 되었다. 이런 계기로 기지시줄다리는 전국적으로 알려지면서 행사는 성공을 얻었다. 어쩌면 기지시줄다리가 확장하면서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는 큰 역할을 하였다. 그 후 매년 남북 평화 줄다리가 펼쳐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에는 코로나 거리두기로 인해서 남북통일 줄다리기 행사가 중단 된

상태이다.

기지사줄다리기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이기도 전에 국가 지정 무형 문화재이기 때문에 한국의 문화재청에서 지원받아 3~4개의 사업을 하고 있다. 그중 가족 단위로 박물관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사업이다. 아주 오래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매달 첫째 주말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 사업은 가족 단위로 진행이 되며 기지사줄다리기에 대한 관심 있는 가족들에게 박물관에서 기지사줄다리기의 소개하고 줄 제작을 체험하게 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가족끼리 함께 줄 제작의 체험을 하면서 가족 간의 화합을 얻기도 하고 가족 구성원들이 쉬면서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목표하고 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인해서 기지사줄다리기를 원래처럼 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는 기지사줄다리기의 전승을 이어가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계속 이어 갔다. 그중에서는 문화상자 사업이 있다. 문화상자는 놀이를 통해 쉽게 줄다리기를 배울 수 있는 상자이다. 보존회는 여러 지역에 문화 상자를 보내기도 하였고 어린 학생들에게 나눠서 기지사줄다리기의 소개도 하였다.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는 기지사줄다리기의 전승 및 보호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오고 있지만 보존회 안에서 전승을 방해하는 문제 또는 약점이 존재한다. 보존회 회원들<sup>70)</sup>과 인터뷰를 통해 기지사줄다리기 전승에 문제 및 방해되는 것은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가 하는 사업은 다양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을 책임지어서 하는 사람이 없다. 문화재청은 매년 다양한 사업을 위한 지원은 하고 있지만 사실 그 사업을 책임져서 보존회에서 할 사람은 없다는 것은 현실이다. 보존회 회원들의 본업이 따로 있고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에 참가하는 것은 부업 같은 느낌이기 때문에 보존회 일을 본업으로 하기에 한계가 있다.

그 다음은 참여도가 낮다. 위의 내용과 비슷하지만, 사실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를 취미로는 활동하는 회원들이 대부분이라 본업만큼의 신경을

---

70) 본 내용도 위와 같이 회원들과 인터뷰를 함으로써 정리하였다.

잘 쓰지 못한다. 그러기 때문에 참여도도 저절로 떨어진다. 그냥 1년의 행사할 때만 잠깐 참여를 하다가 그 외에는 자기의 삶에 바빠진다. 그뿐만 아니라 보존회의 회원들이 다 ‘마을 아저씨, 동네 형들’이기 때문에 소극적 참여를 해도 누가 뭐라고 말도 못 하며 회원들이 줄다리기에 대해서 안다 해도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어서 보존회의 회원에게는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자부심이 부족하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자인 것에 대하여 별로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며, ‘내가 전승자이고 내가 이수자니까’ 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자부심을 못 느낀 것은 아무래도 놀이 종목이기 때문이다. 판소리를 예를 들어 보자면, 아주 어릴 때부터 열심히 준비해야 하고 보유자 선생님과 아주 오랫동안 수업을 받고 나서야 아주 긴 여정을 끝내고 이수자가 될 수 있지만, 기지시줄다리기 같은 단체 종목들은 다르다. 이걸 직업으로 삼을 수가 없고 그러기에 지원도 없다. 그리고 아주 노력 없이도 기지시줄다리를 잘 배울 수 있다. 그래서 회원들의 마음 속에는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자부심이 크지 않다.

보존회에서 다양한 사업을 맡아 일하고 있는 회원들의 마음은 항상 불안하다. 문화재청에서 제공하는 사업들도 매해 연장해야 한다. 문화재청은 해마다 펼쳐지는 줄다리기 그리고 그 외의 사업을 심사하며 평가한다. 전승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거나 기대에 못 미치면 해 왔던 사업이 연장 못 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문화재청의 정책에 맞게 제출해야 한다. 그래서 전문가의 손길이 없으면 사업들이 중단되기 때문에 늘 불안에 시달린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에 문제가 되는 것은 보존회 어르신 또는 토박이와 갈등도 있다. 어르신들은 원형 그대로 지키기로 원한다. 젊은 전승자들은 원형을 분명히 지키되 세대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안 맞을 때가 많다. 기지시줄다리는 시대에 맞게 줄을 끌어당기기 편하도록 줄다리기에는 바퀴를 추가해서 더욱더 편하게 줄을 당길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어르신들과 마을에 원래 사셨던 분들은 줄다리기의 변질에 대한 안 좋은 시선을 가진다. 젊은 전승자들은 원형은 그대로 하되 시대

맞게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짚을 사용한다고 해서 주변에 먼지를 날린다면 짚을 대신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택하는 것을 옳다고 생각한다.

위에 제시한 문제에 이어 요즘은 기지시줄다리기를 하는 데 있어 마을 주민들의 참여가 줄었다. 전에는 줄다리기의 공동체는 마을 그 자체였다. 예전에는 마을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줄다리기에 필요한 것을 준비도 하고 축제도 시행했었다. 그래서 내 일처럼 다 열심히 했는데 지금의 줄다리기는 마을에서 나오게 되었고, 문화정책이 좋아져서 당진시에서 매년 지원금을 받고 있어서 줄다리기는 마을의 축제보다도 관광객을 위한 축제가 되어버렸다. 현재 당진에는 1,000명 중에 10명만 원주민이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많이 이동하였고 새로운 외부인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기지시 줄다리기는 보존회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외부인이 줄다리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보존회의 인원으로 활동을 하니까 마을 주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현재 보존회는 다시금 줄다리기를 마을에서 다시 하려고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새로 들어온 입주자들 때문에 기지시 줄다리기가 당진 너머 다른 지역에도 퍼지고 있기 때문에 보존회는 이 사람들의 도움으로 전국적으로 널리 알리기를 희망한다.

기지시줄다리기는 해마다 큰 축제로 열린다. 축제하는 것은 어떤 공동체의 사람들이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약속된 장소에서 의례와 놀이를 함께 각종의 프로그램을 통해 축제를 구경하러 온 사람들에게 재미있는 추억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관광객들은 축제에서의 기억을 되살리고 다음번에 다시 찾아오도록 돕는다. 위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공동체는 늘 전승 주체의 역할을 할 수 없다. 전에는 기지시 마을의 주민이 공동체의 역할을 했다면 지금은 보존회가 주 전승자로 공동체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앞으로는 새로운 단체가 공동체가 될 수도 있다. 즉, 공동체라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데에 힘을 쓰는 어떤 단체도 공동체라고 불릴 수가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놀이로써 이를 전승하는 공동체 없이는 절대로 축제할 수가 없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줄을 만드는 과정부터 줄을 당기는 과정까지 연합과 협력이 필요하다. 작년(2022)도 줄을

만들기 위해 인력이 부족해 주변 학교에서 학생들이 봉사하러 나왔다. 이렇게 외부에서 경험 삼아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당진시민들이 다 나와서 전체가 함께 줄을 만들고 함께 수상, 수하로 나뉘어서 줄 당기는 일에 참여하면 축제는 더욱 더 의미가 있는 지역 축제로 빛날 것이다.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데 있어 유네스코의 협약과 현실은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런데도 연구자는 이러한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 공동체를 보호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이미 등재되어 과거로 남아있으므로, 우리는 현대 사회의 변화 속에서도 전승의 역동성을 유지하며 공동체를 보호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모든 시민이 축제에 참여하고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022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셋째 날 줄을 당기고 있는 분들과 인터뷰 중

연구자: 줄다리기 당기는 거 처음이신가요?

I-T씨(남): 아니요. 매해마다 옵니다. 저는 어릴 때 당진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 줄다리기 당기고 놀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고 그래서 매년마다 오게 되는 것 같아요. 너무 즐겁고 어릴 때 돌아가는 것 같아요.

K-T씨(여): 저는 여기 근처에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는데 이런 행사가 있다고 들어서 애기 들을 데리고 왔는데 줄당기는 거는 조금 힘들지만 재미있어요. 애들이 재미있어 해요. 애들이 조금이라도 한국의 문화에 대해서 배우지 않을까 싶네요.

### 3.3 유네스코 등재의 영향

무형문화유산은 물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임재해 2009). 흐르는 물을 고정해서 막을 수 없는 것 같이 무형문화유산 변화도 피할 수 없다. 한

국의 무형문화유산은 과거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산업화 시대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받아서 많이 변화되어 있다.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은 문화재보호법을 만들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인식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임돈희 · 로저.L 2005).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면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의 등재기준에 맞춰서 전승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등재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한 기존의 논문은 주로 예술 종목을 중심으로 연구 되어 있다(권봉관 2019). 하지만 기지시줄다리기와 같은 놀이 종목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보기 어려웠다. 기지시줄다리기와 같은 놀이 종목이 가지는 성격 때문이라 생각한다. 놀이 종목은 단체가 함께 어울려서 전승하기 때문에 전승 과정에서는 변화가 두드러지게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유네스코의 등재는 전승 과정 외에도 다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연구자는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기지시줄다리를 살펴보면서 놀이 종목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이후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이 하나 이상의 당사국 영토에 있으면, 당사국은 무형문화유산 긴급 보호와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에 국가 공동 등재 신청”하는 것을 권유한다(협약, 운영지침 제1장 참고)<sup>71)</sup>. 공동 등재는 유네스코 등재로 인해 국가 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고 공동 등재된 모든 나라들이 인정받아서 국가-브랜딩(nation branding)을 향상할 기회를 제공한다(황경순 2018).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게 하면 가장 국가답고 국가의 자랑인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브랜드 가치를 높여주는 역할을 한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도 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된 이후,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다른 나라까지 줄다리기의 고유한 가치를 알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거리 두기로 인해서 단체 사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보존회는 소수의 회원이 모여서 줄다리기의 공개 행사를 유튜브 문화유산 채널에서 라이브 방송<sup>72)</sup>을 하였다. 본 방송에서는 기지시줄

71)운영지침(Operational Directiv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6.GA.2016)

72) <https://www.youtube.com/watch?v=9XVVeUygtHY>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

다리기에 대하여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풍물놀이, 줄당기기까지 줄다리기 모든 프로그램이 생중계되었다. 처음으로 유튜브 라이브를 시도한 공개행사이기 때문에 미숙한 부분은 많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경직된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집에서 볼 수 있다는 것에 시청자의 반응이 아주 뜨거웠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기지시줄다리기를 알린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런 방법을 인수하여서 다른 무형문화유산들 또한 코로나19 상황에서 생중계 방송하였다고 한다.

G-M(남)씨는 첨으로 생중계 된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 시기여서 생중계를 하기로 했지만 처음으로 시도한 것이라 부족한 점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기지시줄다리기는 넓은 마당에서 이루어지다보니, 전체 모습을 화면에 담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라이브를 하면 소개하는 사람과 찍는 사람이 필요한데 기지시줄다리기는 너무 크고 또 연합으로 해야 하다 보니까 카메라로 모든 것을 못 찍겠더라고요. 앞으로 어떻게 잘 할지 계획을 세워놔야 해요. 그래도 좋은 반응들이 있어서 다행이죠.

국가-브랜딩을 이어서 유네스코에 등재한 후 가장 큰 변화를 가졌다면 바로 문화유산 교류이다. 한국 안에 있는 줄다리기를 넘어서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생긴 것이다. 서로 문화가 다르고 교류가 어려운 나라들이 공동 등재가 됨으로써 서로 문화 교류를 넘어 서로에 대한 이해할 수 있는 좋은 플랫폼이 되었다. 한국 안에 있는 국가 지정,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총 6개의 보존단체 간의 연합회가, 즉, 한국 “전통 줄다리기 전승 단체 연합회”가 2014년 10월 21일에 정식으로 결성했다. 사실 이 연합회는 유네스코에 등재시키기 위한 전략이자 첫걸음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단체는 줄다리기가 2015년에 등재된 후에도 협력

---

산! 기지시줄다리기의 모든 것! 라이브로 만나요”



을 통해 상호 발전과 전승의 활성화, 전통문화의 창달에 노력해 왔다. 2016년에는 전주에서 연합회 구성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고, 2017년에는 경남 청년회 부곡온천에서 제2차 대회를 개최하였고 2018년에는 강원도 삼척에서 제3차 대회를 개최하였고, 2019년에는 제4차 한국 전통 줄다리기 전승 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 및 한마당 축제가 밀양에서 개최하였으며, 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소수만 모여 당진에서 한국 전통 줄다리기 전승 단체 연합회 구성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에는 제5차 한국 전통 줄다리기 전승 단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영산에서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줄다리기는 2018년 후반기에는 공동 등재 국과의 국제교류 증진을 위하여 베트남과 교류 활동을 하였으며 2019년에는 유네스코 줄다리기 종목 한마당 축제라고 해서 베트남 및 국내 6단체와 함께 축제가 열렸다. 그리고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5주년 기념으로 각 나라사람을 모여서 기념식을 열었다.

매년 모이는 노력과는 달리, 유네스코의 등재 이후 기지시줄다리기는 다른 무형문화유산들과 동일하게 등재에 대한 열망 때문에 등재하는 것을 위한 노력과 꾸준한 관리를 해왔지만, 유네스코 등재 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허용호 2017: 112). 등재할 때 약속했던 것들을 지키지 못하고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 매해마다 하는 연합회에 참석하는 것도 유네스코에 등재되었기 때문에 한 것 때문이며 실제로는 연합회의 중요성을 모른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예능 보유자를 따르면 2014년 조직이 결성할 때부터 2018년까지 기지시줄다리기에서 연합회장 및 사무국장을 맡아 일을 하다가 2018년 하반기부터는 영산줄다리기에서 연합회장을 맡고 기지시줄다리기에서는 부회장과 사무국장을 맡기로 하였다고 한다. 즉, 연합회에 대한 관심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다른 줄다리기는 그만큼의 열정이 안 보인다. 모든 사람이 골고루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 2018년부터 회장의 자리도 넘겨줬다고 보유자가 이야기해 주었다.

G-M(남)씨 이렇게 말했다.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것은 서울대학교 같은 명문대에 들어가는 것과 비슷하다. 들어가기 위해 학원도 다녀야하고 밤도 세야하고, 준비도 열심히 해야 하고 시험공부도 해야 하고 근데 한번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여기저기 이름이 알려지잖아요. 주변에도, 누구 아들 누구 딸 서울대학교 합격 했대, 라고 할 거고 그리고 집안의 영광이잖아요. 근데 그 후에는 뭐 잠잠해지죠. 서울대학교 들어가면 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이죠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도 비슷해요. 등재하는 데에는 너무 힘들고 과정이 길고 준비할 것도 많고 그렇지만, 막상 등재하면은 그 지역의 영광이 되겠죠,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등재 같은 게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고 봐요. 유네스코에서도 본 취지 다르게 가는 것보다는 하는 데는 하고 안하는 데는 안 하는(등재) 게 결론이긴 해요. 그래도 등재 하는 게 좋으니까 앞으로 계획을 잘 짜는 거를 신경써야 할 거예요 ”<sup>73)</sup>.

기지사줄다리기는 유네스코의 등재된 후 변화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게 되면 더욱 변화하게 되어 있다. 연구자는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을 토대로 기지사줄다리기의 변화에 대한 알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보이는 변화가 크게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회원의 답은 “잘 모른다”로 정해져 있었다.

하지만 지난 수년간의 기지사줄다리기 축제 공개행사의 일정을 본다면 예전보다 일정들이 많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다<sup>74)</sup>.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지사줄다리기 축제에 방문하는 수가 증가하면서 관광객 대상에 맞는 프로그램들도 많아진 것이다. 특히 작년(2022년)은 2년 만에 열린 축제였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은 준비를 했다고 한다. 작년은 3일 동안 축제가 열렸었는데 첫째 날에는 주로 당제를 했었고 둘째 날은 처음으로 줄다리를 만들기 체험을 하였다. 기지사줄다리기의 줄은 아주 큰 편이며 줄을 만드는 데에 한 달 넘는 시간이 소유된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객들은 줄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가 없다. 줄을 만드는 과정을 보기 위해 2~3주 전에

73) 연구자와 1:1 인터뷰 내용 중

74)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 홈페이지에서 참고(<http://www.gijisi.com>)

방문해야 한다. 그래서 작년 보존회에서 관광객들 대상으로 줄을 만들기 체험을 하도록 준비하였다. 박물관 시연장에서 실제 작은 줄하고 줄들을 가지고 와서 보존회 회원의 도움으로 줄을 만드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날 참석한 어린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가 줄을 만드는 과정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할 수 있었다. 줄을 만드는 데 얼마나 힘이 들고 시간이 걸리는지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었다. 참석자들의 반응이 엄청 좋았고 이런 경험을 할 기회가 흔하지 않아 관광객들 모두가 함께 줄 제작을 체험하였다. 연구자는 줄 만들기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진짜 의미라고 생각한다. 무형문화유산을 눈으로만 보고 넘어가는 것과 직접 만져보고 배우는 것은 차원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런 면에서 기지시줄다리기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는 현장 연구와 여러 회원과 인터뷰를 통해, 유네스코 등재 이후 변한 것은 바로 새로운 목표가 생겼다는 것이 알게 되었다. 그동안 등재를 위한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이제는 등재 이후 어떻게 계속해서 더 나은 무형문화유산을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새 목표가 만들어진 것이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회원들은 지난 것보다 앞으로 올바르게 전승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전승하도록 힘을 써야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이름으로 기지시줄다리기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이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교육을 할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을 다른 시대에 넘겨줄 수 있는 다양한 캠페인도 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해서, 미래를 향해 나가기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연구자가 현장 연구하면서 공동체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생겨난 변화들만 추가하였다. 눈에서 확 보이고 피부에서 확 느껴지는 변화는 없더라도 기지시줄다리기는 계속 변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이다. 자연스럽게 변화된 것들도 있지만 공동체의 전승 주체의 관리로 인해서 변화한 것들도 존재한다. 하나를 예를 들어보자면 예전에는 무거운 줄을 그냥 시연장까지 끌고 갔더라면 지금은 바퀴가 사용되어서 좀 더 편하게 줄을 끌고 있다. 그리고 짚으로 만들어진 줄 외에도 다른 줄

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전보다 줄이 터 튼튼해지기도 한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시대에 따라 점점 더 바뀌고 있다. 현대 사회에 기술이 좋아져서 꼭 예전의 방식대로 굳이 해야 한다는 것은 없다. 시대에 따라 맞게 현대적 기술을 사용해서 전송이 더 편해진다면 얼마든지 편한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의 B-G(남)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원형은 꼭 지킬 겁니다. 하지만 그 외에 것들 최대한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지금은 짚을 사용하고 있지만 나중에는 뭐 짚이 없을 수도 있고, 공장에서 만든 줄로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카페에 가서 먹는 커피를 테이크아웃 잔으로 넣는다고 해서 커피가 바뀐 것은 아니잖아요. 안에 있는 커피는 그대로고 오직 그 플라스틱 잔으로 바뀐 것이죠. 그와 비슷하게 현대 기술이 들어갔다고 해서 줄다리가 변했다고 할 수는 없어요. 이걸 겉으로만 바꿔 거죠. 사실 속은 아직도 예전의 줄다리와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무조건 원형은 지킬 겁니다. 하지만 시대와 상황에 맞게 조금씩 바꿔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지시줄다리를 이어 갈 거예요.”

## 제 4 장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양면성

기지시줄다리기는 수십 년을 걸쳐 전승 과정에서 지속적인 변화를 겪어왔다. 기지시줄다리기 전승이 변화하는 이유는 시대적 또는 환경적 변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을 정해진 제도나 정책으로 관리를 하게 되면 제도에 따라 변화를 겪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게 되면 원래 성격대로 변화하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본 논문의 목적인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에 대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방법 또는 방식들이 다양하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에 국가와 공동체가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무형문화유산 관리하는 것을 살필 때 국가와 공동체도 같이 살펴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의 정치적인 면이나, 경제적인 면을 자세히 다르지 못하고 있음을 알리고 향후에 무형문화유산 관리에 대해서 깊은 연구하는 것을 과제로 삼기로 한다.

연구자는 본 논문의 서론에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대한 잠깐 언급한 적이 있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화석화(박제화, 고정화)되는 무형문화유산 그리고 다른 하나는 활성화(유지)되는 무형문화유산이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것의 양면성은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번 장에서는 양면성의 각 면을 나눠서 살펴볼 예정이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가 가져오는 양면성을 연구 대상인 기지시줄다리기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기지시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난 후 관리를 받으면서 화석화된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유지되면서 활성화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 향후 무형문화유산의 관리하는 사람들과 연구자들에게 무형문화유산의 양면성에 대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한다.

## 4.1 화석화되는 무형문화유산

모든 무형문화유산은 관리가 불가피하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리를 받는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은 화석화된다. 즉 관리가 되는 무형문화유산은 고정 또는 박제되어서 그대로 전승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현대 사회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는 경제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국가의 발전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유네스코의 등재된다는 것은 단순히 목록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등재한 나라의 이미지가 다른 나라들 사이에 대변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강정원 2020b). 계속해서 관리되어 온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국가, 유네스코 같은 NGO, 공동체 때로는 개인도 관리할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국가와 NGO들이 주로 문화를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각 국가는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기 위해 노력한다. 대다수의 국가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준수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있지만, 일부 국가는 자체적인 무형문화유산 보호법을 제정하기도 한다<sup>75)</sup>.

대부분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복원하기 위해 설립한 문화부<sup>76)</sup>의 역할에 대해 먼저 살펴보려고 한다. 특히 한국, 중국, 일본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에 있어서 앞선 단계에서 있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조사하고자 한다. 한국은 1990년에 문화부를 창설하여 이전에 실패한 문화적 동질성 회복 및 고유문화 보존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문화부 아래 각 국가나 공동체들이 자체 문화를 발굴하고 재창조하는 일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일본 정부도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전통 찾기 증가(tradition-finding boom)"라는 캠페인을 통해 잃어버린 문화를 재발굴 하고 정체성을 되찾기 위한 노력 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권숙인 1996). 이러한 노력에 따라 현대인들도 변화하는

75) 예를 들면 한국의 문화재보호협약.

76) 문화부 외에도 다양한 단체들이 있을 수 있음.

환경과 잃어버린 전통에 대한 향수를 느끼며, 문화 발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Hobsbawn(2004)은 "모든 것은 만들어졌고, 원래의 것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1962년 문화재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한국은 유·무형문화재를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만들어 왔다. 한편, 일본은 1949년 일본 호류지 금당 벽화 소실 사건 이후 국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며 문화재 보호에 노력해 왔다. 일본은 문화재를 유형, 무형, 민속, 기념물, 문화적 공간, 전통적 건물 조물 군으로 나누어 지정하고 보호한다(김잔디 2018; 김현정 2008). 중국은 일본과 한국보다는 늦게 문화재 제도에 관심을 가졌으나 2011년 비물질문화유산법을 제정하여 다양한 문화유산들을 보호해 오고 있다. 중국은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며(Su 2020<sup>77)</sup>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형문화유산을 등재시킨 나라이기도 한다. 세 나라는 모든 문화재의 관리를 국가가 맡고 있으며 한국은 문화재청, 일본은 문화청(문화재부), 중국은 문화부(비물질 문화유산)가 담당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문화재를 조사, 심의한 후 지정하며 보유자를 인정하며 문화가 잘 전승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교육 및 심사 등을 통해 문화를 적극적으로 관리한다(차수정 2016). 이러한 노력으로 아시아에서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앞장서는 한국, 중국, 일본은 역사와 문화의 공통점을 바탕으로 경쟁하며 무형문화유산의 소유권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외에도 문화를 관리하는 주체들이 존재한다. 이 중 ICOMOS나 UNESCO는 그 대표적인 예시이다. ICOMOS는 국제적으로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단체이며, UNESCO는 ICOMOS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무형 문화유산의 보호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활동하는 기구이다. UNESCO는 2003년에 발표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통해 기존의 유형문화유산 협약을 보완하였다. 이전 협약이 인류의 보편성을 강조했다면, 2003년 협약은 공동체 안에 전승되어야 하는 문화적 다양성을 중요시하였다. 기존의

---

77) Su 2020는 자기 논문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진정성, 완전성, 상품화 사이의 관계에 대한 정부 관료들의 개인적인 담론을 밝혀 중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리를 비판적으로 조사하려고 노력하였다

협약은 유럽 중심적인 비판을 받았는데, 이는 문화적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한쪽으로만 시중했던 협약이었기 때문이다(Stoczkowski 2009: 9). 그래서 2003년 협약은 문화 다양성의 존중을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방식으로 정하게 되었다. 이는 국가 내 공동체나 개인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맡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국가는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관리를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주도할 수 있다. 그러나 2003년 협약을 비롯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Blake 2009: 45),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전승을 위한 중요한 지침서 역할을 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Blake(2001)가 언급한 대로, 세계 무형문화유산을 특정 표현으로 인정하고 권위를 부여하는 보편적인 프로젝트이다. 2003년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만들었으며 이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원형보존을 원칙 하는 것보다는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문화의 다양성 또는 창조성을 추구하면서 보호 및 전승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하지만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함으로써 대표목록 또는 긴급보호목록에 추가하도록 권장한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변화를 강조하면서도 등재함으로써 변화를 막고 있는 것이 모순적이다. 유네스코에 등재된다는 것은 특정한 공동체의 유산이 아니라 전 세계의 유산으로 판정된다.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형태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기준이 돼버리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은 시대에 맞춰서 변화하지 않고 지정된 그대로 전승이 된다.

국가가 관리하는 것도 비슷하다. 요즘 문화 분야가 점점 국가의 의해 조직되고 만들어지고 있다(Bennett 1998: 61). 무형문화유산도 문화의 속성으로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단순히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와 전승을 위한 것이 아니다. Blake(2013: 17-18)에 언급 되어 있는 것 같이 국가가 정책을 만들어서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한 디딤돌의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경제 발전과 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동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네스코와 국가의 문화정책은 무형문화유산의 변화를 막게 되며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성격에 맞지 않는 것이다. 유네스코



또는 국가 문화 정책에 등재하는 것은 화석화를 가져오며 원래 목표된 무형 문화유산의 다양성, 재창조성 하고는 거리가 멀어진다. 문화자연주의는 유네스코나 국가가 만든 문화 정책을 비판하는 입장이며, 정해진 정책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을 조작하고 간섭하는(강정원 2022: 7)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한다.

기지시줄다리기는 한국의 무형문화재이자 인류 무형문화유산이기 때문에 유네스코의 제도도 따라야 하며 무형문화재의 정책도 함께 따라야한다.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무형문화에 대한 완전한 관리는 국가에게 있으며 이는 경제적이고 정치적 재화로서 필요하는 원형보존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기지시줄다리기 전승자들은 원형보존을 목표로 전승하도록 목표를 한다. A-G 기지시줄다리기 보유자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를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생각하는 것은 “원형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하였다. 즉, 정해진 정책안에서 매년마다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려고하는 것이다.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모습과 유네스코의 지정된 모습의 줄다리기의 원형이 되어서 그대로 전승되어 온 것이다. 이런 행위는 기지시줄다리기를 화석화하게 만든다. 그 뿐만 아니라 매년 정해진 대로 따라 하게 되면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도 떨어지게 되며 결국 무형문화유산은 일종의 의무가 된다. 즉, 유네스코나 국가의 문화의 제도는 무형문화유산의 다양성을 억제하는데 이런 행위는 바로 무형문화유산을 화석화하는 행위이다.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협약은 전 세계적으로 높이 평가되어 있다. 이 협약을 토대로 다양한 회원국이 제도를 준수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 전승 및 관리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등재 목록을 통해 이를 관리하는 주요 기관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재까지 140개국 이 이 협약을 비준하여 유네스코에 631개 이상의 무형문화유산이 등재되었다. 유네스코는 단순히 문화를 보호하는 비영리 단체일 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 목록에 등재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로서 가문의 영광과도 같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해 당사국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당사국은 자기 영토 내의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시킬 권리가 있다. 그리고 등재하기 위해 전승된 목록의 작성을 필수로 하고

있으며 영상 기록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같은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고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문화유산으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구전 방식이 사용이 되지만 일부 무형문화유산은 구전으로만 보호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 따라서 유네스코는 형태가 없고,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아카이브, 인벤토리, 박물관, 오디오 또는 영상 기록(예: 유튜브) 등 다양한 수단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등재하기 위해서는 목록 작성 외에도 사진 및 국가에서 제공한 영상 파일을 제출해야 한다. 유네스코가 등재하기 위한 요구하는 자료 또는 영상파일은 바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의 기준이 되고 전승자들 또한 그 기록을 따라 전승하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박물관에서 무형문화유산을 전시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을 화석화하게 만드는 것에 영향이 가장 크다. 살아 있고 움직이고 공동체 안에서 전승되어야 하는 무형문화유산을 박물관에 전시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을 그대로 멈추게 만드는 것이다. 박물관에 전시된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과 다르지 않게 되는 것이다.

Smith(2006: 112)가 주장한 것처럼 등재라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만, 사실상 등재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면서 권위를 부여하고 관리함으로써 변화를 억누르고 고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유네스코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즉, 등재로 인해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이 관리되는 것에 맞게 변화를 겪는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면 자연스럽게 변화되는 성격을 막아서 화석화하게 하는 위험성이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등재하는 자체가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원래 마을 사람들 사이에 열렸던 축제였지만 유네스코 등재 이후 기지시줄다리기는 고유한 마을의 문화가 아닌 국가 또는 전세계의 무형문화유산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오는 관광객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된다. 기지시줄다리기도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로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게 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도 변질하고 있다. 줄을 당기면서 같이 노는 마을의 행사였

던 줄다리기는 현재 형식적인 축제와 불과하다. 2, 3장에서도 논의했지만, 기지시줄다리기는 지금 행사가 아니라 축제이며 점점 원래 줄다리기의 본질과 상관없는 축제의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 예를 들면 줄다리기와 관련 없는 가수를 초대해서 공연하고 춤추는 것 등이다.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에는 지금 마을 사람들의 참여가 아주 소극적이다. 이것 또한 등재가 가져온 영향 때문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등재된 이후 기지시줄다리기는 마을을 위한 줄다리가 아니라 관광객들을 위한 줄다리기가기 때문이다.

현장 연구 중,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대해 G-M(남)씨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의 축제인데 사실 우리는 축제를 즐기는 기분이 안 들죠. 이근내 생일파티에 친구들을 초대하고 친구들은 먹고 마시고 놀고 있는데 막상 생일자인 나는 설거지 하고 밥도 하는 것이라 같죠. 축제를 관광객대상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죠. 우리끼리는 열심히 섬기는 입장이 되었으니 어떻게 이거보다 더 많은 참여를 바라나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꼭 정해진 정책이나 제도가 필요하며, 유네스코에 등재되어서 국가 개입으로 자유롭게 사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앞서 언급한 사항들이 없어도 전승하는 사람들이나 공동체의 협조를 통해 이루어진다. 그 이유는 바로 무형문화유산이 변화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유형문화유산에 경우를 살펴보면 외적인 유형의 모습이 변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유형문화유산은 지속해 관리가 안 되면 형태가 변하게 되고 유형의 가치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안동 하회 마을은 2010년 7월 31일에 “한국의 역사 마을”로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다. 안동 하회 마을은 600년의 역사가 있는데도 현재 안동하회마을을 둘러 가면 예전과 같은 모습, 즉 시간이 멈춘 듯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다. 이는 유형문화유산의 경우 관리가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다. 유형문화유산은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직접적

인 관리가 가능하며, 원래의 모습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은 유형문화유산과 다르다. 무형문화유산은 지정된 주체가 없더라도 계속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은 관리된다는 것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원래 윤년 음력 3월 초순에 대제 행사로 진행되었으며, 매년 양력 4월 초순에 소제행사로 개최되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부터는 매년 축제로 변경되었다. 이전에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던 축제가 갑자기 매년으로 변경된 이유가 있다. 한국에서는 매년 열리는 축제가 대규모의 축제로 인식하며, 매년 축제를 개최하지 않고 2년에 한 번씩 하게 되면 사람들이 잊어버리거나 크게 중요시하지 않아 찾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매년의 개최되는 행사로 바뀌었다. 다시 말해, 기지시줄다리기가 2년에서 매년으로 바뀜으로 지속적인 전승을 이어 나가도록 관리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외부의 명령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전승자들 내에서 협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이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문화는 단순히 삶의 방식으로만 남지 않고, 유산으로 지역 관광(투어리즘)의 활성화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더 나아가 시장에서 상품으로 제공되어 글로벌 소비자의 관심을 끌어내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김치나 김장문화는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상품화 및 소비화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강정원 2021; 하윤아 2013). 이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2003년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법이 채택되었다. 이를 토대로 전 세계 국가들은 자체의 무형문화유산을 빠르게 유네스코에 등록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통해 공동체 중심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강조한다. 그러나 전승 주체는 공동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호를 위해서는 국가도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국가는 유네스코의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유네스코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유네스코의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수용하여 국내의 무

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또한, 유네스코는 국가의 무형문화유산을 선발하고 등재하여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Bendix는 국가와 무형문화유산 간의 관계를 분석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비준이 국가에 새로운 권한을 부여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2013: 12). 이러한 이유로 현재에는 유산 만들기 사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으며, 유네스코가 국가를 대표하여 일을 하지만, 일부 국가는 유네스코의 제도를 수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들은 자체적인 제도와 유네스코의 제도를 혼용하여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무형문화재법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법을 모두 활용하여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지만, 두 제도는 서로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어 충돌의 가능성이 있다. 문화재 제도는 무형문화재를 원형 보존<sup>78)</sup>과 현상 동결을 원칙으로 하는 형태로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유네스코의 제도는 지속 가능한 전승과 재창조, 문화적 다양성 및 인간의 창조성에 대한 존중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재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반면,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가 주체로 하여 더욱 유연하게 관리되고 있다. 현재의 한국은 유네스코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어,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 제도에 맞춰 수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에는 원형 보존을 중시하는 무형문화재보호 제도였으나, 2016년 3월 28일에 재수정되어 유네스코의 제도를 추가하여 전통의 유지뿐 아니라 국제적인 가치 또한 보호하고자 하였다. 한국의 무형문화재보호법이 유네스코의 무형문화유산보호법에 맞춰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김현정 2018).

기지시줄다리기는 한국의 국가무형문화재(1982년)이자 유네스코의 대표 목록(2015년)에 등재된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다. 현재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하는 데에는 무형문화유산 보호법에도 맞춰야 하며 무형문화재 보호법에도 맞춰야 한다.

---

78) 실제 무형문화재법률은 원형에서 전형으로 바뀌었으며 제2조에서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이 무형문화재의 보존 및 진흥은 전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문화재보호법의 제3조를 보면 “문화재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으로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다. 즉, 무형문화재법은 박제화를 방지하기 위한 전형을 중요시하면서도 여전히 원형유지를 중요시한다.

## 기지시주라다리기 보존회 A-G 씨와 인터뷰 중

연구자: 유네스코에도 등재 되어 있고 국가무형문화재로도 지정되어 있는데 이 두 개는 각각의 제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승과정에서는 부딪친 게 없나요?

A-G 씨: 한번 행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할 게 많아요. 유네스코의 정책도 생각해야하고 무엇보다 우리는 국가에 지원을 받고 있잖아요, 그대로 따라해야해요. 기지시줄다리기는 매년마다 해야 하고 보고를 해야 해요. 실제 행사 때 문화재청에서 사람들이 행사를 구경하러 와요. 어떻게 행사가 진행되어 있는지 원형 그대로인지 체크하러 오죠. 그리고 국가가 정한대로 안하면 지원을 못 받아요. 그래서 지금하고 있는 사업을 잘해야지 나중에 또 계속 꾸준히 할 수 있게 지원이 들어오지 안하면 지원이 끊겨요. 그래서 맨날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내년에는 사업을 못하게 될까 봐요.

연구자: 그러면 유네스코 제도와는 어떤가요?

A-G 씨: 유네스코는 조금 다르죠. 유네스코는 5년에 한번 씩 이렇게 검사를 해서 크게 문제가 안돼요. 솔직히 유네스코는 멀잖아요. 처음에 등재하는 것이 어렵지 그 후는 사실 등재 된 후는 크게 관여를 하지 않죠. 유네스코는 뭐 큰 문제라고 하면 너무 멀리 있어서 하나하나가 관리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문제는 지자체나 국가 없이 무엇을 할 수가 없다. 유네스코 관련 사업도 우리가 먼저 해야 하죠. 우리나라에는 보유자 선생님이 중요하잖아요. 저는 기지시줄다리기에 보유자선생님 두 분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서로 서로 간에 경쟁이 생기게 되고 전승을 위해 더 힘을 쓰도록 노력을 하겠죠.

인터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유네스코의 관리가 너무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유네스코는 필요한 협약을 만들고 등재 사업을 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고는 하는 데 유네스코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의 등재 시켜서 유네스코의 등재 수를 늘리고 전 세계적 인 무형문화유산의 주권을 가져서 힘을 얻고 더욱 유명해지는 것을 목표

로 하는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유네스코는 등재를 위한 다양한 제도들을 만들어서 그 제도를 따라 등재하게 하지만 사실 그 이후에는 별로 관심을 주고 있지 않다.

#### 기지사줄다리기 박물관 G-M(남)씨와 인터뷰 중

유네스코는 우리에게 엄청 먼 존재예요. 있긴 한데 사실 몸으로 느끼지 못하죠. 유네스코는 우리가 어떻게 전승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고 그 만큼 관심을 가지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명문대학에 입학 했으니 이제 앞으로 내 인생을 내가 책임 되어야하는 것처럼. 우리도 유네스코에 지정이 된 후로 우리가 알아서 살아남을 길을 찾아가야하는 것 같아요. 잘 공부하고 잘 버티면 좋은 미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뭐 그대로 망하는 거죠.

국가 또는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신경 쓰지 않고 관리하는 것에만 집중한다. 그래서 등재 이후 전승보다도 등재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이 등재하는 과정에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 정부는 등재하는 것을 초점으로 맞춰서 등재에 가능하도록 무형문화유산을 전승을 권한다. 이렇게 등재를 하게 되면 전승자는 등재과정에 대한 지식이 없게 됨으로 전승하는 것에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무형문화재 정책이 따로따로 존재하는 한국에는 이 두 정책 다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기 때문이다. 무형문화재 정책은 유네스코에 가입하기도 이전에 있었던 제도이기 때문에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은 문화재 정책을 따라 전승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개입하게 되면 어떤 제도를 먼저 따라야 할지가 혼란스러워지며 관리하는 것 또한 어려워진다. 그 이유는 무형문화재와 무형문화유산이 서로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지향하는 것이 다르다는 점이 문제이다. 유네스코는 현재 또는 미래를 초점한다면 한국의 무형문화재는 과거를 초점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제도 사이의 격차를 주리고 간극을 좁혀질 필요가 있다.

여기서 연구자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형문화유산은 과거에 했던 화석화된 무형문화유산이 아니며 지금도 전승되고 있으며 살아있는 유산이라는 점이다.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 자체가 무형문화유산을 화석화하게 만드는데 한국의 경우는 관리가 두 배로 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 화석화의 가능성도 높다. 더구나, 한국은 등재 이후 전승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은 점점 살아남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Smith(2006)는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은 자유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유네스코의 등재는 유산을 관리하는 행위이며, 이는 보편적인 인간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유산 간의 계급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지적했다(2006: 99). 유네스코는 국가를 강조하고 공동체를 중요시하며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한 후에 유네스코가 정한 5개의 범주<sup>79)</sup> 안에 넣게 된다. 이렇게 무형문화유산의 전승보다 공동체를 우선시하면, 내재한 보편성을 간과하게 된다(강정원 2021a). 유네스코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의 계층 구조를 형성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등재 목록에 포함된 유산 수가 많을수록 그 나라의 이미지가 향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등재 수가 많은 나라는 무형문화유산에 풍부한 나라로 알려지고 다른 보다 무형문화유산을 잘 보호하는 나라로 인식된다. 또한, 이러한 목록화를 위해 조치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이며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고정화 또는 화석화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Sears 2002: 147, Van Zanten 2004: 41). 즉, 정해진 정책에서 문화유산을 전승하면 항상 정해진 정책대로 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에 줄을 만드는 과정에서 모든 것들이 정해져 있으면 늘 같은 방식대로 전승하게 될 것이다. 정해진 길이, 정해진 시기, 정해진 축제 일정이 있으면 매년

---

79) 무형문화유산협약 제 2조 정의 2번

무형문화유산은 다음 범주의 대항을 포함한다.

- 가. 무형문화유산의 전달 수단의 언어를 포함한 구전 전통 및 표현
- 나. 공연예술
- 다. 사회관습
- 라. 자연과 우주에 대한 지식 및 실천
- 마. 전통 공예예술



같은 원래 지정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렇게 하면 기지시줄다리기는 화석화되며 앞으로 계속 전승될 것이며 변화를 겪지 못하게 된다.

이상 무형문화유산의 관리가 가져오는 양면성 중에서 화석화되는 면을 살펴보았다. 정리를 하자면, 유네스코의 등재는 무형문화유산을 화석화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많은 학자는 무형문화유산을 자연 그대로 두어야 된다는 입장들이 많으며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잘 못 되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화석화되지만 활성화와 지속성을 가져다준다고 생각한다.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은 보존되고 또 활성화가 된다.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성화되는 관리의 다른 면을 다음 장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 보겠다.

## 4-2 활성화되는 무형문화유산

위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또는 등재를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의 양면성 중에서 화석화되는 한쪽 측면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와 등재를 통해 고정화시키기도 하지만 소멸해 가는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성화하도록 하는 다른 면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네스코나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의 장단점이 있다. 단점은 위에서 설명한 것 같이 무형문화유산이 화석화하는 것 즉, 변화를 막아 고정시키는 것이라면 장점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훼손되거나 단절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번 장에서는 소멸하는 것부터 방지되는 무형문화유산이 어떻게 보존되고 활성화되며 한 시대에서 다른 시대로 전승되고 있는지를 연구 대상인 기지시줄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해 보고자 한다.

국내의 학자 중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의 정책으로 가져오는 관리를 비판하는 문화자연주의자의 사례들이 많다. 그 이유는 바로 한국의 무형 문화재보호법이 원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기 때문이다. “원형”을 강조하는 것

자체가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지 못하게 막으며 고정하는 것이고,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시대 흐름과 함께 전승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는 무형문화유산을 원형 법칙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배영동1996: 191). 허용호(2009)는 무형문화유산은 ‘보존’이 아니라 ‘전승’되어야 하므로 ‘보존’이라는 단어 자체를 빼야 한다고 주장한 바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을 과거로 고착시키고 과거로 지향하는 원형을 중요시하는 모습이 무형문화유산이 가지는 속성과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중요하나 지나친 관리로 인해 전승이 안 될 수가 있다는 염려가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위해서는 원형만을 강조해서 안 되며 그렇다고 해서 전형도 옳다는 것도 아니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는 이 두 개념 모두가 상호보완적이다.

서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이경엽(2004)은 문화재에 지정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탄생하고 있는 문화재들을 소개하면서 ‘원형’대로 보존이 안 되는 한국의 민속들을 비판하면서 한국의 민속 전승의 현실을 소개해 주었다. 그는 만들어진 민속이 원래의 맥락보다 더 어긋나 있으며 원형대로 지켜야 한다고 주장은 하지만 새로운 민속으로 변화된 사실을 진도의 ‘다시래기’를 통해 설명하였다. 연구자 또한 지정하기 위해서만 만들어진 민속들을 비판한다. 왜냐하면 만들어진 민속 안에 세밀하게 들어가 보면 공동체도 없고, 전승도 잘 안 되어 있고, 보여주는 형식의 민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만들어진 민속의 다른 면도 집중하고자 한다. 사실 한국에 문화재보호법이 없었으면 민속의 새 발굴도 없었을 것이고 남아 있는 유산 또한 없었을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을 자연 그대로 놔둬야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문화자연주의 학자들의 바람처럼 무형문화유산은 자연그대로 흘러갈 일이 없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가 가져오는 양면성 중에 다른 면은 바로 소멸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다. 즉,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해서 관리하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변화를 막아서 화석화하게 하지만 훼손하는 것 또는 단절하는 것을 막아서 보존하도록 돕는다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경계가 분명하지 않으며, 유형문화유산처럼 정해진 영토에만 발견한다는 보장도 없다.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으면 기존의 무형문화유산이 소멸하거나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으며, 또한 자연 그대로 두게 되면 어떻게 변질할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해야 하는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한다는 것은 문화재보호법이 강조하는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변화를 겪으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왜곡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문화정책이 있으면 문화가 시스템화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있는 그대로 시스템화되어 있다. 하지만 시스템화된 무형문화유산이 보호 및 전승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무형문화유산이 시스템화가 되면 적당한 정책이 유지가 되면서 전승주체인 공동체를 강화시키고 전승을 방해하는 외부적인 영향을 막아주도록 도와준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일제 강점기 때 전승이 아예 멈췄다. 한국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들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국전쟁으로 인해 전승이 멈췄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승되어서 현대까지 전승된 문화유산은 거의 없다. 기지시줄다리기도 만약에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발굴하는 일에 도움을 주지 않았더라면 오늘날까지 전승이 불가능하고 소멸될 수 있었을 것이다.

한국은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초기에 인식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소멸을 예방하기 위해 신속히 무형문화재 보호법을 제정하고 국가무형문화 및 시·도 무형문화재로의 지정을 시작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단순히 지정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에도 꾸준한 노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은 다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할 수 있었으며, 이에 따라 유네스코의 세계 무형문화유산에도 등재되어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과 중국에도 적용됩니다. 만약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제도가 없었다면, 무형문화유산은 전승되지 못했을 것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소멸한 문화가 부활하고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보존할 수 있는 것이다.

기지시줄다리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 중단된 것처럼 무형문화유산은 외부 영향을 크게 받으며, 전승자들이 없고 관

리자가 없으면 쉽게 중단되고 결국에는 단절 또는 소멸된다. 다음 세대에  
 게 전달하는 전달자가 없으면 무형문화유산은 그대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고 공동체의 정체성이 약화된다. 기지시줄다리기는 무형문화재법의 관  
 리 아래서 잘 전승되면서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Bendix(2008: 260)가 계속 언급한 것 같이 무형문화유산은 경제적 재화  
 로서의 ‘문화’에 초점을 두고 ‘경제’와 ‘정치’ 사이의 역동성을 면밀히 관  
 찰할 수 있게 해준다.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의 등재를 힘을 쓰는 이유 또한  
 사회적, 정치적 통제를 행사해서 경제 발전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모든 무  
 형문화유산이 인류무형문화유산이 되는 것은 아니다. 무형문화유산들의 가  
 치와 발전의 가능성에 따라 ‘선택’된 몇 개만 유네스코 등재되는 것이다.  
 더 나가서 Hobsbwan & Ranger(1883)는 전통은 행위자(actors)와 관심  
 (interest)을 통해 만들어지는 발명의 현상이라고 한 것처럼 무형문화유산  
 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것이다. 국가는 직접적으로 문화유산에  
 개입해서 관리하고, 선택하고 등재하는 일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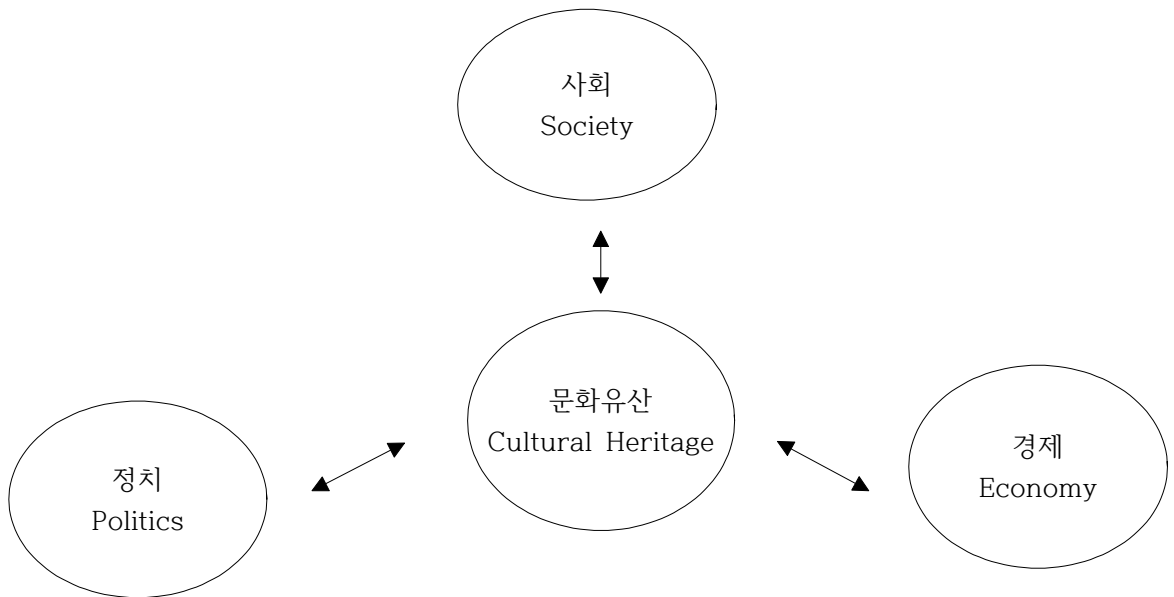


그림 5-1: 역동적인 삼각형(Bendix(2008: 260)가 소개한 유산의 세 가지  
 위치를 그대로 참고 하였음)

그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지속가능한 발전에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유엔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2030 의제”의 17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 중에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인 목적을 강조한다. 그래서 한번 유네스코의 등재가 되면 무형문화유산은 전과 다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유네스코의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 안에서만 행했던 문화유산이 아니라 세계가 인정하는 유산이 되는 것이다. 이런 문화유산에 국가는 직접 개입함으로 경제 발전의 수단으로 사용된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경제 발전을 원하지만, 상업성을 지지하지 않는다. 모순되게도 유네스코는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을 통해 경제와 사회 발전이 되기를 기대한다. 유네스코는 경제적인 활성화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지속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기지시줄다리기는 등재된 이후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활성화하고 있을까? 연구자가 현장 연구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기지시줄다리가 유네스코에 등재된 이후로부터 아주 먼 데에서도 구경하러 온 관광객들의 수가 많아졌다는 것이다. 특히, 나이가 어린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의 수가 많아졌다. 부모님은 어린이들이 한국의 문화를 알고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데리고 왔다고 하였고 청년들은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보고 배우고 싶은 마음에 참석하였다고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다시 했던 기지시줄다리기 민속축제에 예상한 것보다 수천 명이 더 참석한다.

####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B-G(남)씨와 인터뷰를 중에서

이번 축제를 3년만의 한 축제라서 걱정이 많이 되었어요 사실. 오랜만에 한 거라, 찾아와 주실지도 걱정이고, 안 오면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끌고 줄다리기할건지 사실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였죠. 코로나가 아직 종식 된 게 아니라서 아직도 거리두기가 있잖아요. 거리두기가 있는 상황에서 조심스럽기도 하고, 일단 인근에 있는 지역들에게는 공지를 했거든요(참석하도록 초대). 그래서 이번에는 줄도 짧게

만든 거예요. 혹시나 또 관광객들이 없으면 끌고 나가는 일이 문제 될 것 같았는데, 근데 생각보다 너무너무 많이 오셨죠. 먼 데에서도 찾아오신 분들이 계셨고요. 저희가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셔서 정말 성공적인 줄다리기 행사를 했던 것 같아요. 정말 3년만이었지만, 정말 축제다운 축제를 한 것 같아요.

#### 기지사줄다리기 축제에 참석했던 외국인(몽골) 관광객 H-T(남)씨와 인터뷰 중<sup>80)</sup>

연구자: 당진에 사시는 분들인가요?

H-T씨: 네, 회사 일 때문에 당진에 몇 달 동안 살고 있습니다.

연구자: 기지사줄다리기 축제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H-T씨: 회사 사람이 알려줘서 시간 내서 와봤어요. 생각보다 큰 축제군요. 줄 만들기 체험에 참석했는데 재미있었어요. 한국에는 문화다 너무 다양한 것 같고 재미있어요. 한국에서 좋은 경험을 하네요.

#### 기지사줄다리기 축제에 참석했던 관광객 J-T(남)씨와 인터뷰 중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놀러왔어요. 당진에 살고 있진 않구요. 여기 근처 아산에서 왔어요. 기지사줄다리를 TV에서 세계유산이라고 봤는데, 당진이 가깝기도 하고 이번에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한다고 해서 놀러 왔어요. 코로나 때 여기저기 가지도 못하고 우리 애들이 우리나라 문화를 보고 배우면 좋을 것 같아서 일찍부터 왔어요. 저는 힘들어서 줄을 당기다가 중간에 포기했는데 우리 첫째는 계속 끝까지 하더라고요. 줄 열심히 당기고 이기기까지(수상이 이겼음) 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런 좋은 체험 하니까 애들도 우리나라의

---

80) 연구자는 축제를 시작하기 전에 외국인 관광객들과 박물관에서 만나게 되어 영어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영어 인터뷰 내용을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문화에 대한 많이 배울 것 같아요.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참여한 관광객 중에서는 위의 인터뷰 내용과 같이 어린 아이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왔다고 하는 사람들과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는 어릴 적의 향수 때문에 찾아온 사람들, 인근의 마을 사람들, 그리고 소수의 외국인이 있었다. 연구자는 축제 기간에 남녀노소 구분 없이 많은 관광객을 만날 수 있었으며, 외국인 관광객들도 만날 수 있었다. 2022년에는 관광객들이 많았기 때문에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 인터뷰에 말했던 것처럼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 관광객들이 없었으면 줄을 당기는 일도 불가능하고 줄다리기의 핵심인 줄 당기는 시합도 불가능했을 것이다. 하지만 경제 발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아직은 기지시줄다리기를 통해서 인근의 사람들이나 당진시가 직접적으로 이익을 받은 것은 없지만 이대로 축제가 커지고 관광객들의 수가 많아지면 가까운 미래에 경제적 혜택도 볼 수 있을 것이다.

기지시줄다리는 유네스코 등재 이후 유명해지면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도 점점 커지고 있으며 관광객들의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작년(2023년) 기지시줄다리기 축제에서는 코로나가 완전히 없어진 상태로 열렸기 때문에 작년보다 두 배로 넘는 관광객들이 찾아왔다고 한다. 즉, 기지시줄다리기 축제는 점점 커지고 점점 활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목적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이다(제1조). 무형문화유산은 잘 보호가 되어야지 활성화가 될 수 있으며 전승이 된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2조 정의에서 제3조에 보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나와 있다<sup>81)</sup>.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 제14조 교육·인식 재고 및 능력 형성을 보면<sup>82)</sup> 유네스코 무형문

---

81) “보호”라 함은 특히 무형문화유산의 감정·기록·연구·보존·보호·증진·고양·특히 공식적·비공식적 교육을 통한 전수 및 이러한 유산의 다양한 면모의 활성화 등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디 위한 조치를 말한다.

82) 당사국은 모든 적절한 수단을 통하여 다음을 위하여 노력한다.

가) 특히, 다음의 방법을 통한 사회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인식·존중 및 고양의 보장

화유산 보호 협약에서 확인했듯이 유네스코는 등재된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을 위한 당사국은 다양한 사업들을 통해 교육 프로그램을 해야 한다. 특히 교육은 젊은 세대 또는 다음 세대를 중심으로 해야 하며 공동체 내에서도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사람들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에 힘을 쓰도록 한다.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도 공식적·비공식적 교육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활성화하는 일을 하고 있다. 즉, 보존회의 회원들은 매월 11일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진행하며 기지사줄다리기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역사, 줄 제작, 제사, 전승 방법 등에 대하여 자세하게 교육하고 있다. 기지사줄다리기는 개인 종목같이 아주 오랜 시간을 들여서 배워야 하는 기·예능 무형문화유산이 아니기 때문에, 보존회의 회원이라고 해도 지식이 부족한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매월 만나서 교육하면서 더 올바른 전승을 하도록 목표하고 있다. 보존회의 매월 행사는 공식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회원들도 특별한 사정이 아니면 다 참석한다. 이 모임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1년에 한 번 하는 기지사줄다리기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두는 것이다. 1년에 한 번 행사 시절 때 열심히 하다가 그 외에는 신경 쓰지 못해 전승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기지사줄다리기 보존회는 보존회 안에 있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지사줄다리의 올바른 전승 및 보호를 힘을 쓰면 이런 프로그램을 해왔다.

그 다음은 바로 기지사줄다리기에 대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이

- 
- (1) 일반대중, 특히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식제고 및 정보 프로그램
  - (2) 관련 공동체 및 집단 내의 특정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
  - (3) 무형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관리 및 과학적 연구 등 능력형성 활동
  - (4) 비공식적 지식전수 수단

나. 이러한 유산을 위협하는 위험과 이 협약에 따라 수행된 활동의 일반대중에 대한 홍보

다. 무형문화유산의 표현을 위하여 존재할 필요가 있는 자연 공간 및 기념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교육의 증진



다. 기지시줄다리기는 한국의 국가 문화재이면서 전 인류의 무형문화유산이다. 세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이지만 인근의 학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다. 무형문화유산의 가장 중요한 방식은 바로 교육이다. 특히 학생들을 가르치게 어릴 때부터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며 중요성을 알게 되고 나중에 가서 무형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을 한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유네스코 협약 제14조를 따라서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당진시 인근에 학교들과 협력을 맺어서 초등학교 3학년 과정에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보존회의 회원 중 기지시줄다리기의 이론과 전반적인 내용을 아는 회원이 인근의 학교에 가서 한 달에 한 번씩 특별한 수업을 한다. 이 수업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이론을 가르치며 직접 체험할 기회도 제공한다. 한국의 줄다리기만 아니라 한국과 같이 공동 등재된 줄다리기에 대해서 가르친 결과로 나라가 다른 아이들이 서로의 문화를 존중할 수 있게 된다. 당진시는 최근 들어서 도시화하기 시작했지만 아직 농촌 사회이다. 그런데도 당진시는 의외로 다문화 가족들이 많이 살고 있다. 이런 학생들이 학교에서 소외감 들어서 말 못하는 경우가 많다. 다문화 가족 중에서 줄다리기가 공동 등재된 나라에서 온 아이들도 많다. 이런 아이들에게 자기 나라의 좋은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서 한국의 줄다리기와도 비교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이 집중하고 다문화 가족의 학생들이 소외감을 덜 느끼며 수업을 활발하게 참여한다. 문화 상자를 가지고 수업하게 되니 학생들도 자기 나라에 있는 줄다리기에 관해서 설명하고 자부심을 가지게 되면서 친구들하고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을 활성화하고 지속적인 전승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 지원이다.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을 위해 적절한 홍보가 있어야 하며 교육 프로그램과 역량 강화하는 세미나, 축제, 전시 등을 통해 보호가 이루어진다. 하지만 이런 보호 방식은 큰 예산을 필요로 한다. 실제 전승자들이 있고 관광객이 있어도 이런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지원금이 없으면 전승이 어려워진다.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이해관계자들이나 공동체 전승자와 전승 주체만 열심히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다. 전승

기반 활동을 위해 결론적으로 지원금이 필요하고 지원금을 주는 지자체가 필요하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제6장은 무형문화유산기금에 대한 협약에서 무형문화유산의 프로그램을 위한 지원하는 기금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긴급보호목록에 포함되는 유산의 보호와 목록을 만드는 일을 우선순위로 지원한다. 유네스코의 기금을 받으려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신청서 및 절차가 있다. 기지시줄다리기의 보호, 전승을 위해서는 유네스코에서 따로 지원받지 않고 있으며 지방 지자체의 지원금을 받아서 전승하는 것에 힘쓰고 있다<sup>83)</sup>. 지방 지자체가 기지시줄다리를 지원하는 이유는 바로 기지시줄다리는 당진시를 대표하는 축제이기 때문이다. 당진시에서 공개된 자료를 보면, 당진시는 적극적으로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을 위하여 기지시줄다리기의 축제, 보존회에서 하는 사업, 박물관에 필요한 것까지 다 지원하고 있다. 지방 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금으로 기지시줄다리기의 활성화가 안 끊기고 지속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의 제1조의 4개 목적 중의 하나가 국제적 협력 및 원조 제공이다(제1조, 라 참고). 유네스코는 협약을 만들면서 다양한 나라의 무형문화유산끼리 서로 협력하며 “정보와 경험의 교환, 공동사업 및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당사국의 노력”을 바라고 있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인류공통의 관심사임을 인식하고 이를 위하여 지역 및 국제적으로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제5장 제19조 참고). 무형문화유산 간의 협력은 전승이 쇠퇴해지고 있는 유산을 살리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협력이 이루어지면 서로 전승방식을 나누면 배우고 또 가르치며 역량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네스코는 비슷한 무형문화유산 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동등재 방법도 만들었다. 그 후 비슷한 문화권의 유산들을 당사국들의 협의로 공동 등재를 하도록 권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도 한국의 6개의 줄다리를 포함하고 베트남, 필리핀 그리고 캄보디아와 공동 등재되었다.

---

83) 당진 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https://www.dangjin.go.kr/kor.do>) -> 정보공개로 들어간 후 -> 예산에 들어가 -> 문화관광에 들어가면 최근 5년간의 예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연구자는 이 파일을 확인 한 바탕으로 말한 것이다.

기지시줄다리기는 “한국 전통 민속 줄다리기 전승 단체” 이름으로 1년에 한번, 한국 안에 있는 줄다리기들과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이런 세미나의 목적은 서로 소통하면 전승 현황을 나누고, 전승이 어려워지고 있는 줄다리기를 돕는 것이다. 매년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세미나는 기지시줄다리기가 주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2014년에 결성된 이 단체에서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에서 연합회장과 사무국장을 맡아서 협회 운영을 해왔다. 다른 줄다리기의 소극적인 참여를 피하고자 2018년 이후부터 영산줄다리기에서 연합회장을 맡고 기지시줄다리기가 부회장과 사무국장을 맡고 있다. B-G 사무국장은 앞으로 한국의 다른 줄다리기들이 국가무형문화재나, 시·도 문화재에 지정되면 우리 단체에 등록해서 함께 성장하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 전통 민속줄다리기 전승 단체는 줄다리기의 현황을 보고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또 영감을 받아서 열심히 전승하는 것을 도와서 줄다리기가 활성화하도록 돕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이 공동 등재되기 위해서는 국제 교류가 필수적이다. 해당 국가, 공동체 간에 소통이 있어야한다. 서로를 알기도 전에 공통의 목적을 공유하기가 어렵다. 교류를 위해 공감대에 더불어 비용과 시간 그리고 소통이 필요하다. 연합회는 국제교류의 중요성 깨달아서 국제교류를 시도하였다. 연합회는 해외에 있는 줄다리기와도 문화교류를 하므로 국제협력과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를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2018년에 베트남 교류사업을 하기 위해 국립문화유산원에서 지원받아 연합회에서 24명, 전문가 4명을 포함하여 베트남 전통줄다리기 전승현황 관찰하고 한국 그리고 베트남 전통줄다리기 교류를 위해서 세미나, 시연행사를 했었다. 세미나를 통해 베트남 줄다리기에 역사, 유래에 대한 배우고, 베트남 사람들과 함께 줄다리기 시연을 함으로써 줄다리기를 통해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이었다고 H-G 회장이 말했다. 서로 나라가 다르고 문화와 언어가 다르더라도 줄다리기 하나만으로 친해질 수 있는 좋은 경험이었다.

베트남에서도 한국 방문해서 한국의 줄다리기에 대한 전승 현황을 보고 역량 세미나를 했다. 베트남 전승자들이 한국의 전승 방법 그리고 연합회를 직접 보고 한국의 전승 방법을 따라서 2020년에 베트남에서 연합회를

설립하기도 하였다.

2019년에는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에서 필리핀 푸눅 교류 사업을 실시하였다. 한국에서 전승자들이 직접 필리핀으로 방문해서 필리핀의 줄다리기를 직접 보고 경험하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방문 기간에 한국과 필리핀과의 줄다리기 워크숍, 줄다리기 시연 등을 함으로 전승자들끼리 서로 줄다리기는 방법을 보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기지시줄다리기는 이러한 교류 사업을 통해 더 열심히 전승하는 영감을 받게 되어서 매해 교류 사업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코로나 기간에는 서로 교류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온라인으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각 나라에서 줄다리기에 대한 지식이 있는 전문가들이 나와서 줄다리기의 현황 전승 과정, 약점 등을 소개하면 서로 교류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네스코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가 중간 역할을 하면서 서로 협력 네트워크를 하도록 돕고 있다. 이러한 국내 또는 해외 교류 행사들은 줄다리기 전승자들끼리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을 더붙어서 줄다리가 활성화하도록 돕는다.

이상 유네스코가 중요시하는 교육, 그리고 전승을 위해 필요한 지원금, 마지막으로 다양한 나라와 문화교류를 중심으로 지속되고 활성화되는 기지시줄다리를 살펴보았다. 기지시줄다리는 한국 고유한 문화의 일부로서 많은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지금은 예전과 같은 의례적이고 신앙적인 의미가 많이 없어졌지만, 아직도 기지시줄다리는 잘 전승이 되어서 주변의 다른 줄다리기들에 선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해서 문화유산을 지키고자 하는 기지시줄다리는 활성화되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전통의 가치를 보존하고 널리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장을 마무리하면서, 무형문화유산 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계속해서 강조가 있었지만, 모든 것이 관리되는 것은 아니다. 관리를 위해서는 먼저 무형문화유산이 선택되어야 하며, 그 후에 관리가 이루어진다. 이에 인해 소멸하는 무형문화유산도 여전히 존재한다(최종호 2016: 198).

## 제 5 장 결론

본 논문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면 기지시리에서 행해지고 있는 기지시 줄다리기의 전승과 유네스코의 등재된 것을 출발점으로 삼았다. 유네스코 2003년 협약이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 그리고 공동체의 참여가 실제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기 위해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 회원들, 기지시리 마을 사람들, 관광객들, 박물관 학예연구사 등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본 논문은 무형문화유산의 등재 이후의 전승 상태에 대하여 연구들이 많지 않은 점을 분석하고 실제 등재하는 과정과 전승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한 것이다.

우선 무형문화유산은 선조로부터 물려받아서 후손에게 넘겨줘야 하는 공연 예술, 사회적 관습·의례·축제·행사 등을 뜻하며 이는 형태가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밀접하게 상호작용하고 존재하는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다.

유네스코는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을 위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였다.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은 무형문화유산의 보호 및 전승은 공동체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다. 그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등재하는 과정에도 공동체의 참여를 중요시하고 있다. ‘공동체’는 무형문화유산을 창조하고 전수하며 보호하는 전승 주체를 뜻한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당사국은 공동체의 참여한 방식, 동의 문서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이 잘 전승되고 존중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야 만이 등재할 수 있다 (Rudolff & Raymond 2013: 126). 즉,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는 것은 당사국이 하되 공동체를 참여시키는 것을 중요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국가와 유네스코를 통해서 관리되어 왔다. 유네스코는 등재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한다. 그리고 유네스코는 국가 또는 당사국에게 영토 내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하며 목록 작성을 해서 유네스코에 등재시키도록 한다. 유네스코의 등재

된 무형문화유산은 국가의 가치를 높여주고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도록 돕기 때문에 국가는 문화유산을 관리함으로 보호하고 전승하며 유네스코에 등재하도록 노력한다. 즉, 유네스코와 국가는 무형문화유산을 정해진 제도 안에서 보호하고 전승하며 관리를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으나 관리를 하게 되면 고정화 또는 화석화될 수가 있다. 왜냐하면 정해진 제도의 범위 안에서만 전승 및 보호 활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문화관리주의자들이라 볼 수가 있다. 반면 자연 그대로 두자는 학자들은 문화자연주의자들이다.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화석화하는 것과 관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단절 또는 소멸을 방지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기지시줄다리기를 통해 공동체의 참여가 어떤지 그리고 유네스코 등재의 영향에 대한 살펴본 다음에 무형문화유산의 양면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다. 연구자는 기존에 나와 있는 자료들에 의지하는 것보다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의 규정과 실제로 나타나는 현실을 전승주체인 공동체의 사람들과 인근 마을의 사람들, 관광객들과 인터뷰 및 참여관찰을 실시하였다.

본론에서는 먼저 무형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보호, 전승 그리고 관리하는 유네스코 당국이 오늘날의 자리를 잡을 때까지의 긴 여정을 검토함으로써 유형문화유산만이 유산으로 생각했던 서구사회들을 비판하고 토착공동체의 사람들과 비서구 사회의 사람들의 문화를 존중하며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무형문화유산의 보호를 시작한 과정을 회고했다. 그것은 바로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을 채택하게 된 출발점이다. 유네스코는 세계유산과 동일한 “등재” 방식을 택하였으며 이러한 정해진 제도 또는 정책 안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이루어지면 고정화, 화석화될 수 있는 학자들의 염려들을 살폈다. 반면의 “등재”를 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보호가 가능한 것을 살펴면서 등재를 지지하는 학자들의 논문들 또한 참고했다. 즉, 무형문화유산은 관리가 되어서 등재되는 것은 장단점을 가지는 양면성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특징들을 검토하기 위해 보다 최근에 유네스코의 등재된 줄다리

기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에서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세계의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는 과정을 연구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는 한국의 6개의 줄다리기와 함께 캄보디아, 베트남 그리고 필리핀과 함께 공동 등재를 하였다. 한국이 대표해서 유네스코에 공동 등재를 주도한 것은 줄다리가 처음이었지만 유네스코아태무형문화센터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인해 줄다리는 공동등재가 더 쉽고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다. 그 외에 기지시줄다리기의 등재를 위한 적극 참여와 노력으로 인해 한국 안에서 다른 줄다리기와의 꾸준한 소통을 통해 협력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 전통 민속 줄다리기 전승 단체 연합회”가 만들어졌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적극적인 참여와, 유네스코 공동 등재 제안했던 유일한 단체이었기 때문에 연구자는 기지시줄다리를 중심으로 해서 연구를 시작하였다. 등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이 연합회는 한국 안에 있는 국내의 국가 지정, 시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줄다리기 사이 자율성을 보장하며 협력을 통해 전승의 활성화 및 상호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이 단체는 매해 모여서 연합회 구성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해 왔다. 줄다리가 유네스코 대표목록에 공동 등재된 이후부터 자주 모여 줄다리를 활성화는 일이 지속되고 있다.

유네스코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과 보호는 공동체의 동의와 참여 속에서 진행되어야한다고 강조한다. 공동체는 기술, 지식, 공예 등을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여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한다. 유네스코 협약 또한 여러 번 중요하다고 언급한다.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에는 공동체인 마을은 현재 전승에 참여하지 않는다. 원래 주 전승자였던 기지시리 마을의 사람들은 현재 줄다리기의 전승에 소극적이다. 그 이유를 연구자는 두 가지로 설명하였다. 하나는 급속도로 변화하는 현대사회로 인해 지역 이동이 많아지면서 원래 기지시리 사람들이 거의 없어졌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무형문화재보호법이 요구하는 전문적인 전승자의 필요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현재 전승 주체로 기지시줄다리기의 모든 전승 활동을 책임지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보호 및 필요한 다양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을 위해 매년 축제가 열리는데 이 축제를 잘 계획하기 위해 축제

위원회가 있다. 두 단체가 기지시줄다리기 행사를 준비하다 보니 둘의 관계를 정리하기가 애매하다는 것을 현장 연구를 하면서 느낀 점을 소개했다.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 또한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을 위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 박물관에서 기지시줄다리기 축제가 열리고, 보존회 또한 축제위원회의 사무실도 들어가 있다.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유래, 전승 과정 그리고 실제 줄은 축제 기간이 아닌 시간에도 관광객들에게 줄다리기에 대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전승 주체라고 소개하였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기지시줄다리기의 전승을 위해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다. 인근 학교에서 교육하는 것을 포함해서 달마다 전수생을 교육함으로써 줄다리기의 역사, 줄 제작, 줄 고사 등의 의미와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 유네스코 등재할 때 공동체의 참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등재 때 공동체가 직접적으로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등재를 위해서 제안은 하였으나 그 후의 모든 것은 당사국이 직접 하였다. 등재 과정에서 당사국은 아직도 공동체의 참여에 관한 협약의 규정을 고려하지 않고 개입을 한다. 실제 줄다리기가 등재하는 당시에, 공동체는 참여한 것이 동의서에 서명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지나친 당사국 또는 국가의 간섭은 협약에서 요구하는 무형문화유산의 생명력을 보장하는 목적에서 어긋나기도 한다. 그런데도 기지시줄다리기는 전승에 힘을 쓰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원래 본질대로 변화하는 성격을 가진다. 이는 환경에 따라, 전승하는 사람들을 따라, 그리고 정책에 따라서 변화하게 된다. 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도 그동안 시대의 변화 그리고 무형문화재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왔다. 연구자는 기지시줄다리기가 유네스코에 등재한 후에 어떠한 영향을 받아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보존회의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였다. 하지만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 유네스코의 등재를 인해서 생긴 변화들은 없었다. 유네스코는 아주 멀리 있기 때문에 사실 큰 영향을 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유네스코의 타이틀을 가지고 다양한 사업들을 함으로써 전승을 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줄다리기는 공동 등재되었기 때문에 문화가 다른 나라들과 협력해서 줄다리기의 전승에 대한 논의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세미나도 이루어지고 있다.

유네스코의 등재 하는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인 손길이 없으면 쉽게 등재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한다.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금이나 시간은 일반 공동체의 전승자들이 따로 마련에서 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한국같이 무형문화유산의 관리제도가 잘 되는 나라에는 공동체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전문가들이 알아서 잘해준다. 하지만 연구자는 이러한 방식이 협약이 추구하는 방식과는 다르다는 점을 지적한다. 당사국은 목록 작성하는 과정과 등재하는 과정에서 공동체를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제도를 조치해야 하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참여를 고취해야 한다. 등재하는 것에 공동체의 참여가 있으면 공동체도 유네스코의 전승 및 관리에 대한 지식도 많아지고 전승에 대한 이해도도 더 높을 것이다.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 초반부터 공동체의 참여도가 없으면 등재되고 나서도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데 지식이 부족하고 전승하는 데에 참여도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 당사국이 직접 나서서 목록을 작성하면 등재하는 것에는 실패가 없을 수 있지만 이는 등재의 수만 올리는 것이지 주 전승 주체인 공동체에는 어떤 이익도 주지 못한다. 오늘날 유네스코의 등재되는 것은 명성의 일이며 한 국가의 자랑이다. 그래서 각 국가가 경쟁하면서도 등재하고 등재 목록의 수를 늘리려고 한다.

그러나, 가장 기초적으로 중요한 공동체의 참여가 없이 등재하는 것에만 집중된 현실을 비판하여 연구자는 차라리 등재 자체를 없애는 것이 공동체에는 유익하다고 생각한다. 유네스코의 본 취지와 다르게 등재의 수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보다는 아예 안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된다. 공동체는 공동체대로 전승하게 두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등재를 한다고 하더라도 등재 공동체의 참여를 신경 써서 등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등재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전승하도록 공동체를 도울 수 있을지에 목표를 두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연구자는 보존회가 만들어서 주 전승자로 일하는 것이 잘 못 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가 없

없더라면 기지시줄다리기도 없었을 것이거나 현재 긴급보호목록에 등재되어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유네스코의 등재 기준은 서양 나라나 일본에 맞춰져 있으며 한국 같이 식민지를 거친 나라와 제3 세계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협약과 현실이 다른 유네스코의 보호하는 제도만이 비판의 대상자가 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무형문화유산의 제도가 원하는 것과 실제 전승되는 상황이 다른 것에 대한 그동안 학자들 사이에 비판들이 많았다. 연구자는 등재 과정에서 공동체를 참여 안 시킨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미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 같은 무형문화유산의 경우에 공동체의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 사회에 공동체는 점점 없어지거나 소극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기지시줄다리기만 해도 마을 사람들은 예전만큼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 공동체의 사람들만이 아니라 국가나 학자들 또한 공동체를 살리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공동체가 살아있어야지 무형문화유산이 살아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보존회를 따로 만들어서 전승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보존회의 전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다.

연구자는 무형문화유산이 어떤 형태로든 관리가 된다고 생각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유네스코가 만든 제도나 국가의 제도로 인해 관리가 되며, 전승 주체인 공동체의 전승방식에 따라 관리가 되기도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하는 것은 양면성을 가진다. 즉, 관리를 하게 되면 정해진 제도나 정책 안에 전승 또는 보호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변화하는 것을 막는다. 무형문화유산은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하게 되면 정해진 방식으로만 전승이 된다. 그러면 변화를 겪지 못한다. 이런 면을 화석화되는 무형문화유산이다. 무형문화유산의 화석화되는 것은 비판의 대상이지만 무형문화유산을 관리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이 소멸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다.

무형문화유산은 유형유산과 다르게 형태가 없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지 않으면 쉽게 소멸하거나 훼손할 수 있다. 가끔은 무형문화유산의 변질이 심해서 원래의 전승된 방식과 전혀 다르게 전승이 될 때도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은 정해진 제도(등재)가 없으면 아무도 모르게 사라질 수 있는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는 필수적이다. 기지시줄다리기도 그동안 관리되어 왔으며, 한국의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하고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전승될 수 있었다.

그 다음에는 무형문화유산을 등재하고 관리하면 무형문화유산은 화석화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되도록 돕는다는 것을 설명하였다. 연구자는 유네스코의 제도가 어떻게 무형문화유산을 활성화되는지를 기지시줄다리기 관광객의 증가, 전승을 위한 필요한 지원금 그리고 문화유산 교류, 이 세 가지를 기지시줄다리기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았다. 이것이 바로 본 논문이 강조하고 싶은 쟁점이다. 유네스코의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는 시간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소멸하지 않는 이유로 바로 유네스코에 등재된 유산이 관광객들을 불러오기 때문이다. 실제 기지시줄다리기도 예전보다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무형문화유산의 활성화가 가능해지고 있다. 그다음에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기지시줄다리기는 활성화되고 있다. 교육은 유네스코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형문화유산 보호 방식이다. 기지시줄다리기 보존회는 인근 학교 학생들과 보존회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들은 기지시줄다리기가 활성화되도록 돕는다. 기지시줄다리기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 지자체인 당진시와 대한민국 정부도 기여한다. 당진시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전승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원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기지시줄다리기는 매년 열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를 통한 활성화이다. 공동 등재를 권고하는 유네스코는 국가간 협력과 교류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의 보호하기 위해 서로 돕도록 권장한다. 기지시줄다리기는 한국 안에 있는 줄다리기와는 물론이고 해외에 있는 줄다리기 보존회과도 교류사업과 역량 강화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서로 돕고 이해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이런 자리 덕분에 문화가 다른 나라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논의하며 줄다리기의 전승 방법을 나누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연구자는 본 논문을 통해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공동체의 실제 역할이 어떠한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네스코의 등재와 관리는 무형문화유산의 화석화만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활성화하도록 돕는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연구자는 지나친 문화자연주의나 문화관리주의의 생각을 없애야한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무형문화유산은 자연 그대로 놓을 수도 없으며 온전히 관리할 수도 없다. 이것은 무형문화유산이 처해있는 상황에 맞춰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가서 연구자는, 유학생 연구자로서 한국의 문화유산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은 현재 무형문화유산의 관리를 아주 잘되고 있으며 모범적인 사례라고 본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관리 방식을 전 세계에서 칭찬하고 따라 할 정도이다. 한국 국가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으로 인해서 한국은 전쟁, 일제강점기 같은 시대를 지나고서도 무형문화유산을 복원하는 것에 성공하였다. 문화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문화를 살리는 것을 높게 칭찬한다. 하지만 연구자는 한국이 현재 무형문화유산 전승을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연구자는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한국의 무형문화유산의 전승 방식의 문제를 살펴보면서 그 문제들의 해결 방법 또한 살펴보려고 한다.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국내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을 잘 이루고 있지만 국제적인 시장에서도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대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의 현실을 보면 등재하는 것 그리고 등재 이후 그 문화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익들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실제 전승 과정은 아직도 소극적으로 느껴진다. 그리고 등재된 이후에 관심은 너무 부족하다. 한국은 무형문화유산 등재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등재하기 위한 철저하게 준비시킨다. 유네스코에 등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준비하게 시키며 전문가들의 손길을 도움 받아서 무형문화유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도록 노력한다. 하지만, 연구자의 현장 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 국가가 무형문화유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 관심은 등재까지이다. 한 번 등재하면 그 후에는 별 관심을 가지지 않는다. 등재 이후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몫은 각 공

동체의 것이다.

기지시줄다리기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등재하기 전에는 다양한 노력을 하였지만 등재한 이후에는 국가가 한 노력을 볼 수가 없다. 한국의 상황을 살펴보면 무형문화유산을 지정하는 것이 우선이긴 하나 지정을 한 후에 그냥 두면 안 된다. 기지시줄다리기가 세계 무형문화유산으로 대표목록에 추가된 후 달라진 점은 그냥 타이틀이 바뀐 것과 무형문화유산 홈페이지에 소개된 몇 줄과 기사 몇 개뿐이다. 대한민국의 정부는 무형문화유산의 등재에 노력하는 만큼 홍보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공동체와 일반 사람들도 그만큼 관심이 없고 참여도 소극적이다.

한국의 이웃 나라인 일본의 사례에 주목하자.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방법의 비교에 대한 통해 이런 문제를 해결 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문화재보호법은 일본의 문화재보호법(1950)을 차용하면서 성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나라의 정치적이거나 사회적 상황에 따라 무형문화재 제도가 조금씩 바뀌어 왔다(정수진 2014). 일본도 한국과 같이 국가 중심으로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이 이루어지고 있다. Cang(2007)은 그의 논문에서 마츠리 축제를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일본의 무형문화유산 전승에 일반 공동체의 참여가 높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신토 전통이 일본의 역사적, 지역적, 정치적, 사회적 및 종교적 조직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자신의 유산뿐만 아니라 정체성에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전통 유산을 선택하고 식별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그 중 공동체가 중심에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일본의 무형문화유산은 일반 사람들 대상으로 되고 있다.

한국은 일본처럼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일반 공동체 사람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일본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다른 사람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문화유산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자면, 관광객들을 위해서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알고 전승하는 것에 참여한다. 그들은 외부 관광객의 참여를 환영하더라도 절대로 대상자로 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한국의 기지시줄다리기 축제 행사를 보면 기지시리 마을의 사람들

또는 인근의 사람들끼리 하는 것보다 관광객들 대상으로 축제로 진행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2015년에 유네스코에 등재된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한 아는 한국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당진에 사는 사람들은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해 알 수도 있겠지만 한국 전 국민이 기지시줄다리기에 대해 알고 있을까? 연구자는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리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개인주의가 심하고 바쁜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가 아니면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무형문화유산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열심히 해야 한다. 한국 국가는 등재 이후 무형문화유산을 충분히 홍보하는 데에 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해서 교과서에도 실려 있지 않고, 국가가 국민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에 대하여 알려주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은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배우지 못하며 잘 알지도 못한다.

한국에서 무형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면 뉴스 보도 자료로 나오는 것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설명과 영상, 그리고 저서들에 대한 정보가 간단하게 올라와 있다. 연구자는 한국이 홍보하는 것에 소극적이며 앞으로는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본다. 무형문화유산의 올바른 전승은 등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만약에 다음 세대인 학생들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교육을 하지 않으면 무형문화유산은 소멸하게 될 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은 예전에 비해서 무형문화유산을 홍보하는 것에 관심도 많이 갖고, 다양한 방식들도 시도하고 있지만 일본과 비교하면 아직 홍보에는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일본은 다른 나라들과 대비하면 비교적 근대화를 맞이해서 사회적인 환경과 정치적인 환경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은 멈추지 않고 있다. 일본의 무형문화유산을 전승하는 것을 살펴보면 국가, 공동체, 일반 시민들 등은 무형문화유산의 전승에 아주 적극적이다. 일본은 그냥 등재에만 신경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국가나 지자체가 홍보에 아주 적극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에는 NHK 방송국<sup>84)</sup>에서 일본의 문화유산들을 적극적으로

84) NHK는 일본의 공영 방송국으로, 일본에서 가장 중요한 미디어 중 하나이다. NHK는 일본어와 영어 등 다양한 언어로 방송을 송출하며, 뉴스, 드라마, 예능, 문

방송하고 사라져 가는 민요들을 수집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임혜정 2015). 국가뿐만 아니라 지자체들 그리고 NGO 들도 교육과 보급, 문화 등의 전승에 활발하게 일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또한 무형문화유산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좋으나 관리를 할 거라면 제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국가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국가가 직접 하지 못하는 영역들은 공동체의 사람들, 시민들, 또는 NGO 들에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문화유산의 수만 늘어나지 진짜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는 사라질 것이다.

---

화 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NHK는 일본의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역할도 한다. NHK는 무형문화재를 소개하는 프로그램과 함께 일본의 전통 예술, 공예, 음악, 춤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생산하고 방영한다.

# 참 고 문 헌

## 1. 단행본

강정원. (2022). 아시아의 무형문화유산 : 정책과 제도, 정체성 / 강정원 엮음 ; 강정원 [외]지음.

이인화. (2009). 무형문화재 제 75 호 기지시 줄다리기의 사회 환경적 재검토-이벤트에서 문화재까지. 한국사진지리학회지, 19(4), 157-170.

허동성, & Unesco. (2019). 무형문화유산의 이해:(한국어판)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 [Unesco] ; 허동성 번역.

함한희. 20세기민중생활사연구소. (2012).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 전승·보전 그리고 인벤토리 / 함한희 엮음.

Aikawa-Faure, N. (2008). From the proclamation of masterpieces to the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Intangible heritage* (pp. 27-58). Routledge.

Bendix, R. F., Eggert, A., & Peselmann, A. (2013). *Heritage regimes and the state*. Universitätsverlag Göttingen.

Bendix, R. (2008). Heritage between economy and politics: an assessment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anthropology. In *Intangible heritage* (pp. 267-283). Routledge.

Cang, V. G. (2007). Def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stakeholders: the case of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2(4), 45-55.

Choay, F., & O'Connell, L. M. (2001). The invention of the historic monument.

Denhez, M. C., & Denhez, M. (1997). *The heritage strategy planning handbook*. Dundurn.

Dittmer, L. (1981). The strategic triangle: An elementary game-theoretical analysis. *World Politics*, 33(4), 485-515.

Dorson, R. M. (2013). Folklore and Fakelore. In *Folklore and Fakelore*.



- Harvard University Press.
- Hafstein, V. T. (2008). Intangible heritage as a list: from masterpieces to representation. In *Intangible heritage* (pp. 107-125). Routledge.
- Harrison, R. 2013. *Heritage: Critical Approaches*. Abingdon and New York: Routledge.
- Hobsbawm, E., & Ranger, T. (Eds.). (2012). *The invention of tradi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luckhohn, C. (n.d.). *Mirror for Man : The Relation of Anthropology to Modern Life*. Routledge
- Kuutma, K. (2012). Between arbitration and engineering: Concepts and contingencies in the shaping of heritage regimes. *Heritage regimes and the state*, 21-36.
- Lixinski, L. (2018). Intangible heritage economics and the law: listing, commodification and market alienation. In *Safeguarding Intangible Heritage* (pp. 54-67). Routledge.
- Logan, W. S. (2007). *Closing Pandora's box: human rights conundrums in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pp. 33-52). Springer New York.
- Lowenthal, D. (1998). *The heritage crusade and the spoils of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Nye, J. S., Jr. 2004. *Soft Power: The Means to Success in World Politics*. New York: Public Affairs.
- Nye, J. S., Jr. 2008. "Public Diplomacy and Soft Power."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 Nye Jr, J. S. (2016). *Bound to lead: The changing nature of American power*. Basic books.
- Smith, L. (2006). *Uses of heritage*. Routledge.
- Zhu, Y., & Maags, C. (2020). *Heritage Politics in China : The Power of the past / Yujie Zhu and Christina Maags*.

## 2. 논문

- 강정원. (2020a). 한국 민속문화 정책과 민속학-문재인 정부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72, 7-36.
- (2020b). 현대화와 민속문화, 민속세계-한국종교와 민속종교를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71, 7-45.
- (2021). 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양면성-김치와 김장문화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24(2), 371-396.
- 김윤지. (2016).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국가무형문화재 가치의 재인식과 쟁점 모색. 문화와 융합, 41, 201-226.
- 김지현. (2021).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보호 협약」과 한국의 「무형문화재법」에 대한 비교 분석적 고찰. 문화정책논총, 35(2), 31-57.
- 김형근. (201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기지사줄다리기의 전개와 향방-문화재에서 문화로의 의미 확장 측면에서. 무형유산, (3), 45-67.
- 김현정. (20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관리와 활용 현황에 대한 한일 비교 연구-김장문화와 와쇼쿠 (和食) 를 중심으로. 비교문화연구, 50, 197-224.
- 권봉관. (2019). 유네스코 등재 이후 조선족 농악무의 변화양상 고찰. 비교민속학, 69, 175-200.
- 권두현. (2017). 기지사줄다리기 축제기획 과제와 활성화 방안. 무형유산, (3), 69-90.
- 권숙인. (1996). 현대 일본사회와 지방의 아이덴티티 / 권숙인 저.
- (2017). “일하고 일하고 또 일했어요”-재일한인 1 세 여성의 노동경험과 그 의미. 사회와역사, (113), 41-82.
- 박선희. (2019). 문화다양성의 역설: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협약과 국가주의. 문화와 정치, 6(4), 85-112.
- 박재형. (2017). 지방 무형문화재의 재맥락화 과정과 보존회의 실천 : 서울시 마들농요를 중심으로.
- 박상미. (201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와 그 이후. 한국구술사학회 학술대회, 1-10.
- 배영동. (1996). 한국수저의 음식문화적 특성과 의의. 문화재, (29), 211-232.
- 서종원. (2011). 줄다리기 성격의 지속과 변화: 특히 근대 시기를 중심으로. 실천민속학연구, (17), 157-190.

- (2017). 기지시줄다리기의 인적 기반과 활성화 방안. 무형유산, (3), 21-44.
- 서해숙. (2010). 한국 줄다리기의 도작문화적 성격. 농업사연구, 9(2), 5-17.
- 송미숙. (2014). 한·중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관한 연구. 우리춤과 과학기술, 24, 9-34.
- 송지은. (2017).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등재 이후의 기지시줄다리기 발전 방향-지속가능한 발전적 측면에서. 무형유산, (3), 5-20.
- . (2004). 무형문화재와 민속 전승의 현실. 한국민속학, 40, 293-332.
- 오진희. (2015). 신흥사 극락보전 기단과 계단의 부조 조각. 강좌 미술사, 45(45), 35-52.
- 임돈희, & 로저 L.자넬리. (2005). 무형문화재의 전승실태와 개선방안. Pigyo Minsokhak, 438-456.
- 임재해. (2009).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39, 439-491.
- 임혜정. (2015). 근대 이후 일본의 민요 전승. 동양음악(구 민족음악학), 37, 57-78.
- 정수진(2015). 무형문화유산의 문화 정치학. 실천민속학연구(26), 287-318.
- 정수진, 남성호. (2015). 한·일 무형문화재 보존, 전승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전통공연예술학, 4, 193-224.
- 조정현. (2015). 세계문화유산 등재 이후 하회마을의 변화와 주민들의 대응 양상. 민속연구, (31), 363-384.
- 주도경. (2021). 유네스코, 국가, 지방정부-중국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사례를 통해 살펴본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제도의 지역적 적용. 동북아 문화연구, 67, 171-185.
- 허동성, & Unesco. (2019).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 (한국어판)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 [Unesco] ; 허동성 번역.
- 허용호. (2009). 무형문화유산으로서 민속극의 보존과 전승. 비교민속학, 39, 517-556.
- (2022). 유네스코 체제와 한국의 무형문화유산. 비교민속학, 75, 153-186.
- 하윤아. (2013). 김장하셨어요? \_'김치와 김장 문화'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앞두고. 인물과사상, 6-10.

한경구(2021). 무형문화유산 공동 등재 중요이슈. 무형문화유산 정책 동향과 국제 협력 방안.

함한희. (2016). 아리랑, 김치 그리고 국가주의. 비교민속학, 59, 411-438.

황경순. (2018).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공동등재제도의 이상과 현실. 영남학, (67), 113-140.

차기선. (1982). 한국의 줄다리기. 한국문화인류학, 14, 85-101.

차수정. (2016). 한국·중국·일본의 중요무형문화재 제도와 교육적 전승. 한국무용 연구회 국제학술발표논문집, 2016, 102.

Aikawa, N. (2004). An historical overview of the preparation of the UNESCO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 international*, 56(1-2), 137-149.

Arizpe, L. (2000). Cultural heritage and globalization. *Values and heritage conservation*, 32-37.

Brown, M. F. (2005). Heritage trouble: recent work on the prot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roperty*, 12(1), 40-61.

Handler, R. (2003). Cultural Property and Culture Theory. *Journal of Social Archaeology*, 3(3), 353-365.

Blake, J. (2006). Commentary on the UNESCO 2003 Convention on the Safeguarding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Blake, J. (2008). UNESCO's 2003 Convention 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implications of community involvement in 'safeguarding'. In *Intangible heritage* (pp. 59-87). Routledge.

Benhamou, F. (1996). Is increased public spending for the preservation of historic monuments inevitable? The French case. *Journal of cultural economics*, 20, 115-131.

Cang, V. G. (2007). Defin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its stakeholders: the case of Japa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2(4), 45-55.

Deacon, H., & Smeets, R. (2013). Authenticity, value and community involvement in heritage management under the world heritage and

intangible heritage conventions. *Heritage & Society*, 6(2), 129-143.

Harrison, R. (2013). Forgetting to remember, remembering to forget: late modern heritage practices, sustainability and the 'crisis' of accumulation of the past.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9(6), 579-595.

Holden, J., & Tryhorn, C. (2013). Influence and attraction: Culture and the race for soft power in the 21st century. British Council report. 39 p. British Council official website.

Kirshenblatt-Gimblett, B. (2004). Intangible heritage as metacultural production1. *Museum international*, 56(1-2), 52-65.

Kurin, R. (2007).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Key factors in implementing the 2003 Conven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2(8), 9-20.

Lenzerini, F. (2011).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The living culture of peoples.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2(1), 101-120.

Mohammad Razavirad, & Janet Blake. (2019). Reflection on Commercial Exploitation of Underwater Cultural Heritage with a Focus on UNESCO'S 2001 Convention. *Pizhūhish-i ḥuqūq-i 'umūmī : Pizhūhish-i ḥuqūq*, 21(64), 87-109.

Munjeri, D. (2004).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 From difference to convergence. *Museum international*, 56(1-2), 12-20.

Nakano, R. 2018a. "Heritage Soft Power in East Asia's Memory Contests: Promoting and Objecting to Dissonant Heritage in UNESCO."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17 (1): 50-67.

Nakano, R. 2018b. "A Failure of Global Documentary Heritage? UNESCO's 'Memory of the World' and Heritage Dissonance in East Asia." *Contemporary Politics* 24 (4): 481-496.

Nakano, R., & Zhu, Y. (2020). Heritage as soft power: Japan and China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 CP*, 26(7), 869-881.

UNESCO's 'memory of the world'and heritage dissonance in East Asia. *Contemporary Politics*, 24(4), 481-496.

- Nakano, R. (2018). Heritage soft power in East Asia's memory contests: promoting and objecting to dissonant heritage in UNESCO. *Journal of Contemporary Eastern Asia*, 17(1), 50-67.
- Nakano, R., & Zhu, Y. (2020). Heritage as soft power: Japan and China in international politics.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26(7), 869-881.
- Schreiber, H. (2017).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soft power exploring the relationship. *International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12, 44-57.
- Schmitt, T. M. (2008). The UNESCO concept of safeguar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ts background and Marrakchi roots. *International Journal of Heritage Studies*, 14(2), 95-111.
- Sherkin, S. (2001). A Historical Study on the Preparation of the 1989 Recommendation on the Safeguarding of Traditional Culture and Folklore. *Safeguarding Traditional Cultures: A Global Assessment*, 42-56.
- Sears, L. J. (2002) "comments", *Current Anthropology*, 43(1):146-147
- Stoczkowski, W. (2009). UNESCO's doctrine of human diversity: a secular soteriology?. *Anthropology Today*, 25(3), 7-11.
- Su, J. (2020). Manag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context of tourism: Chinese officials' perspectives. *Journal of Tourism and Cultural Change*, 18(2), 164-186.
- Urry, J. (1990). The consumption of tourism. *Sociology*, 24(1), 23-35.
- Van Zanten, W. (2004). Constructing new terminology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 international*, 56(1-2), 36-44.
- Yoshida, K. (2004). The museum and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Museum International*, 56(1-2), 108-112.

## Abstract

# The Ambivalence of UNESCO Nomination and the Transmiss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Focused on Korea's Gijisi Juldarigi

Rashila Maharjan

Department of Anthrop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case of "Gijisi Juldarigi," a UNESCO Intangible Cultural Heritage(ICH) transmitted from the village of Gijisi-ri in Songak-up, Dangjin City, Chungcheongnam-do, to explore how "community" and "community participation" emphasized in the UNESCO 2003 Convention is practically manifested in the process of preserving and listing ICH. The researcher discovered that throughout this process, Gijisi Juldarigi has been continuously managed through UNESCO and the government, acknowledging the potential risks of

'fossilization' or 'fixation' associated with such management. However, the study also examines how this management contributes to the preservation and activation of ICH.

The researcher focused on the management carried out by UNESCO and the government and introduced the concept of "Ambivalence" to attempt an analysis of the pros and cons of the issues arising during this management process. To achieve this, the researcher conducted ethnographic fieldwork, involving members of the Gijisi Juldarigi Preservation Committee, local villagers, and tourists.

Even though UNESCO emphasizes the participation of the community, in reality, the community is not involved in the listing process. The community, which is the subject of transmission, was only allowed to sign the agreement form but did not confirm participation in anything else. Researchers criticized the fact that the 2003 UNESCO Convention was not applied as it is in the actual transmission process and that in the case of a country that experienced colonization, such as Korea, it emphasized excessive community participation because there was no community itself. On the other hand, despite the indifference of the villagers, the Preservation Society highly praised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Gijisi Juldarigi through various activities.

Despite UNESCO's emphasis on community participation, in reality, ICH is often registered without involvement from the community. During the Listing process, the preservation committee, as the main transmitter, might sign agreements but their further participation may not be verified. UNESCO points out the disparity between the convention and the actual transmission process, acknowledging that countries with a history of colonization may lack an existing sense of community due to



identity loss. This limitation challenges the convention's implementation solely based on community participation and raises critical perspectives on the excessive emphasis on community involvement. On the other hand, the preservation committee is highly praised for its diverse efforts in safeguarding and transmitting Gijisi Juldarigi through various activities.

UNESCO List ensures the transmission of ICH according to established systems, and nations manage their ICH accordingly. ICH has been continuously managed through UNESCO, national institutions, and the bearers of tradition. The management of ICH exhibits an ambivalence: one side aims to prevent change and fossilization, while the other seeks to maintain and activate it. This dual nature of management has led to opposing viewpoints.

On one hand, there is cultural managerialism that supports management in accordance with established systems, arguing that it safeguards and activates ICH from potential fossilization. On the other hand, cultural naturalism criticizes such management, as it may lead to fossilization. The debate revolves around whether the prescribed management approach ensures the preservation and activation of ICH or hampers its survival.

Consequently, improper management can lead to a high risk of the original ICH disappearing or being transformed and reproduced. Additionally, if left untouched in a natural state, there is a concern that it might deteriorate, highlighting the significance of appropriate management for ICH.

However, registering and managing ICH under UNESCO also serves to strengthen its identity and suppress changes. For instance, after the Listing of "Gijisi Juldarigi" to UNESCO, efforts have been observed to fix the phenomenon by organizing festivals in predetermined ways, recording them in documents, preserving videos, and exhibiting them in museums to prevent

their disappearance. Moreover, "Gijisi Juldarigi" being an ICH as well as a state-designated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means it tends to be transmitted exactly as it was when registered, following the original form rigidly. Thus, when ICH is transmitted within the framework of established systems, it inevitably faces the risk of fossilization.

However, the management of ICH goes beyond mere fossilization. Instead, through proper management, ICH can be revitalized and sustained. With UNESCO's List,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the influx of tourists, leading to the activation of ICH such as "Gijisi Juldarigi." This activation significantly contributes to the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of ICH. The UNESCO Convention emphasizes education for the protection of ICH. Therefore, the Gijisi Juldarigi Preservation Committee conducts educational programs targeting students and its members to ensure the transmission and activation of ICH for the next generation.

Furthermore,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joint registration with countries such as the Philippines, Cambodia, and Vietnam enables cultural exchanges and provides further assistance in protecting ICH. Such efforts have facilitated interactions between Gijisi Juldarigi and other ICH practices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promoting their transmission and activation.

This study explored the significance of managing ICH, which involves both the risk of fossilization and the chances of activation. Due to the inherent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CH management, it emphasizes considering both aspects. In particular, concerning the management of ICH in Korea, despite notable achievements, a passive approach has been observed, prompting the need for the government to actively promote and

educate the public about its importance. While UNESCO and national institutions play crucial roles in the management of ICH, it is equally important to support and encourage active participation from the general public in the transmission of ICH.

**keywords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UNESCO, Community,  
State, Cultural Management, Ambivalence**

*Student Number : 2020-24805*